



2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2호

(루게 592)

◇◇◇◇◇◇◇◇◇◇

## 차례

◇◇◇◇◇◇◇◇◇◇



조선아 너를 빛내리 .....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	6
백두의 세월 .....	10
우리의 장군 .....	11
새벽노을 .....	12
주체사실주의문학창조의 불멸의 본보기 .....	21
잊을수 없는 2월 16일 .....	25
그이의 탄생 .....	26
시대와 민심 .....	27
장군의 눈보라 .....	32
평양의 아침노을 .....	40
설날의 축복 .....	41
정일봉 .....	46
계단을 오르며 .....	50
무한대 .....	51

우리 당의 눈빛 .....	53
위대한 령도자, 복받은 시인 .....	54
장군님과 전사 .....	57
백두광명성 솟아오른 영광의 집을 찾아서 .....	58
생명보다 더 귀중해 .....	59
월비산은 길히 전하리 .....	60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	63
향도의 자욱 빛나는 문화예술부혁명사적관을 찾아서 .....	66
수놓는 녀인들 .....	68
대흥단향취 .....	69
《우끼시호마루》선원의 수기 .....	71

## 조선아 너를 빛내리

해쫑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땅에서 수령님 높은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승리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크나큰 혁명적공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김정일**동지의 탄생 5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만고의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출위인의 품모를 지니시고 수십성상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장구한 기간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수령님의 가장 위대한 동지, 가장 충실한 방조자가 되시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하여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숭고한 충실성과 도덕의리의 세계를 펼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게 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에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무궁토록 흐르게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혁명진지를 불패의것으로 다지시고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령도하시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반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충효의 최고귀감이신 경애하

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만민의 아버지로 영생하시교 인민들이 수령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하게 되었다는것을 가슴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문무재덕을 겸비하시교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파란많은 력사의 소용돌이를 헤치시며 우리 혁명과 인민대중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회세의 령장이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교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승리의 진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수많은 새로운 사상과 리론들을 내놓으시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우리 시대 지도사상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20세기 후반기의 복잡다단한 환경속에서 력사의 방향타를 확고히 틀어쥐고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즐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고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를 받아안게 된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업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혁명의 주체의 3대력량으로 내세우시고 당, 군, 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시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의 중추를 이루는 향도적력량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을 혁명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바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확립하시교 빛나게 구현하시여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시였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오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여 우리당을 사상적순결성과 조직공고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대중에게 의지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

세우시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심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과 인민의 혈연적연계를 반석으로 다지시였습니다. 우리 당 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생활력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밑에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인민들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오늘 현실에서 힘있게 파시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을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모진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사소한 드림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인민을 위하여 절대복무하며 인민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혁명위업앞에 세우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 주력군을 이루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주체적인 군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혁명무력건설의 최성기를 펼치시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충효일심의 당군으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 전략전술과 전법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되게 하시였으며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숭고한 애군, 애병정신을 지니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군대를 먼저 찾으시여 전연에서 전연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어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깎 들어찬 우리 당의 제일군위병, 제일결사대로 튼튼히 준비되었습니다.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모든 장병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 군민일치, 당청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혁명군대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로고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품모입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지켜내는가 다시금 식민지노예가 되는가 하는 생사존망의 시기에 군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군사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교 우리 인민군대를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키워 우리 사회와 혁명대오의 앞장에서 혁명을 지키고 전진시켜나가도록 하신것은 주체조건,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빛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업적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적령도자의 품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교 인덕정치를 베푸시여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으로 키우시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과 보람있는 생활을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직 인민을 위하고 인민이 지지하는 정치만을 펴시여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불패의 인민으로, 수령을 알고 당을 알고 혁명을 아는 가장 고결하고 의리깊은 인민으로 육성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더욱 보람차고 잘살게 하기 위하여 늘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하시면서 인민을 보살펴주시고 인민의 념원과 소망을 풀어주시였습니다.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니시고 혁명전사들을 두터운 믿음과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선배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내세워주시며 청년중시의 정치를 베푸시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로,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키우시고 지식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보람있고 떳떳하고 값있게 살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혁명전사의 보람찬 삶과 참된 행복을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고있으며 모두가 장군님의 한식술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 적대품모를 활짝 꽃피우고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당과 군대, 인민을 필승불패의 혁명력량으로 강화하시교 자기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 군, 민의 3대일치를 실현하시여 당은 군대와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령도하며 군대와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당

의 정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혁명의 주체의 새로운 단결의 역사를 펼치신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어떤 풍파도 뚫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지를 높이 추켜드리고 우리의 혁명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을 사회주의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사상, 우리당의 붉은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 사회주의식으로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으로 되게 하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여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고 어떤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살며 발전해나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주체예술의 개화기를 펼치시고 온 나라에 고상한 문화정서생활과 혁명적량만이 넘치게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적들과의 가장 치열한 대결속에서 쟁취한것으로 하여 더없이 자랑높고 귀중한것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제국주의자들, 반동들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켜 우리의 사회주의를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공격이 집중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으로 적들을

취락파락하시며 사회주의의 보루를 굳건히 지키시고 주체조선의 위력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하신것은 인류가 찬탄하는 력사의 기적으로, 세계사적공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진펄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면서 사회주의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계십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준엄하고도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장군님께서 계셔야 조국도 혁명도 인민도 있으며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시고 온 민족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조국통일위업에 민족사적공적을 쌓으셨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현장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옳바른 통일방략들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앞길을 밝히시였으며 열렬한 조국애와 동포애,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로 조국통일을 위한 온 민족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시고 안팎의 원썩들의 분렬주의적책동을 짓부셔나가시였습니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온 7천만겨레는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으며 통일의 밝은 앞날을 앞당겨나가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대외활동에서 주체의 대, 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도록 하시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존엄을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으로 인민대중의 사회주의위업을 견결



히 수호하시었으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과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시고 투쟁의 지침을 안겨주시어 사회주의운동이 자주의 궤도에서 전진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탁월한 령도로 하여, 시대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쌓아올리신 크나큰 공적으로 하여 세계정치의 원로로, 사회주의승리의 상징으로 진보적 인민들과 혁명가들로부터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김정일**동지는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위대한 계승자로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시는 탁월한 령도자로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로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인민대중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가장 큰 행운이며 장군님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지고 끝없이 빛날것입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한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뚫지 못할 시련과 난관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철석의 신념이며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불변할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혁명의 뇌수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모시며 전당, 전민,

전군이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적 열정과 패기, 신심과 락판에 넘쳐 장군님께서 제시

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을 결사관철함으로써 경제문제, 인민생활문제를 기어이 풀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야말것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될 올해를 새로운 대고조의 해, 부흥과 승리의 해로 우리 당과 우리 혁명력사에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무력으로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키며 적들이 감히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송두리채 들어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 투쟁에서 당, 군, 민의 3대일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과 군대, 인민의 단결된 위력으로 적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겠습니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신뢰는 절대적이며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 열정과 기세는 백배천배로 충천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역세계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부원은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열렬히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원

1997년 2월 16일

## 백두의 세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55돐에-

최영화

신다섯해, 이 세월은  
하늘의 해와 같은 세월입니다  
이 세월은 2월에서 싹트고  
2월의 태양이 무성하게 키운 세월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다섯해를  
백두의 세월이라 불러 노래하렵니다

참으로 이 백두의 세월은  
지금까지 흐른 수천년 인간세월에도  
그 가치를 비겨말할수 없는 세월  
이제 인간세상에 흘러갈 세월에  
새 시원을 열어놓은  
창세기와도 같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있어  
나의 조국은  
마치 하늘의 못별들속에서도  
새별이 유난히 빛나듯이  
지구의 여느 나라와는 달리  
류달리 빛나는 주체의 조국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월속에서 살아온 사람  
그 위대함과 광휘로움을  
그 향도성과 영원성  
온 몸과 마음으로 터득하고  
온 녀으로 살아온 조선의 시인

나는 노래를 드립니다  
다른곳도 아닌 바로 백두산  
민족의 이 조종의 산에서 탄생하신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  
백두세월의 시원을 열고 빛내이신  
백두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노래의 꽃다발을 드립니다

노래합니다  
백발의 조종의 산이  
수령복을 한가슴에 받아안고  
《조선아, 대통운이 났다!》  
《이 나라에 광명성이 솟았다!》  
이렇게 웨치며 환희에 겨워겨워  
3천리에 만년백설을  
해빛에 담아 휘뿌리던 첫 2월을

백두의 세월이

백두밀영의 고향집 문턱을 나서  
첫자욱을 떠 바로 그 백두산 산정에  
태양의 빛으로 높이 솟은 정일봉  
백두세월의 대기념탑으로 상징으로 솟아  
그 이름도 거룩한 성봉 정일봉에  
이 노래를 부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고 또 불러도 다 노래할수 없는  
이 위대한 세월 신다섯해를  
바다의 물방울과도 같은 이 작은 붓으로  
어찌 다 노래할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영재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태양의 광원으로  
이 땅에, 이 행성에  
그리도 무성히 설레이게 하여주신  
주체사상의 숲들을

이 땅에 이룩해놓으신  
그 많은 위대한 창조물들과 대기념비들을  
이 땅에 꽃피워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생활의 꽃들과  
그 모든 이 시대의 찬란한 탑들을  
어찌 다 노래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노래할수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태양의 그 뜨거운 열원으로  
끝없이 만발하게 하여주신  
그 모든 행복의 꽃들과 웃음들을  
가장 뜨거운 인간사랑과 믿음들을  
가장 숭고한 도덕과 의리들을...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 나라 인민들의 그 모든 충효의 마음들과  
일심단결의 그 위대한 힘들을  
내 나라를 무적필승의 대강국으로  
이 조선을 지구의 축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빛내여주신  
그 모든 위대하고도 영원한것들을  
어찌 다 노래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것들은  
오직 신다섯해,

이 백두세월만이 노래할수 있습니다  
 참으로도 이 찬란한 세월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존함으로만 불리울수 있는  
 백두의 세월입니다

진정 이 백두세월은

하늘의 모든 별들과 지구의 모든 빛을  
 다 모아 비친다해도 다 비칠수 없는  
 그런 우주와도 같은것입니다  
 청춘의 모습으로  
 세기와 세기를 밝힐 태양의 빛발은  
 백두의 세월로 영원할것입니다

## 헌시

# 우리의 장군

-기념촬영장에서 부르는 노래-

김철

경모의 마음  
 감사의 마음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러러 목메여 환호하는 자리에  
 나오시여라  
 우리 장군님께서 나오시여라

성스러운 사명 거창한 위업을  
 한몸에 맡아안고 일어서신 령장!  
 보는가 세계여 조선은 오늘 다시  
 위대한 장군을 맞이한 나라!  
 특기하라 력사여 우리는 또 한분의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인민!  
 기쁨에 겨워 터치는 웨침이다

행복에 겨워 흘리는 눈물이다  
**김정일**장군!  
 그이는 살아계시는 **김일성**동지!  
 그이는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

보여온다 그이 모습에서는  
 오늘따라 더욱 숭엄한 백두의 성산이  
 울려온다 그이 손길에서는  
 장장천만리 혁명의 진두에 휘날려오신  
 붉은기 붉은시의 펄럭임소리

쌓으신 업적 천심에 닿았고  
 이룩하신 창조물 대지에 넘치여라  
 사상으로 령도로 고매한 인품으로  
 문무충효를 다 함께 갖추신  
 그 비범함 그 걸출함으로  
 만민의 심장에 추앙되신 령도자

오직 그이만이  
 우리 당과 정권 우리 무력을  
**김일성**동지처럼 맡으실수 있고  
 그이만이 오직 수령님의 유훈대로  
 통일된 강국 자주의 새 세계  
 만대의 복락을 안아올수 있기에

받들었다 전당은  
 그이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모시였다 인민은  
 그이를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오, 민족사 5천년 세기의 령마루에서  
 다시한번 맞이한 크나큰 경륜이여  
 우리의 일심 우리의 단결  
 우리 혼연일체의 뇌수이며 심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이시여

받으시라  
 전당이 드리는 이 총의를  
 전민, 전군  
 7천만의 겨레가  
 열광의 환호로 터뜨려 올리는  
 이 지지, 이 기대, 이 축원을

혁명의 개척자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내다보신 희망찬 상상봉  
 창창 광휘로운 그 끝까지  
 장군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리  
 사랑과 믿음으로 안아키운 인민을  
 친아버이품에 안아 길이 보살피시리

우리 다짐하나니  
 오로지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며  
 붉고붉은 한마음 장군님께 바치리  
 우리모두가 장군님의 피가 되고 골육이 되어  
 생사운명을 장군님과 함께 하리

오오-  
 천세만세 빛나실 우리 태양성!  
 아아-  
 우리 령도자  
 우리 아버지  
 우리 최고사령관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시여!

## 새벽노을

리희남

## 1

아버이수령님과 영결식이 있은지도 벌써 여러날이 지나갔다.

은 나라는 여전히 깊은 애도에 잠겨있었다. 우주를 진감시킨 슬픔의 격랑은 멈출줄 모르는 대하처럼 끝없이 계속될 상심였다.

이른새벽이었다.

대지는 붉은 노을에 잠겼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정원을 거닐고계시었다.

피빛같은 노을이 정원수들 사이로 스며들고있었다. 불그스름해진 새벽안개가 그이의 발치에서 뭉뚱치듯 휘휘 감돌고 나무잎새들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피눈물처럼 똑똑 떨어지고있었다.

이슬에 젖은 바지가랭이, 수척해지신 얼굴...

그이께서는 무거운 한숨을 툫다가는 그 무엇을 부정하시는듯 머리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기도 하시었다.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었다.

슬픔을 가져다준 현실에 대한 완강한 부정.

요즘은 자나깨나 이런 부정뿐이시었다. 가슴이 텅 빈것만 같은 공허감을 가실래야 가실수가 없어 결국 부정으로 떨어지는것이였다.

하지만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그리움을 지향하는 심혼의 분출을 어찌 막을수 있단말인가.

간밤 그이께서는 또 한차례 수령님을 만나뵙는 꿈을 꾸시었다.

반갑게도 온 나라에 림진강철교가 이어졌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민족이 기다리던 시각이 왔소!》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평양-서울행 열차에 오르고계시었다.

역두에 설레이던 꽃물결, 군중의 환호.

꿈이었지만 승강대에 서시여 태양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흔들어주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얼마나 생동하게 그려지는것인가.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둔 어느날 남녘땅 인민들이 보고싶다고 말씀하시던 수령님이 못내 그리워지시었다.

그때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조미사이에 완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전환적인 국면이 열리던 시기였다.

수령님께서 반세기동안이나 끊어져있던 북남간의 철교를 이어놓으려고 열차로 남녘땅에 나갈 차비를 하고계시었다. 더는 미룰수가 없었던 남

녘동포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만 했더라면 과연 어떤 환희가 이 나라 삼천리강토를 휩쓸었을 것인가.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비바람이 백화가 만발하던 통일의 화원을 휩쓸었다.

장군님께서 민족이 당한 이 엄청난 상실이 돌이켜지기만 하면 가슴이 저려나시었다. 너무도 큰 상실이였다. 하나의 우주를 창조한다 해도 도저히 보상할수 없는 상실이였다. 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보상해야만 하는 상실이였다.

장군님께서 비장한 결심을 다지시는듯 큰 숨을 들이키시었다.

해돋이가 가까와오는지 정원을 물들인 붉은 색조는 점점 더 진해졌다.

그이께서는 방금전 집무실에서 보시였던 내외정세자료가 생각나시었다.

자료에 의하면 조선에서 반드시 변화가 생기리라 하는 은근한 예측들이 의연히 가서지지 않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단된 조미회담을 놓고 서울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의 큰 양보를 받아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것이였다.

아마도 수령님께서 안계시니 조선의 강경한 립장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얼마나 가소로운 판단인가.

장군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으시었다. 오직 인민이 당한 상실을 어서 빨리 가시려고 마음쓰실뿐이였다.

그래서 인민에게 태양상도 안겨주시고 영생의 구호도 제시해주시였던것만 그것이 결코 인민의 슬픔을 가시기 위한 전부로 될수는 없었다.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였다. 우선 금수산지구를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고있는 최고의 성지로 꾸려야 했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 구상하시였던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 공사, 당창건기념탑 건설 등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했다.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도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과 불패성을 론증하는 새로운 로작에 대한 구상도 무르익히셔야 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져있었다.

그이께서는 혁명앞에 제기된 이 모든 중하를 홀로 떠메고 나서시었다. 대양의 파도를 정면으

로 맞받아나선 그 함대에는 도와줄 익측도 없었다.

귀중한것은 시간이였다.

그이께서는 잠도 휴식도 다 뒤로 미루시였다. 자신께서 덜 자고 덜 휴식해야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고 생각하는 그이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많은 일군들을 연방 부르시여 새로운 과제들을 주기도 하시였고 또 손수 수많은 일들을 조직도 하시였다.

어제는 외교부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여 여러 시간동안이나 다시 열리게 될 조미회담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양보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조건들은 모두 수령님의 뜻입니다. 회담은 응당 수령님의 뜻대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새로운 신심에 넘쳐 돌아가던 외교부책임일군들의 흥분된 모습이 지금 불그스름한 새벽안개를 헤치며 하나 둘 나타나는데만 같으시였다. 슬픔속에서 힘을 얻은 그들의 모습이 꾀도 대견하게 생각되시였다.

슬픔은 좌절이 아니라 곧 힘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은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뒤쪽에서 무슨 인기척이 느껴졌던것이다.

돌아다보니 그이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한 일군이 두손을 앞에 마주쥐고 조용히 서있었다.

크나큰 상실감을 안고 홀로 모대기시는 그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여째껏 그렇게 서있은 모양이였다.

《무슨 일입니까?》

그이께서는 꾀도 온화해지신 시선으로 일군의 표정을 더듬으시였다.

일군은 그이의 심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문제를 들고왔다고 생각하는듯 몹시도 저어하며 말쑥을 올렸다.

《저- 얼마전에 부탁하셨던 보석화 <송학도>를 가져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반가운듯 안광을 번쩍 빛내이시였다.

《날자를 어기지 않았구만, 어디 가봅시다.》

해가 떠올랐다. 나무잎새들은 생기를 얻은듯 번들거리기 시작했으나 그 밑에서는 색이 바랜 안개가 여전히 무겁게 떠돌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보석화가 준비되어 있는 방안에 들어서시였다.

방 한복판에 자리잡은 길다란 탁상우에 액틀속에 끼워져있는 《송학도》가 놓여있었다.

한장의 학이 길다란 목을 뽑아들고 밝은 달을 하염없이 쳐다보고있었다. 배경에는 푸른 잎사귀가 달린 소나무가지가 드리워져있었다. 목가적인 풍경이였으나 생의 아름다움과 영원을 의미하는

은근한 정서가 풍기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우에 두팔을 깎지끼시고 《송학도》를 음미해보시였다.

그이의 얼굴에는 경건한 빛이 어리였다.

어쩐지 생에 대한 무한한 환희에 접하신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더 아름답고 더 의미심장한 그 무엇을 그려보시는것 같기도 했다.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락을 누리고있는 한쌍의 학과 소나무라... 어떻습니까? 이것을 장수도라고 놓고 생각해볼 때 말입니다.》

일군은 이렇다할만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듯 얼른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있었다.

《내가 보건대 달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수가 달밤을 지향한다는게 좀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달보다 새벽노을이 더 의미심장할것 같습니다. 백차구 아름답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탁상일력을 급히 번지시였다. 《8월 11일》이라는 날자가 번져지자 붉은 색연필로 력점을 찍듯이 사각형표식을 해두시고는 한동안 눈길을 떼지 않으시였다.

일군은 의혹을 금할수 없었다. 장수의 상징인 《송학도》가 무엇에 필요되는것인지, 《11일》이라는 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도저히 알수 없었던것이다.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국에 왔던 동포들속에서 무슨 반영들이 제기된건 없습니까?》

그이께서는 탁상우에 색연필을 놓으시며 물으시였다.

《장군님께서 위로연을 베풀어주시여 몹시 감동하고있지만 여전히 슬픔속에 잠겨있습니다. 특히 리정주선생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선생을 만나보았는데 미국으로 되돌아갈 기력조차 있을상실지 않았습니니다. 선생은 주석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평양을 찾겠는가고 하면서 자신은 다시금 거목에서 떨어진 락엽의 신세가 된듯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조국에 얼마간 머물러있으면서 어느 깊숙한 산속에 들어박혀 심신의 허탈을 털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랍니다.》

가슴을 저미는듯한 일군의 말을 들으며 그이께서는 침통한 기색을 지으시였다.

(락엽의 신세가 되다니...)

그이께서는 속으로 무겁게 뇌이시며 다시금 《송학도》에 눈길을 주시였다.

《송학도》는 생의 아름다움과 영원에 대한 환희를 속삭여주고있건만 민족은 지금 얼마나 가슴아픈 시련을 겪고있는가.

불현듯 축한에 걸리시여 천교령의 빙설우에 쓰러지셨던 수령님이 생각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를 회고하여 이렇게 쓰시였



다.

《집을 모르는 불새마냥 창창한 대공으로 날아다니던 내 한생의 뜻이 여기서 그만 죽지를 꺾이고 주저앉고마는가 하는 좌절감으로 하여 가슴은 천만갈래로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았다.

우리가 여기서 더 추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던 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쳤다.》

장군님께서서는 어쩐지 수령님께서 당하셨던 그때의 처지가 다시 되풀이된것만 같으시었다. 아마 력사에도 주기적인 반복이 있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30년대의 고난이 90년대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이 엄혹한 시련속에서 몇어버린듯한 조선의 시간을 이어나가셔야 하는 이러한 력사의 첨단에 서계시었다.

## 2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과 리정주간의 관계를 잘 알고계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득히 흘러간 길림시절에 리정주와 연고관계를 맺었다가 인생말년에 이르러서야 평양에서 다시 상봉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후날 《로동신문》에 발표된 리정주의 글을 보신적이 있으시었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곰속에서도 소년회원들이 뛰놀던 길림의 송화강이 반짝거렸고 독립군놀이를 하던 북산의 가을 숲이 설렘였으며 불우물에 정을 함뻑 담은 김성주분의 이목수려한 존안이 웃고 있습니다....

이끼 낀 오랜 세월의 격세지감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석님은 틀림없는 길림시절의 다정다감하고 친형님 같으시던 김성주분 그대로였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원로인 **김일성** 주석님과 함께 위대한 평민으로 남아계시는 김성주분을 다시 뵈게 된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무등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리정주는 자신의 회고담에서 주석님이야말로 인간중의 인간이시였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첫날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길림시절 그대로 소시적 벚으로 대해주는데만 마음을 쓰신 수령님의 인간적인 풍모에 몹시도 감동되었었다.

수령님의 그러한 풍모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다

《나는 인생말년에 리정주선생과 같은 옛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해 조국에 오시오. 그래서 지나온 이야기나 하면서 지냅니다. 낚시질도 하고 사냥도 같이 합시다. 사냥할줄 모르면 내가 배워주겠소. 자주 다니시오. 자주 다니야 정이 깊어지게 되는거요.》

이것이 수령님께서 1994년 5월말 대동강의 유람선우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수령님과과의 마지막상봉이 되고 그 말씀이 그에게 하신 마지막말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금수산의사당에서 리정주를 만나던 그 비통한 순간을 잊을수가 없으시었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에 고패치는 비분을 삼키시며 호상을 서고계시었다.

머나먼 이역땅에서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듣고 달려온 리정주는 궁전홀에 들어서자 수령님의 령전에 허둥지둥 달려가며 눈물을 쏟았다.

리정주가 왔다고 아뢰는 그의 비통한 모습을 보자 그이께서는 가슴이 찢기는것만 같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홀에서 헤어져 60여년만에 백발을 이고 나타난 그를 한품에 안아주시었고 또 이 홀에서 그의 여든육생일을 자신이 친형님된 심정으로 차려주겠다고 하시며 자식들과 남에 있는 동생과 조카랑 데려오고싶은 사람은 다 데려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은정깊은 사랑을 받아안은 그는 왔건만 수령님께서서는 왜 누워만계시는지.

이 홀에서 그를 처음 만나주시던 그때처럼 《아정주가 틀림없구만! 어디에 가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다소.》라고 하시던 그 걱정적인 말씀을 왜 다시는 들어볼수 없는지.

수령님의 령전을 돌아보고난 리정주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마주섰으나 목이 꼭 메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위로하듯 그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그리고는 그의 귀전에 대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선생님, 먼길을 수고롭게 와주시여 감사합니다.

수령님께서 앉아계셨더라면 얼마나 반가와하셨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며칠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80육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참 섭섭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제야 리정주는 막혔던 목이 열린듯 떠듬떠듬 말씀을 올렸다.

《참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늘이 꺼진것 같습니다. ... 너무 심로하지 마시고 귀하신 몸保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시금다시금 눈물을 흘리던 그를 지금도 눈앞에 보는것만 같으시었다. 어쩐지 백발이 성성한 리정주의 그 모습이 예리한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것이였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다섯해, 인생의 진정과도 같은 그 뜻깊은 나날을 보내던 그가 정녕 락엽의 신세가 되었단말인가?

아까 보시였던 그 《송학도》가 다시금 머리속에 그려졌다. 무궁한 자연도 행복한 생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상싶건만 그는 어찌하여 순간에 자신의 푸른 잎사귀들을 모조리 털어버렸는가.

피로움을 안으시고 집무실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또다시 집무탁에 다가서시여 탁상일력에서 《8월 11일》을 번져놓고는 생각에 잠기시었다. 부드러워지신 눈길에도 지그시 다무신 입술에도 자애와 피로움이 서로 엇갈리는듯한 형용할수 없는 그 무엇이 어리여있었다.

그이께서는 다시 방안을 거니시었다. 간간히 가벼운 한숨을 쉬시며.

피로운 밤은 이렇게 깊어갔다.

새벽이 되자 그이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누워 계시는 수령님을 찾으시었다.

때없이 수령님을 찾으시는 그이이시었다. 밤중에도 찾으시였고 새벽에도 찾으시었다. 어떤 날에는 세번 네번씩 금수산의사당으로 오가곤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령전에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수령님과 영원히 함께 계실것만 같은 그이의 모습은 그대로 숭고함의 절정이었다.

그이의 입가장자리와 이마에는 슬픔의 굵은 주름들이 생겨났고 잠을 설친탓으로 얼굴은 부석부석해지시었다. 신성한 선서를 하는듯 깊은 사색에 잠긴듯 그 무슨 심연속을 더듬고계시는듯 그이께서는 거룩한 동상처럼 좀처럼 움직일줄 모르시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비애인가? 피로움인가? 인민의 고통인가? 혹은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셨던 지난날에 대한 추억인가? 아니면 래일에 대한 구상인가? 아마도 그 모든것을 다 안고계신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감정과 사색속에서 인민에게 필요한것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군했다. 자신께서 체험하고계시는 일신상의 슬픔이나 피로움은 절대로 입밖에 번지지 않으시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것인지 또 얼마나 아픈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것은 력사의 갈피속에 영원한 비밀로 남을는지 모른다.

장군님께서 금수산의사당광장에 나서시니 멀리 새벽노을이 비껴오고있었다. 대지의 한끝에서 신비롭고 청신한 아름다움이 피어나며 강산을 물들이고있었다.

피로운 밤을 지새우며 맞으시는 노을이었다.

(서광을 향해 마중가자.)

혁명가요의 한 구절이 생각나신다. 아름다운 희망에 접하신듯 가슴은 벽차게 끓어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광장의 한복판에서 일군들에게 금수산지구를 성지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열정적인 손짓을 따라 슬픔을 겪으며 무르익혀오신 그 많은 구상들이 련이어 재현되고

있었다.

《금수산지구를 성지로 꾸리는데 천만금의 재부가 든다 해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후날 세상을 경탄시킨 그이의 위대한 업적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아직 이러한 업적이 마련되있음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업적은 그 위대성에 비해 너무도 조용하게 소리없이 태어나고있었던것이다.

한낮이 되자 장군님께서서는 숨막히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금수산지구를 둘러싼 운하의 제방뚝을 천천히 걸어가시었다.

어쩐지 폭양에 뜨겁게 지지우는 대지위에 슬프고도 피로운 심정을 비말처럼 산산이 뿌려던지고 싶으시었다.

여름은 짙어가고 하늘은 푸르렀다. 푸릿한 안개에 잠긴듯한 머나먼 지평선이 마주 다가오고있었다.

제방뚝에는 무성하게 자라난 포도넝쿨들이 쪽늘어서있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손수 가꾸시던 포도밭이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싱그러운 향기, 포도넝쿨마다에 주렁주렁 무너지게 달린 탐스러운 포도송이들, 어디를 둘러보나 애절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연 깊은 자연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알이 굵고 류다른 맛을 풍기는 이 포도를 《조선포도》라고 이름지어주고는 해마다 많은 포도를 수확하여 평양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내주곤하시었다.

처음에는 어디서 난 포도이며 또 누가 보내주는 포도인지 아무도 몰랐다. 세월이 흘러서야 모르고 받았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어김없이 찾아들던 그 사랑을 전하러는듯 수령님께서 돌아가신 올해에도 례년과 다름없이 포도풍년이 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별안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충격을 받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비록 가지였지만 수령님의 손길이 미친 자연은 얼마나 풍만한 열매를 선물하고있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송학도》에 형성된 그 아름다운 자연을 현실에 보는것만 같으시었다. 인제는 달 밝은 밤이 아니라 새벽노을이 비끼는 《송학도》였다. 그 《송학도》가 어느덧 가슴속에 차분히 들어앉은것이였다.

돌연 락엽의 신세가 되었다는 리정주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었다.

무성해진 자연과 허탈에 빠진 인생, 너무도 판이한 대조였다. 그도 락엽의 신세가 될 대신에

이 자연처럼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시었다. 언젠가면 사람들의 가슴에 드리운 그 쓰라린 그늘이 가시어질 것인가.

머칠전 록화테이프에서 보셨던 화면들이 연줄연 줄 떠올랐다.

여전히 만수대언덕을 찾고있는 사람들, 그속에 포도송이를 그린 그림판들을 두손으로 머리위에 쳐들고 울고있던 어린이들, 할아버지대원수님께서 안겨주시던 포도송이가 그리워 터치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다시 귀전에 울린다.

수령님의 서거로 하여 생겨난 무서운 공간은 생활의 도처에 드러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픈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며 뽀얀 색깔을 뒤집어쓴 포도송이를 만져보시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말큰하면서도 부드러운 감각이 어쩐지 가슴을 찢히하게 하시었다.

(잘 익혔다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내줘야지.

수령님께서 그처럼 귀해하시던 우리 어린이들에게...)

장군님께서서는 금수산의사당에서 돌아오시자 조국을 떠나는 조미희담대표단을 배려주시었다.

머칠전에 회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까닭인지 그이께서는 별로 긴 말씀을 하지 않으시었다.

다만 대표단의 건강에 대해서만 세심히 보살피주실뿐이였다.

《한가지만 말해두겠습니다. 적들이 오그랑수를 쓸수도 있습니다.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칼자루는 우리에게 쥐여져있으니 시종일관 단호하게 철추를 내리시오!》

그이께서는 필수록 범상한 어조로 말씀하려고 애쓰시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이의 말씀을 자주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어조에서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확신하고계시는듯한 새로운것을 감축할수 있었다.

대표단성원들은 정중한 자세로 서있었다. 한결 같이 비상한 각오가 어린 얼굴들이었다.

《자, 그럼 승리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간곡한 당부를 하는듯 대표단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었다. 단장의 손을 잡았을 때는 두번씩이나 힘있게 흔들어주며 놓을 줄 모르시었다.

조국이 슬픔을 겪고있는 준엄한 시기에 대표단은 크나큰 믿음을 안고 미제와의 대결을 위한 전선으로 떠나갔다.

그이께서는 창문가에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정원은 고요에 잠겼다.

장군님께서서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뿜고는 록음기를 틀어놓으시었다.

폭넓은 서정을 담은 합창곡이 울리었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수만리 눈보라 헤쳤습니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선의 새 아침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어가고 방안에는 절절한 감정이 격랑처럼 뒤설레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선물이 담은 그 거대한 상상력에 심취되시었다. 눈앞으로는 피어린 투쟁의 력사가 거창한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갔다. 그 어느 개별적인 합창단이 아니라 인민전체가 새 아침의 영원성을 구가하는것만 같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력사앞에서 지니신 무거운 사명감을 절감하시었다. 아침의 계승! 밝고 장엄하면서도 엄숙한 시각이였다....

선물은 더욱 고조된다. 검은 구름을 몰아내며 새벽노을이 비긴다. 태양이 빛난다.

그이께서는 보이지 않는 음악의 파도위에 실려 점점 더 높은곳으로 치달아오르시었다.

갑자기 심중에서 찢릿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으시었다.

인민을 놓고 잠들지 못하신 이러한 밤이 과연 그 얼마였던가.

### 3

얼마후 그이께서는 만경대쪽으로 차를 몰아가시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주 다니시던 길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번거로운 생각에 잠길 때마다 이렇게 홀로 차를 몰며 수령님의 발자취를 밟아보곤하시었다.

차는 듣기 좋은 음악처럼 부드럽고 고르로운 소리를 내며 내달리었다.

그이께서는 마치도 수령님을 찾아 어디론가 끝없이 가고있는것만 같으시었다. 가고가느라던 기억이 수령님의 품에 안길것이였다.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리는듯했고 눈여겨보면 환히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이 크게 확대되어 마주오기도 하시었다.

환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였다.

눈앞에는 다만 어둠을 밝히는 두줄기의 불빛만이 보일뿐이였다.

밤이 깊었는데도 불을 끄지 않은 창문들이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갔다.

모두들 저렇게 밤들을 새우고있는걸 보니 가슴이 쓰리시었다.

요즘은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 창문들을 놓고도 이렇게 마음을 쓰시게 된다.

그이께서 타신 차는 리정주가 들어있는 집앞에 조용히 멎어섰다.

몇해전에 만경대까이에 거처하고싶다던 그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수령님께서 새로 지어주도록



하신 크고 아담한 집이었다.

그는 조국에 머무를 때마다 이 집에서 즐겁고 뜻깊은 나날을 보내곤 했다. 사연깊은 집이었건만 지금은 굳이 침묵을 지킨채 어둠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역시 불빛이 꺼지지 않고있는 창문들엔 창가림이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그속엔 지나간 날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듯했다.

별안간 가슴을 쥐어짜는듯한 참기 어려운 서글픔이 치밀어오르시었다. 잇달아 지나온 길에서 보았던 창문들이 어둠속에 반디불처럼 언뜻언뜻 나타났다.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 그 많은 창문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필경 가지가지의 가슴아픈 사연들이 수없이 드러날것만 같으시었다.

수령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눈물로 세상을 뒤흔들더니 지금은 밤을 모르는 인민, 아니 안식의 잠을 모르는 인민... 정녕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무겁게 뒤채는 내 나라의 밤이었다.

또다시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가 눈앞에 펼쳐진다. 비발치는 적의 총탄, 생사의 경각에 이르신 수령님, 발구결에 쓰러져있는 16명의 대원들.

수령님께서서는 심신의 힘을 모아 《반일전가》를 부르신다.

...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수령님께서서는 하나의 《반일전가》로 역경에 빠진 혁명을 구원하시었는데 자신계선 무엇으로 안정을 잃은 인민을 구원한단말인가.

문득 어머님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자장가가 생각나시었다. 먼 하늘가에서 울려오는것만 같은 은근하고 부드럽고 구성진 그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곤하던 일도 기억되시었다. 참말로 세상의 온갖 번거로움을 밀어내고 그치없이 아늑한 보금자리를 펼치는것만 같던 신묘한 자장가였다.

자신에게 지금 그런 자장가가 있다면 인민을 편안히 채우련만...

(아, 나의 자장가는 어디에 있는가?)

그이께서는 속으로 괴롭게 외우시었다.

하지만 갈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객관적의지를 따르는 현실은 언제나 령정한것이다. 현실의 그 무엇도 신령스러운 매력을 가진 어머님의 자장가를 대신할수 없을것이다.

장군님께서 집안에 들어서시였을 때, 리정주와 부인은 원탁앞에 나란히 앉아 구슬품에 잠긴 그 우한 표정으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의때에 금수산의사당에서 그를 만나보고는 지금이 처음이시었다.

기름기가 빠진듯한 그의 백발, 실컷 울고난듯 부석부석해진 눈시울, 창백하고 비통한 그늘이 비낀 얼굴 그리고 생기를 잃은 풀잎같은 부인의 모습을 보자 얼굴빛이 달라지시었다. 이 며칠동안

안에 너무도 몰라보게 상한 모습들이었다.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있길래 들렀습니다.》

리정주는 사진첩을 번지던 손을 떼지 못한채 굳어졌다. 순간이 흐르뒤에야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떨며 눈시울을 붉혔다.

황급히 일어나 어쩔바를 모르던 부인도 눈을 습벅거리고있었다.

그들은 피로와 잠못들고있는 적적한 순간에 자기들을 찾아주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인을 만난것이었다.

《이거 참 안됐습니다. 제일만 생각하다나니 미처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위로할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을 하고싶었으나 찾을수가 없으시었다.

《장군님, 오히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찾아뵙고 슬픔을 덜어드려야 하는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피차 슬픔을 겪고있는 같은 처지들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원탁앞에 다가서시여 사진첩을 들여다보시었다. 조국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첩의 첫장에는 이 집의 정원에서 수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모셔져있었다.

가슴속에서 별안간 저릿한 전류가 흘렀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쳤던것이 다.

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발자취를 남기시였던가.

바로 이 방안에서 리정주와 자주 마주앉아 줄거운 이야기도 나누시였고 또 리정주내외가 차린 오찬에도 여러번 참석해주신 수령님이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방안에 놓인 원탁이며 서가들이며 벽에 걸려있는 풍화화들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수령님과 련결된 잊지 못할 사연을 전하고있어 자연히 감회가 깊어지시었다.

《집안에 들어서고보니 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 집은 수령님께서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지어주신 집이며 선생님께 안겨주신 귀중한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평양에 자주 오십시오. 오시면 이 집에 꼭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수령님께서서 제실 때처럼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음성은 구슬프게 들리고 안색은 길게 흐려져있었다. 웬일인지 수령님을 잃은 슬픔이 또 한번 심중에 굵아쳤기때문이었다.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면서도 이렇듯 울고계시는 그이이시었다.

리정주는 무아경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입술을 반쯤 벌린채 아무 말쑤도 드리지 못하였다.

반응이 빠른 부인이 그의 손목을 꼭 쥐며 조용히 눈물을 머금었다.

드디어 리정주의 얼굴에 격렬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그는 고마움에 젖어 마디마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씀을 올리었다.

《저는 죽어도 주석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주석님께서 길림시질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저에게 호떡을 사주곤했습니다. 그때 주석님께서 저에게 줄수 있는 정이 겨우 호떡 몇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못내 안타까와하시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지니신분이었기에 오늘은 저에게 이런 집도 지어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었습니다. 주석님을 잃고보니 하해같은 그 은정이 더욱 가슴을 파고듭니다.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파 깊은 산속에 들어박힐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고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어쩐지 이 밤에 마음껏 울고싶은 심정뿐임을 말씀드리자고 애쓰는것만 같았다.

《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꼭 심신의 허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도 웬일인지 뜨거워지는 가슴을 달래기가 어려우시었다.

그이께서는 편안히 주무시라고 그에게 몇번이고 당부한 뒤에야 집을 나서시었다.

그이께서 모시는 차는 다시 어둠속으로 미끄러져나갔다.

현관앞에는 리정주와 부인의 모습이 오래도록 굳어져있었다.

집무실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또 한번 탁상일력을 번지시다가 《8월 11일》이라는 날자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눈앞에서는 《8월 11일》이 얼른거리고 마음속에서는 《송학도》가 되살아나고있었다.

새벽노을을 바라보는 한쌍의 학...

새벽이 되자 그이께서는 대동강의 청류다리 한 끝에 서시여 앞으로 금릉2동굴이 생겨나게 될 저쪽을 바라보시었다.

희끄무레한 새벽빛속에 대동강이 드러나고 젖빛안개가 느물느물 피어오른다. 경탄을 자아내는 5월 1일경기장의 은빛지붕이 찬연한 석조를 뿌리는가 하면 청류벽이 매혹적인 자태를 펼쳐며 안겨온다. 대안의 수림속에 반나마 가리워진 하얀 각들도 우줄우줄 키통움하며 일어서는것만 같다.

이 새벽엔 왜 이리도 모든것이 정답고 류달리 아름다와보이는지! 자주 보시건만 매번 놀라움을 자아내지 않는가. 이제 저쪽 끝까지 수령님께서 구상하신대로 청류다리가 련결되고 또 하나의 동굴이 생겨난다면 이 지대의 풍치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조화될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하나의 《송학도》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이 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극치와 같은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며 향유하게 될것이다.

머나먼 하늘가에서는 희망과 재생의 열망을 휘말아올리는듯한 노을이 비껴오고있었다.

## 4

희망은 결코 미래의것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희망이라는 개념을 곧 실천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고계시었다. 실천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아예 희망이라는 말조차 번지지 않으시었다.

며칠후 장군님께서서는 무력부의 책임일군들과 마주 앉으시었다.

적들의 봉쇄와 압살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때여서 일군들은 그이께서 필경 적들을 전멸케 할수 있는 그 어떤 용단을 내리시리라는 긴장된 예감을 안고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그 어떤 군사적인 용단이 아니라 뜻밖에도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2계단공사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가.

《나는 이 방대한 공사를 군대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창건 50돐기념일까지 일년동안에 해제끼자면 응당 군대가 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흥분하고계시었다. 그러나 그의 흥분은 침착성을 잃지 않는 그 어떤 리성에 의하여 안받침되어 있는듯했다.

한 일군이 들어와 《송학도》가 도착되었다고 보고드리었다.

《<송학도>를 가져왔단말입니까? 좋습니다. 우리 <송학도>부터 보고 계속합시다.》

한 일군이 《송학도》를 두손으로 받쳐들고 들어섰다.

《여기에 놓으시오.》

그이께서는 집무탁을 가리키시었다.

일군은 《송학도》를 집무탁우에 놓고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도 두팔을 가슴우에 짚고 《송학도》를 음미해보시었다.

먼저번과 달라진것은 밝은 달대신에 새벽노을이 비친것뿐이었다. 그것때문에 《송학도》의 의미적색갈이 완전히 달라졌다.

《송학도》는 목가적이고 처량한 풍경으로부터 생이 약동하는 희망찬 화폭으로 일신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두시였던 《송학도》를 보는것만 같으시었다.

《<송학도>가 마음에 듭니다.》

하고는 탁상일력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사각형표식을 해두신 그 《8월 11일》이 여전히 번져진채로 있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향해 엄숙하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8월 11일이 다가왔습니다. 8월 11일은 리정주선생의 여든흠생일날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선생의 여든흠생일을 친형님된 심정으로 차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였습니다. 이 <송학도>는 수령님께서 선생의 생일날에 기념으로 주자고 친히 구상하신것입니다.》

일군들은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송엄하면서 긴장된 정적은 무엇인가 잊지 못할 사연을 전하려고 참을수 없이 모태기고있는것만 같았다.

그이께서는 한결 더 절절해진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건 단순한 장수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새벽노을속에서 복락을 누리는 한쌍의 학은 인민을 상징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에게 이런 락원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 고생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입을 짹 다무시였다. 입가에 생겨난 잔주름들이 펴고 눈시울이 불깃해지시였다.

일군들은 뜨거운 눈길로 장군님을 우리러보았다. 저마다 걱정을 안은듯 숨소리가 높아졌다.

장군님께서 온갖 슬픔을 겪으면서도 왜 그토록 《8월 11일》을 기억해두시고 왜 《송학도》를 그토록 마음속에 새겨두시였는지 이제야 깊이깊이 헤아려지는것이였다.

《말씀을 듣고보니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정주선생이...》

《송학도》를 가지고 왔던 일군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고 눈은 즐편히 젖어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방금전에 저를 찾아와서 장군님께 한가지 소청을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수령님께서 약속해주시였던 자기의 여든흠생일을 철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동안 곰곰히 생각해보니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겁니다. 국상을 당한 이런 때에 생일연을 벌린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인륜도리로 보아도 도저히 생일을 철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발밑을 굽어보시며 방안을 거니시였다.

잠시 멎었다가는 다시 이어지는 발걸음소리.

무서운 정적속엔 모지름소리와 같은 그이의 숨소리만 울리고있었다.

《내 그럴줄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참만에야 입을 여시였다.

《조의때 보니 선생은 자식들을 데리고오지 않았습니다. 선생과 부인만이 왔단말입니다. 선생

은 그때부터 생일을 포기할 생각이였지만 나는 그때부터 선생의 생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선생의 생일을 쇠는건 수령님의 뜻입니다. 그래 수령님께서 가셨다고 해서 수령님의 뜻을 저버려야 옳겠습니까? 수령님께서 친히 구상하신 이 <송학도>가 그래 주인을 찾지 않은채 묻혀버려야 옳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가슴속에 그득해진 감정을 그대로 내뿜으시였다.

《국상을 당한 때이지만 선생의 생일을 차려주어야 합니다. 계획했던것보다 더 크게 더 요란하게 차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은 결코 멈춰서지 않았습시다.》

일군들의 가슴에 뜨거운 선풍이 일었다.

이 땅에 수령님의 사랑을 이으시는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이야기가 태어난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무력부의 책임일군들을 향해 몸을 돌리시였다.

《그럼 하던 일을 계속합시다. 우리 또 하나의<송학도>를 마련하잔말입니다.》

나는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2계단 공사를 얼마 후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펴갈 결심입니다. 수령님께서 가신뒤 첫 명령입니다.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일떠서며 무엇을 계속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것으로 될겁니다.》

밀림을 휘젓는 폭풍은 편이어 계속되고있었다. 그것은 비애의 장막을 털어버리는 장엄한 전진의 발구름소리를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바로 그날밤에 장군님께서서는 먼 구라파땅에서 조미회담대표단이 보내는 전보문을 받으시였다.

전보문에 의하면 상대방대표단의 단장은 우리측의 단호한 립장에 어쩔바를 모르다가 마침내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주겠다고 하고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해 급히 본국으로 날아갔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근엄해진 눈으로 창문을 내다보시였다. 창문에서는 불빛에 어슴푸레하게 드러난 정원의 나무숲이 설레이고있었다.

(미국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말이지. 장하오. 단장동무!)

그이께서는 가슴이 부풀어오르시였다.

회담은 수령님의 의지대로 진행되고있었던것이였다.

승리가 박두해오고있는 이러한 시각에 목란관에서는 리정주의 80흠생일연이 성대하게 배설되였다.

여기에는 미주대륙에서 온 그의 친지들과 자식들 그리고 정부의 고위인사들과 3백여명의 각계 각층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리정주는 이 성대한 향연의 주인공으로 되였다.

그의 앞에는 이채로우면서도 요란하고 큼직한

과일상 두개가 차려져있었다. 세상의 진기한 과일들이란 과일들은 다 모여든듯싶었다. 상에는 《생일 80쫘》이라는 글을 새긴 상탑이 영광의 절정처럼 솟아있었다.

생일상에 마주앉은 리정주와 부인은 꿈만같은 이 사실앞에 굳어졌다.

문득 길림시절이 되살아나며 눈앞이 안개속처럼 뿌옇게 흐려졌다. 자신에게 호떡을 사주시고도 더주지 못해 못내 안타까와하시던 주석님! 그날의 호떡 몇개가 오늘은 장군님에 의하여 얼마나 희한한것으로 변저졌는가. 흥안의 시절부터 수령님의 각별한 인정속에서 살아오면서도 인생 말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한 자신에게 어쩌면 이다지도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단말인가. 수령님을 잃은 이 비통한 시각에 이런 은총을 받아안았으니 더욱 눈물겹지 않은가.

다치면 티끌듯한 걱정을 간신히 참고있는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송학도》가 정중히 전달되었다.

일군은 한마디한마디 무게를 달아보는듯한 신중한 어조로 《송학도》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리정주는 두손으로 받쳐든 《송학도》에서 머리를 들줄 몰랐다. 한쌍의 학이며 소나무며 그리고 이제로운 새벽노을을 더듬고 또 더듬었다. 늙음과 시름이 두텁게 갈랐았던 그 눈에 번쩍번쩍 광채가 켜지기 시작했다.

《송학도》, 《송학도》!

자기가 허탈의 심연속을 헤매는동안 그이께서는 얼마나 희망찬 환희를 안아올리시였는가. 이 늙은이의 생이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아름다와지기를 바라시는 그 숭고한 뜻과 사랑이 헤아려지자 별안간 가슴에서 쿵하는 울림이 일어났다. 그것은 《송학도》가 울리는 북소리였다.

둥둥... 온 심신을 뒤흔드는 북소리, 가슴에 웅크리고있던 걱정을 끝내 터치는 북소리.

리정주는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전신에 굽이치는 힘을 모아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는 지금 민족을 향해 이렇게 웨치고싶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송학도>가 안겨졌다 고말입니다.》

하고는 《송학도》를 머리위에 높이 쳐들었다.

목란관이 툭 터져나가는듯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것은 새벽노을을 향해 노도와 같이 내달리는 민족의 함성이었다.

리정주는 자기가 꼭 하고싶었던 중요한 말을 놓칠것만 같아 이 생각 저 생각 앞뒤가 맞지 않게 건너뛰면서 서둘러 말했다.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석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이제는 어떻게 평양을 밟겠는가고 생각했

였습니다. 허나 그것은 너무도 짧은 생각이였습니다.

주석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위에 새벽노을이 비끼고있지 않습니까.

**김정일**령도자분은 오늘의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저는 주석님께서 제실 때처럼 어버이품을 찾는 아이들의 심정으로 변함없이 평양을 오가며 마음껏 활보하겠습니다.》

그날밤 리정주의 이러한 결심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생활의 활력을 되찾은 리정주! 한생을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려는 그 마음이 무척 고맙고 반가우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세계를 뒤흔든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터졌다.

장군님께 보내는 클린톤의 담보서한이 《로동신문》에 공개되고 뒤이어 금룡2동굴과 청류다리2계단공사를 단 일년동안에 해제길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온 나라에 하달되었던것이다.

적들은 아연질색했다. 조선에서는 좌절이나 전쟁이 아니라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는 위대한 창조로 새로운 장을 펼치고있지 않는가.

세계의 통신들은 앞을 다투어 보도했다.

《조선의 심장은 멎지 않았다. 조선에는 태양의 후계자로 청송방고계시는 위대한 심장이 또 있다.》

이 격동적인 시각에 장군님께서서는 청류다리 건설현장에서 돌아오고계시었다.

해뜨기전 이른 아침이였다.

잠을 깬 평양은 온통 노을속에 잠겨 그림같은 황홀경을 펼쳐였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비단필을 펼쳐놓은것만 같은 노을속으로 달리였다.

차창밖에선 아침안개가 불길처럼 훑날리고 거리의 창문들도 일제히 노을빛을 내뿜고있었다. 모란봉도 대동강도 홍조가 어린 처녀의 얼굴처럼 붉게 단장되어 한껏 아름다와졌다.

위대하신 그이께 환희의 꽃보라를 뿌려주는 자연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아름다운 노을속에서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영상을 보고계시었다. 언제나 새벽노을을 맞으시며 수많은 현지도의 길을 오고가신 수령님이시였다. 정녕 노을속에서 보내신 한생이였다. 그래서 이 땅에 노을처럼 아름다운 거대한 《송학도》가 펼쳐지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기억하리라.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노을 비낀 새벽길을 자주 걸으시는지, 그 길에서 과연 무엇이 마련되는지...

오늘도 래일도 새벽노을은 언제나 비낀다.



## 주체사실주의문학창조의 불멸의 본보기

은종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가장 훌륭히 이바지하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을 건설하시고 이 땅 위에 주체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었다.

이 나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문학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완성하시고 주체문학건설의 믿음직한 대부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몸소 주체문학창조의 빛나는 본보기로 가장 귀중한 문예재부로 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는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비롯하여 **《대동강의 해맞이》**,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등 주체위업계승의 원대한 포부가 웅건한 시형상으로 노래된 작품들도 있고 **《축복의 노래》**와 **《우리 교실》**,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가》**를 비롯한 동심적정서속에 시대의 념원과 지향정신이 투철하게 구현된 작품들도 있으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구체적인 생활적바탕우에서 극적정서와 심오한 철학이 결합되어있는 가극가사의 정수로 되는 작품들도 있다. 또한 **《보천보의 해불》**, **《패전장군의 말로》** 등 귀중한 금작품들도 있다.

제재와 양상, 형태가 다양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모든 친필작품들에는 주체문학의 창조와 건설에 관한 그이의 의도와 구상이 뚜렷이 구현되어있으며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에예술성, 그 가치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따라 배우는것은 우리 모든 작가들의 가장 영예롭고 중대한 임무이며 우리 문학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 글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중심으로 하여 주체사실주의문학창조의 불멸의 본보기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친작들의 주체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비롯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친작들이 주체사실주의문학창조의 불멸의 본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체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은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

성이다. 문학작품의 주체사상적내용은 그 예술적 형식을 규정하며 작품의 전반적가치와 의의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 주체사실주의문학이다. 우리 문학, 주체문학의 성격과 가치는 바로 작품의 주체사상적내용이 주체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탐구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것으로 일관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문학창작의 총적인 방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형상화하는데 있다. 모든 작품의 주제는 다 이 총적방향으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문제들이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작하신 작품들은 레외없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대한 문제로 관통되어있으며 작품의 전반적인 주체사상적내용이 철저히 그에 맞게 꾸려져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수령의 위업이고 수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실천해나가는 전인민적위업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원천으로 하고 그 공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는데 주체사상적지향을 두게 된다.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투철하게 구현하는것은 주체문학의 본질적인 주체사상적특징을 이룬다. 바로 여기에 다같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면서도 주체사실주의문학이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내용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문학의 이 기본주체사상적특징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친필명작들에는 한결같이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이 가장 숭고한 경지에서 구현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장군님 인민의 수령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심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락원을 펼치실 아버지장군님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명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 매우 뜨겁고 절절하게 반영되어있다.

하늘가에 《포연이 서리면》 먼저 《준엄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엄한 영상을 우러르며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 그 기저에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이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우리 조선을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내이신 민족의 태양이시고 전쟁의 중화와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강철의 령장,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제를 쳐부시고 승리한 조국땅우에 행복한 인민의 락원을 펼치실 조선의 찬란한 미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은 곧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이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확고한 담보이라는 사상이 시가 전반에 줄기차게 관통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문학의 귀중한 본보기로서의 이 명작의 사상정서의 깊이가 있고 심오한 철학이 있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가》에도 그대로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무한한 충실성이 깊이있게 반영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그 대표적작품이다. 이 명작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갈 충성의 열정이 시구마다에 세차게 굽이 치고있다.

해썬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명작은 첫절부터 주체위업의 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한 위인의 거룩한 정신세계를 숭엄하게 펼쳐보인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인재육성의 중심기지로 세워주신 김일성종합대학이 자리잡고있는 룡남산, 룡남산마루에서 눈부지게 솟아지는 아침해살을 온몸에 받으면서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이 순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슴가득 안겨오는것은 수령님의 높은 뜻대로 가꾸어갈 내 나라, 삼천리조국강토 그자체였다.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떠메고나갈 무거운 책임감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탐구체득하여 내 조국 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일 원대한 포부로 가슴벅찬 숭엄한 체험세계가 그대로 펼쳐져있다.

명작은 다음 2절부분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뚫고 주체위업의 승리로 드팀없이 나아가갈 억센 지향과 철석같은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해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주체의 혁명위업은 사람들에게 대한 온갖 예측과 구축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인류사적위업으로서 그 실현과정에는 시련의 언덕도 겹겹이 놓여있고 온갖 원썩들의 단말마적인 도전도 있기 마련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주체위업수행의 장기적인 로정을 꿰뚫어보시고 이길에서 부닥칠 그 어떤 풍랑도 폭풍도 파감하게 헤치며 조선을 이끌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한길로만 억세게 나아가갈 철의 의지를 가다듬으시였다.

명작의 주체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부닥칠 그 어떤 풍랑도 폭풍도 과감하게 헤치며 조선을 이끌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한길로만 역세계 나아갈 철의 의지를 가다듬으시었다.

명작에는 주체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한자욱의 드림도 없이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온갖 원수들의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억척같이 나아갈 지향과 열정, 기상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명작의 3절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중국적으로 완성하며 그 세계사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크나큰 혁명적 포부가 고조된 시적열정속에 노래되어있다.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우리 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며 주체의 기치밑에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야말 강렬한 지향과 억센 의지, 양양된 열정이 팽배하게 넘쳐흐른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는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위대한 포부와 신념, 충성의 사상정서가 뜨겁게 구현되어있다.

명작에는 또한 주체의 조국, 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리려는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애국의 격정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그것은 명작의 제명에서 그리고 매개 절의 사상감정을 결속해주는 결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그 수행에 한생을 바쳐갈 철의 의지,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 이것이 명작에 관통된 기본사상정서이며 주체문학의 기념비, 본보기로서의 그 불멸의 가치를 규정짓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명작들이 주체사실주의문학창조의 불멸의 본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심오한 사상과 강한 정서적감화력을 주는 예술적형상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작품들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불멸의 혁명시가들은 한결같이 주체

의 진리를 주는 심오한 사상이 강렬한 정서로 채색되어있으며 풍만한 서정으로 뜨겁게 심금을 울려주는것이 특징적이다.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의 정을 절절하게 노래한 《나의 어머니》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은 물론 《조선아 너를 빛내리》와 같이 거창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웅건한 시적형상을 창조한 작품들도 레외없이 풍만한 서정으로 충만되어있는것이다.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한 구절인 이 시구에서 공산주의건설의 지향과 의지를 담은 사상이 얼마나 풍만한 정서를 타고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불멸의 고전적명작들에 넘치는 심금을 울려주는 이러한 서정은 생활에 대한 독특한 정서적파악과 사색의 비범성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우리는 이 시구를 대하면서 광대한 지구촌을 붉은 노을 일색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지구의 장엄한 광경, 그 한복판에 선 서정적주인공의 거인적모습을 표상하게 되며 풍만한 서정세계에 잠기게 된다. 이와 함께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주체의 기치밑에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고야말 억센 지향과 철의 의지를 깊이 감득하게 된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근에 련이어 발표하시는 고전적로작들을 교과서로 하여 사회주의재건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1960년대초의 이 시구와 비겨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대한 경탄으로 보다 강렬한 정서적충격을 받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시형상은 혁명의 먼 앞날에 대한 비범한 통찰력과 특출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만큼 명철하고 정서적인 파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기》가 주는 정서적충격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특출한 정서적감각에 기초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 마음을 참으로 절절하게 형상한데 있다.

하루는 스물네시간,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경우이나 변함이 없으며 시간의 흐름도 어느때나 일정한 법이다.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은 구체적인 사람과 정황에 따라 서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그 누구를 기다릴 때 시간은 몹시 더디게 가는것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간감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명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며 느끼지는 시간감각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저택에서 밤늦도록 들어오시지 않는 아버님을 기다리는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시간이 몹시도 빨리 흐르는것으로 느껴진다.

### 아버님 주무시는 방 책상위에 놓인 시계 무엇에 쫓기우는가 바늘은 급히도 달아나네

그러면 이러한 기다림시간에 대한 비상한 감각, 원망스럽고 지어 밍팡스러울 정도로 급히 달아나는것으로 느껴지는 시간감각의 기초에는 무엇이 놓여있는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쉬실 시간이 한초한초 줄어드는것을 두고 느끼는 안타까운 감정이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이 큰 참으로 가슴뜨거운 충효의 마음이다. 자신은 잊어버리고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생각하시는 그 끝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충효의 마음이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시간에 대한 비범한 감각을 낳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급히 달아나는 시계바늘에 대한 정서적파악으로 구현되고 시화되어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다.

### 안타까운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시계야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 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여주기를 바라는 절절한 토로에서 시의 정서는 절정에 이른다. 여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에 대한 전인민적 념원의 최고정화가 있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생활에 대한 심오하고 정서적인 파악과 비범한 사색은 이 시의 철학적과 정서적충만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이러한 특성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을 비롯한 다른 명작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 모란봉에 붉게 라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긴 무지개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작품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은 전선에서 겪는 참패를 만회하고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침략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우리의 후방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평양에는 인구 한사람당 하나씩으로 계산되는 40만개의 폭탄이 쏟아졌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평양시가지는 재더미와 굴뚝밖에 보이는것이 없었다. 모란봉의 소나무도 뿌리채 뽑혀지고 대동강도 줄폭탄에 바닥까지 뒤집혀졌다.

사람들은 폐허로 된 평양을 바라보면서 과연 다시 여기에 도시가 일떠설수 있을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러나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서는 조국이 살풍경한 폐허로가 아니라 그지없이 아름답고 정다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노을이 불타는 모란봉, 무지개 곱게 비긴 대동강,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 종달새 지저귀는 하늘 아침해 등실 솟는 바다와 별빛 반짝이는 하늘, 참으로 조국은 노을처럼 아름답고 봄날처럼 따사롭고 해빛처럼 밝고밝은 품으로 파악되고 감수된다.

이처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조국을 상처입은 땅, 폐허로서가 아니라 더없이 아름답고 정다운 품으로 감수하고 밝은 형상으로 노래할수 있는것은 조국의 품은 곧 《아버지장군님품》이라는 심오한 인식에 기초하여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명작은 조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다운 표상을 풍만한 정서속에 심화시켜나가면서 조국의 품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적진리를 감명깊은 시적형상으로 해명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멸의 시가작품들의 높은 예술성은 또한 심오하고 폭넓은 사상적내용을 간결하게 함축하고 정서깊게 퍼나가는 비범한 시어구사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무한히 폭넓고 깊은 의미를 한두마디의 시어나 간결한 시적표현속에 함축하여 담으면서도 시어들을 한결같이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어휘들로 구사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친필명작들의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폭넓은 사회정치적 내용을 포괄하는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인민들에게 친근한 생활적시어에 담으면서도 시어구사에서 정서성, 음악성을 보장해나가는것은 시적언어형상의 리상적인 경지이며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친필명작들이 주체적인 시가문학의 불멸의 본보기로 되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해쑹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등 어느 시구를 들어보아도 그러한 특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라는 시구만 좀더 분석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구는 평범하고 소박하며 생활적인 시어이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심오하고 폭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1950년대 후반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었을 때 그 나라의 일꾼은 그이께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네 나라의 큰 대학에 와서 공부하였으면 하는 청을 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청을 받으신 자리에서 우리 평양에도 훌륭한 대학이 있다고,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종합대학에 대한 크나큰 믿음,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이 어려있었으며 우리 인민들속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속에서 배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여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준비하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수령님의 구상, 수령님의 령도풍모를 그대로 체득하고 이어나가실 숭고한 결의가 넘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주체의 신념과 의지가 《이 땅에서》라는 하나의 시어에 함축

되어있는것이다.

《이 땅에서》라는 시어는 우에서 본바와 같은 심오하고 폭넓은 의미를 담고있으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풍기는 고유한 우리 말로, 아름다운 음향과 정서적 흐름새가 보장된 시적언어로 탐구되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뿐만아니라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로 시작된 《축복의 노래》, 그 어느 작품이나 다 생활적이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지고 음악성이 보장된 시어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모든 시가가 풍부한 서정속에서 심오한 철학을 밝혀주는 명작으로 되고있는것이다.

형상의 집중성, 간결하면서도 립체적인 구성조직, 순탄하게 흐르면서도 심장속깊이 파고드는 서정도 고전적명작들의 주요한 형상적특질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숭고한 경지에 이른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고있으며 그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하게 선 주체의 충신효자로 키우는 더없이 훌륭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주체위업실현으로 고무하는 강유력한 무기로,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대할 때마다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 사상리론의 거장, 예술의 영재로서의 그이의 위대성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혁명전사라는 크나큰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절감하곤 한다.

## 잊을수 없는 2월 16일

아. 웨. 뽀뜨렌꼬

세상이 다 아는 조선  
나도 그 나라 찾아보았네  
거기의 성스러운 고장  
백두산은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도 정다웠다네

풀 한포기 나무잎 하나도  
성스러운 땅 백두산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분  
거기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시였어라

정일봉상공에 별들이 빛나  
원수님의 탄신을 축하하며  
그분의 업적을 찬양하니  
내 알았다고 조선은 더 아름다워짐을

2월의 명절날 고향집 찾으니  
눈송이도 곱게 피어났어라  
흰눈내린 문앞에 꽃다발 놓아드려  
그분의 탄생일 축하하였어라

원수님 당신은 세계인민의 희망  
영웅이시고 령장이시며 스승이시여라  
조선은 행복의 길에서 빛나고  
그 길은 별빛으로 밝혀지고있어라

백두산의 별 더 밝게 빛나시라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에게 안녕을 주시고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시라!

(필자는 로씨야공민임)

# 그이의 탄생

김석주

하늘이 내인  
전설의 위인이시건만  
그이는  
신비로운 전설속에 탄생하신것이 아니다

흔히 명인들이 태어날 때  
옥피리소리 은은한속에  
오색채운이 뜨락에 서리고  
방안에 향기가 진동했다는  
그런 안온한 집에서 탄생하신것이

산발과 계곡마다에서  
항일대전의 총성 그칠줄 모르던곳  
뜨락에 포연이 흐르고  
방안에 화약내 떠돌던  
백두의 전장속 귀틀집에서  
그이는 군복에 감싸여 탄생하시였다

하늘이 마치  
전쟁의 신들의 축복과 옹위속에  
그이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듯  
섬멸전의 번개와 우뢰와 승리의 나팔소리...  
그이 치렬한 대전속에서 탄생하셨음이  
아무 까닭없음이 아니였더라

이 땅에 그이같은 장군이 있어야 했거니  
그이는 탄생의 그날에  
한평생  
투쟁의 폭풍을 헤쳐가실 운명을 지니시였다

하기에 군복처럼  
한평생 단긴옷을 입으시고  
백두의 길을 이어가실것을 결심하신 그이  
포연과 총성, 진군과 승리...  
그것은 반세기전 그날부터  
그이 몸에 배이고 습관된것

그이 수수한 솜옷을  
군용외투처럼 걸치시고  
최전연전호가를 걸으실 때  
그 옷자락에서 흐르는 백두의 기상  
그 손길 한번 들어 적진을 짚으면

원썩의 무리 기가 질려 너부러지리  
그 시선 한번 던지면  
전쟁의 쇠불이들이 엇가락처럼 휘여들리  
그이는 날마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 계신다

그러하다, 포연과 총성속에  
군복에 싸여 탄생하심이  
까닭없는것 아니더라  
그 백두산장군 이 땅에 계시기에  
원썩들이 이 나라 지경밖에서 맴돌면서도  
감히 접어들지 못하거니

그이는  
만약 원썩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이 땅에서 전쟁을 영영 없애버릴  
단 한번의 전쟁을 결심하신  
최고사령관!

조용하라  
소란스러운 제국주의세계여  
전쟁의 불을 지를 힘은 너에게 있을지 모르나  
전쟁을 끝장낼 힘은 그이께 있다

하늘이 아무런 까닭없이  
항일대전의 치렬한 결전장  
백두산에 그이를 내리심이 아니다  
**천출명장 김정일!**  
그이는 한평생 전쟁을 짓부시는 싸움을 위해  
전쟁속에서 탄생하셨다

## 시대와 민심

문상봉

격변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조선혁명은 오늘 남다른 긍지와 자랑을 안고 뜻깊은 새 아침을 맞이하였다.

정일봉의 눈부신 해돋이와 더불어 온 누리에 퍼지는 주체의 붉은 노을! 파란중첩의 20세기를 자주화의 광원으로 아로새긴 그 빛발은 새 세기의 지평선너머에도 신비로운 황홀경을 이루었다.

유서깊은 성지에 백두광명성이 솟아 어느덧 천다섯해! 경사로운 이 아침 인류의 마음들이 축원의 격파로 굽이쳐오는 여기 백두고향집 프락에서 보시라.

태고연한 밀림은 활짝 핀 서리꽃을 아지마다 소담히 받쳐들고 늑실늑실 경축의 대륜무를 펼쳐 보이고 소백수의 맑은 물은 정가롭게 돌돌 흐르며 잊지 못할 사연들을 노래로 엮는가싶다.

산천도 초목들도 2월의 봄명절을 최대의 경사로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의 가슴가슴 걱정과 환희로 터질듯 부풀어오름은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우리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도 모든 일이 잘되고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되어나갈것입니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은 수령의 위대성과 그 령도의 현명성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우리모두의 운명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일찌기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헤가르며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그날부터 우리 인민이 가장 큰 사랑과 기대를 담아 높이 받들어모신 회세의 위인이시다.

세상사람모두는 위인의 존엄과 기상을 안고 백두산마루에 높이 솟아 빛나는 정일봉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절세의 위인, 백두의 령장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광을 가슴깊이 느끼고있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지니시고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백두산장군 **김정일** 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시면서 **김정일** 동지는 백두산의 아들, 백두산의 장군이라고 높이 칭송하시였다.

언제인가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백두산을 볼 때마다 **김정일** 동지를 생각한다고 하시

며 **김정일** 동지는 백두산의 아들입니다. 백두산은 **김정일** 동지의 고향이며 그의 담을 키워준 요람입니다. **김정일** 동지의 사상이나 성격, 취미와 습관을 보아도 그는 신통히도 백두산을 닮았습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문무충효를 겸비한 인민의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님께서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가 주렁지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류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되어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는것은 정녕코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정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신문과 텔레비존을 통하여 전선길을 끊임없이 걷고 걸으시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보고 또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50년대에 미제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력사의 고장 판문점에 거연히 서시여 통일된 조국과 자주화된 세계를 그려보시던 강철의 령장 **김정일** 동지!

인민군초병들의 손과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최전연의 최전방전사들을 만나니 무척 반갑다고, 우리 함께 영원한 승리자로 살자고 필승의 신념과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안겨주시고 전체 인민에게 래일에 대한 신심과 철의 의지를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실로 그이의 기록하신 모습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사람들은 전선동부에서 서부에도, 북변에서 남쪽으로 강토를 주름잡고 세월을 앞당기시며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담보하고 번영을 마련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략과 담력에서 백두의 산발과 광야를 넘나드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신출귀몰의 전법으로 일체를 족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지략과 담력을 보았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최전선을

취임없이 누벼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서 우리는 백포자락을 휘날리시며 고난의 행군시기 혈로를 앞장에서 헤쳐가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근엄하신 영상을 그려본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며 믿음을 더욱 두터이 한다.

위대한 인간, 정의의 화신 **김정일**동지!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인민행렬차에 언제나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계시며 비범한 예지, 탁월한 령도력과 특이한 인간적향취로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위인상에 매혹되면서 장군님과 사상도 신념도 의리도 함께 나누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우리 인민은 가장 큰 기쁨만이 아니라 가장 큰 슬픔도 함께 겪었다.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하늘땅이 통채로 몸부림치던 비분의 나날 수령님을 목놓아 부르며 달려간 만수대언덕에서, 숭고한 도덕의리로 아버지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은 끊을수 없는 의리와 하늘같은 믿음으로 더욱 굳게 결합되었다.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을 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험전동차에 몸소 오르시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남녀로소 모두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전동차를 따라 달리고 또 달리는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께로 얹어질듯 달려오는 인민들의 모습과 그 눈빛들에 비친 한없는 존경과 믿음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후에 기회가 있을적마다 그날의 일을 뜨겁게 되새기시며 자신께서와 인민사이에는 0.001미리미터의 간격도 없다고 두고두고 말씀하신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과 우리 인민은 사상도 하나, 신념도 하나, 뜻도 마음도 하나인것이다.

오늘 우리가 걷는 혁명의 길은 순탄치 않다. 참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도 있고 먼 후날에 가서는 웃으며 추억하게 될 기막힌 사연도 있다.

오늘의 세상살이를 둘러보면 천태만상이다. 서풍도 불고 역풍도 불며 그 가변성도 시시각각이다. 제 하나의 리기와 부귀영화를 위해 환락의 길을 추구하는 타락한 풍조가 력사의 건전한 흐름속에 오수처럼 새여 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면서 고난과 시련을 헤쳐가고있

다.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과 참으로 좋은 우리 인민이 하늘같은 믿음으로 혼연을 이루고 일체를 이루어 력사의 대하를 정화시켜나가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조선의 참모습이 있고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랑이 있는것이다.

칠칠야밤이나 엄동설한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태양의 빛과 열이다.

암흑의 세상에서 살풍에 찢기며 고통 겪는 남녘인민들에게 있어서 항시 그리운것은 민족의 구세주,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 태양의 품이다.

《경향각지의 각계 민중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에 대한 숭배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내 눈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이남민중들이 **김정일**장군님을 숭배하고 그분의 정치하에서 살것을 원하고있다.

《빨리 통일이 되어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를 받아야 돼.》,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세계가 우러르는 만민의 태양이시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삽니다.>

가는곳마다에서, 만나서 물어보는 사람마다가 이런 자기의 심정을 숨김없이 터놓고있는것이 바로 그 립증이 아닌가.》

이것은 최근 남조선의 한 기자가 출판물에 실은 《경향에 넘치는 숭배심》이란 제목으로 된 취재기의 한구절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일컬어왔다. 백성들의 마음이자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이 말은 오늘에 와서도 무시할수 없는 진리를 시사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르며 자신들의 운명을 그이께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남녘겨레의 순결한 그 마음을 담아 남조선의 한 시인은 서사시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을 좋아합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열정을 터치였다.

...

우린 반했노라 사상을 넘어  
우린 반했노라 정치를 넘어  
서울사람도 부산사람도  
류랑인생도  
뜻있는 천하인생 다 반했노라  
진실은 감출수 없는 법  
미국 <**김정일**연구소>의 번민과 찬란  
위인을 내담하려다 반해버린 이야기  
...

사상으로 이기는 천재  
힘으로 이기는 장군  
덕으로 이기는 성인

이 셋을 합친 으뜸가는 위인 **김정일**  
3천리는 **김정일**세상이다  
천하는 사실상 **김정일**세상이다

아 그렇다  
장군은 존엄이었다  
사랑이었다  
도의였다  
몽침이었다  
힘이었다  
그래서 조국이였다 통일이었다  
그래서 번영이었다 미래였다

우리는 장군의 정치를 받을  
**김정일**나라의 통일을 그리며  
민심을 합쳐 찬가를 부르노라  
-우리는 **김정일**장군을 좋아합니다!

보는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그가 지식인이건 노동자, 농민이건, 종교인이건 할것없이 누구나가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인간품모를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살 통일의 날을 손꼽아기다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하늘을 바라보면 울적이던 마음이 순간에 사라지고 늙은 몸에도 젊음이 되살아난다고 한 청양군의 로인, 마을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정성껏 자래워 피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보여주면서 장군님품에 안겨살 통일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에 넘쳐 말한 전주의 원예사,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 사진을 자기들이 만드는 잡지에 모시는것을 최고의 영예와 보람으로 여긴다는 한 출판사의 사장, 동료들앞에서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영예로운 1세대가 되자!》는 경모의 구호를 웨친 대학생...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였던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는 평양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뜻깊은 말을 남기였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옵고 <완료형>의 통일을 보았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입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신념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이께서 계시여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이 튼튼히 담보된다는 신심을 가다듬는것은 남녘인민들속에서 피울수 없는 민심의 흐름으로 되였다.

이 세상에 지구를 깨뜨릴 힘은 있을수 있어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남녘겨레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꺾을 힘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숭배와 경모의 마음은 오늘 나라와 민족의 지경을 벗어나 세계와 인류적인 민심으로 되고있다.

20여년전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었다. 국제적으로 내노라 하는 정치의 원로급에 속하는 그는 우월감 또한 보통이 아니어서 상대하는 정객들은 눈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이였다.

그러던 그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옵고 첫순간에 반해버렸다.

《**김정일**동지는 젊은 지도자이지만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경탄할 정도로 높은 식견과 탁월한 분석력을 지니고계신다. 그이는 외교에서도 대단히 원숙하고 세련된 정치가이시며 인간적으로 특이한 매력을 지니고계시는 시대의 거장이다.》

지금은 이세상사람이 아닌 그 국가수반이 오래전에 실토한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뛰어난 실력과 위인품모는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해오신 그이의 수십년을 헤아리는 혁명활동력사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오래전부터 공인칭송되어왔다.

한편의 문문으로 세계철학계의 궤도를 바로잡아주시고 설계도면에 그으시는 하나의 선으로 건축의 대가들과 명류인사들을 머리숙이게 만드시며 하나의 명문장으로 세계언론계를 혼드시고 한편의 노래로 시대를 격동시키시는 천출위인!

작전구상과 사업설계의 웅대성, 조직력과 장악력의 치밀성, 전개력과 진취력의 비상함, 놀랄만한 구체성과 섬세성 등과 같은 우리 장군님의 비범무쌍한 실력은 주체사회주의를 굳건히 다지고 빛내여주는 거대한 원천으로 될뿐아니라 온 세계 자주화의 막강한 견인력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뛰어난 실력가형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에서 행성의 밝은 미래를 보고있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성스러운 기치가 어지럽혀지고 지본주의가 복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 《종말》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지어 비렬한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이 그릇된것이며 사회주의혁명을 한것부터가 잘못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류포시키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리념의 붕괴가 아니라 가짜 사회주의의 붕괴, 기회주의와 너절한 배신자들의 파산이였다.

거짓과 궤변은 일시적이고 정의와 진리는 영원하라. 낡은것이 아무리 새것으로 둔갑하고 거짓



이 진실의 외피를 쓴다해도 력사와 인민은 이미 준엄한 심판을 내리었다.

오늘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의 파국상을 보라, 민족분열과 력토분쟁, 동족간의 류혈과 사회의 타락, 살판치는 범죄와 범람하는 실업대군,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채무와 인민생활의 력락...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사회주의를 버리니 파멸과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는것이다.

불의에 양보할수 없는 정의감으로부터, 사회주의의 과학성에 대한 투철한 신념으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분연히 일떠서시여 시대의 역류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철의 론리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거대한 생활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배신자들에게 철추를 내리시였고 악몽에 시달리던 인류를 구원하시였다.

《지금도 나에게는 **김정일**동지의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웨방은 허용될수 없다> 등을 읽고 커다란 감동과 흥분에 휩싸여있던 로씨야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그들은 모두가 로작을 읽으며 사회현상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발전의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는 예리한 분석력과 심오한 사색, 문제해결의 독창성과 강철같은 론리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이 로씨야와 세계의 정제, 사회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다.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통하여 사회주의와 새 사회건설의 력사적교훈을 찾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다.

시대의 사명감으로 보나 위인의 품모로 보나 력사는 이미 **김정일**동지를 21세기를 이끌어갈 만민의 력도자로 추대하였다.》

로씨야의 저명한 사회활동가이며 문필가인 웨, 게, 톨스찌코브는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글에 담았다.

태양은 동쪽에서 솟아오르고 물은 제궂을 따라 흐르기마련이다.

만민의 위대한 력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런 존함과 그이께서 지니신 절대적인 권위로 하여 제국주의의 온갖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의 위상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더욱 커가고있으며 5대륙 그 어디에서나 자주성의 웨침,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재생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있다.

인류가 우러러 숭배하고 력사가 칭송하는 위대한 력도자, 걸출한 위인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는 불가항력적인 수호자여야 한다.

고금동서의 부피두터운 정치사, 민족의 흥망사들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자처한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진 위인은 얼마 없었다.

평온한 시기에는 《선정》과 《덕》을 입버릇처럼 외우다가도 국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생기면 나라와 백성들을 저버리고 몸을 사린 통치배들도 있었고 제국주의의 위협공갈에 겁을 먹고 하루 아침사이 선대수령과 자기 인민을 배반한 배신자, 원수의 품안으로 기여들어간 변절자들도 있었다.

어려운 때, 누가 누구를 하는 엄숙한 시기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의 최전선에 나서는 력도자의 담력과 헌신성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닌 위인에게서 발현되는 고결한 품모이다.

오늘 우리앞에 막아서는 시련은 보통의 시련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당하는 최악의 역경이다. 우리는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준엄한 시기 최전방초소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 혁명에 대한 불타는 사랑 그리고 래일을 위해 바치시는 무한한 헌신성을 뜨거운 걱정속에 절감하고있다.

력사의 준엄한 역풍을 맞받아 혁명의 최전연, 최전두에 나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은 우리 인민과 군대 그리고 세계 진보적인류의 비상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밤중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장군님께신 최전선의 하늘가를 바라보노라면 금시라도 달려가 그이의 천위병으로 수행하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억제할수 없습니다.

동지들! 나를 다시 초소에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칠순이 넘은 한 로병이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이다.

하나의 위대한 신념이 천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는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5천년래의 대국상을 당하고 조선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고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던 때, 우리의 원수들이 이 땅에서 마치 그 무슨 《변화》가 있을듯이 온갖 억측과 랑설을 내돌릴 때에 온 세상에 대고 퇴성처럼 울리신 우리 장군님의 이 위대한 신념!

바로 그 드물지 않는 신념을 사람들은 판문점 초소를 시찰하시고 최전연의 병사들과 만나시는 장군님의 여유작작하신 모습에서 또한번 다시 체감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항일전쟁에서도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승리하신 백두산의 장군 **김일성**대원수님의 모습 그대로이시다. 반제대결에서 조선은 벌써 이겼다. 강철의 력장을 모신 조선을 꺾꾸

리뜨릴 힘은 천하에 없다.》

지난해 말 최전연부대를 련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많은 나라 텔레비존망들에 일제히 보도되는 가운데 터져나온 이 경탄과 환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하무적의 대장군 **김정일**동지!

위대한 그이의 존함은 우리 시대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승리의 상징이며 그이의 거룩하신 위인상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승리상, **김일성**민족의 승리상, 자주위업의 승리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고 우리 혁명의 전도는 낙관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우리 군대는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위력떨치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한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우리가 이 행성에서 남먼저 공산주의 봄날을 맞이할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모든 수단과 힘을 다 합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하려고 오만무례하게 날뛰고있지만 세상만사는 우리 장군님의 결심과 의지대로 흐르고 평정되고있으며 온갖 원수들의 운명은 우리 장군님의 손에 잡혀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백두의 준령을 넘나들던 역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방불케 하는 장엄한 진군이 이 땅에 펼쳐졌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은 천출위인을 모시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위대하며 우리의 단결이 위대하여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맞받아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행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의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는 마당에서 이겨울은 우리 대오를 굶은 채로 쳐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었다.

난관과 시련이라는 준엄한 걸림앞에서 충신은 더욱 인간으로 완성되고 반역자는 배반하며 영웅은 싸우고 비겁분자는 붉은기를 버린다.

진정한 일심단결,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혼연일체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그렇지 못한 단결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만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은 우리 당과 인민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시대와 력사앞에 더욱 뚜렷이, 남김없이 확증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붉은기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가는 지금 우리의 일심단결의 대오, 혼연일체의 대오에 차넘치는 한결같은 결심과 각오, 가장 감동적인 영웅사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

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자는 심장의 웨침이며 이 구호의 세찬 맥박으로 숨쉬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지난해 11월말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본의아니게 대오에서 떨어져 적측지역에 억류되였던 정광선군인이 적들의 갖은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일당백기상을 과시하며 용감하게 맞받아 싸워 위대한 장군님의 품, 사회주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는 친지들과 뜨겁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전사이기에 저의 적구에서도 든든한 배심과 담력을 가지고 원수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수 있었습니다.

...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충신으로 살고 죽어도 위대한 장군님의 충신으로 죽으려는 저의 신념과 의리는 영원히 변함없을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광선상등병 한사람의 마음이었는가. 그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면 용기백배해지고 배심이 든든해지는 우리 인민이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하늘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인류의 미래이시다.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라!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면 조국과 사회주의를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드는 여기에 위대한 혼연일체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난관은 일시적이며 역경은 순경으로 전환되기마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환희넘친 불철대반격전으로, 조국광복의 대사변으로 이끄신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의 대사변과 인류의 자주위업완성을 반드시 앞당겨 오실것이다.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 대통운이 튼 력사적인 2월 16일! 유서깊은 성지에 백두광명성이 솟아 어느덧 선다섯해!

경사로운 이 아침 인류의 마음들이 축원의 격파로 굽이쳐오는 여기 백두고향집 프락에 서보시라.

정일봉의 눈부신 해돋이와 더불어 온 누리에 퍼져가는 주체의 붉은 노을! 파란중첩의 20세기를 자주화의 광원으로 아로새긴 그 빛발은 새 세기의 지평선너머에도 신비론 황홀경을 이루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절세의 위인, 자주 태양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것이다.

축하시

## 장군의 눈보라

-위대한 김정일 장군의 55성상에 드림-

김만영

2월의 이 아침  
내 붓은 들었으나  
생각은 깊어지는구나  
그이께 향한 인민의 마음  
그 한줄기라도 담을수 있을런지  
이 땅에 굽이치는 그 소원의 한끝에  
내 붓이 가닿을수 있을런지

그리워지는 마음  
뵈우고싶은 마음  
이 아침엔 왜 이다지도  
그이 영상이 그리도 간절히 떠오르며  
하염없는 생각이  
이 마음을 붙잡는것이나

그이 걸어오신  
불멸의 55성상  
쌍으신 그 위업  
이 세기의 하늘가  
반만년 민족사에  
력사의 거봉으로 솟아 빛나거니

천만자루의 붓으로도 다 이야기할수 없는  
그 거봉앞에  
한자루의 붓을 들고 신 이 마음  
그 위업을 다 노래할수 있는  
그런 시형식을 찾을길 없어

인민이여 조국이여  
그대 가슴속에 넘치는 진정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진리에  
이 심장 뚫이며  
오직 한분 장군님만을 위해서  
세상에 아직 있어본적 없는 축하시를 쓰노라  
오직 한분 장군님만이 받을수 있는 축하시를  
내 삼가 드리노라

### 3대장군과 눈보라

사람들이여  
나는 지금  
만경대언덕길에 서있노라  
불밝은 서재에서 이 시를 쓸수도 있으련만  
이 가슴속에 눈보라가 울고  
하얀 원고지위에 눈보라가 일어  
내 달려왔노라

빛나는 55성상  
그 첫자욱을 더듬어도 눈보라  
멀고먼 천만리길  
그 굽이굽이를 더듬어도 눈보라  
이해의 첫 아침을 더듬어도 눈보라 눈보라

그리운 그 영상  
눈보라속에 떠오르고  
듣고싶은 그 음성도  
눈보라속에 들려와  
내 여기서 2월의 아침을 맞이하나니

저기 대동강 하얀 은반우에  
억만가닥 해살은 어리광치고  
여기 서리꽃을 피워안은  
만경봉 청솔아래로는  
웃음핀 사람들의 물결이 흘러라

그 어디를 보아도  
2월의 봄  
조선의 첫 봄은 흐르는데  
그 어인 일이나  
이 가슴속에 또다시 세차게 불어치는  
만경대의 눈보라

오, 눈보라 눈보라  
1월도 정월초하루  
만경봉의 술술에서 터져올라  
고향집 사립문을 흔들고  
언덕을 넘어넘어 줄달음치는 눈보라  
만리창공에 솟구치고 땅위에 휘몰아치며  
회고흰 눈가루를 뿌려  
은백의 세계를 가득채우는 눈보라여

너 누구를 맞이했느냐  
너 누구를 맞이했기에  
진정알길 없는 사연을  
뒤설레며 웨치느냐

폭풍치는 눈보라에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혁명의 고향 만경대  
력사의 그 길위에  
거연히 서계시는 김정일장군!



그이께서 휘몰아오신 백두의 눈보라인가  
와와 타래치며 내닫는 눈보라  
그 눈보라에 호탕한 웃음을 실으시며  
이 땅의 행운을 실으시며  
장군은 1월을 호흡하신다  
하많은 사연이 깃든 그 길우에서  
장군은 세계를 호흡하신다

도란에 빠져 신음하는  
이 조선,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  
혁명의 맹세를 심장속 깊이깊이  
짚신발 오리오리에 감으시고  
1월의 눈보라속을 힘차게 헤쳐가신  
수령님의 거룩한 그 자욱

대대로 애국의 넋을  
저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새겨놓고  
양춘을 불리  
광복의 봄을 불리  
1월의 눈보라속을 헤치며  
만경대의 이 길을  
조선의 새벽길로 쉬임없이 이어간  
혁명일가분들의 그 모습

그 자욱  
그 모습을  
다 더듬으시고 다 안으시며  
눈보라 날리는 대공을 바라보실제  
섬광을 내뿜는 장군의 그 안광  
차디찬 대기를 더웁히는 장군의 그 숨결  
오, 조선의 숨결이여

눈보라도  
이 땅의 눈보라는 장군과 그리도 잘 어울려  
장군님과 눈보라는  
천하전설로 맺어진 인연  
내 눈앞엔 어려오는가  
55년전 못잊을 그날이

정일봉의 해돋이  
장엄히 펼쳐지던 그날에  
오, 그날엔  
하늘땅에 눈보라가 터졌다  
백두의 천만성악에 눈보라가 터졌다

청룡이 눈보라를 타고 땅에 내리는듯  
백두산호랑이 눈보라를 차며 하늘로 오르는듯  
천지가 울고  
천년밀림이 설레던 그날 그 새벽  
아, 절세의 애국자

항일의 청년장군 김대장  
백두광야에 백마를 달린다  
그뒤를 조선의 빨찌산들이 따른다

창공에 눈꽃이 날렸다  
하늘도 빙빙 돌았다  
아름드리나무들이 춤추고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리는  
불멸의 구호들이 새겨졌다

광명성 만세를 부르며  
백두설령에 더운 눈물을 쏟으며  
서로 부둥켜안고  
눈우에 덩굴던 이 나라 빨찌산들

백두밀영고향집을 감돌아  
천라만리로 내닫던 눈보라  
그 눈보라를 이끌고  
정일봉마루에 치달아오르신 김대장  
백포자락을 대공에 날리시며  
천리산발을 흔드시며  
환희로 터치시는 그 음성이여!

-조선에 대통령운이 났소!-

그 메아리에 천리수해가 파도쳐오고  
압록강, 두만강 두 강물이  
일시에 격랑치며  
민족의 가슴에 광광 사품쳐 흘러내렸다  
그날은  
오, 그날은  
1942년 2월 16일이였다!

광명성의 빛발이  
천지의 호반우에 채운으로 서리고  
천야만야에 내달리던 눈보라도  
아름드리나무들에 눈꽃을 피워  
축복의 설경을 만리광야에 펼쳤나니

오, 눈보라 눈보라  
태어나 처음으로 호흡하신것도  
봄날의 향기가 아니라 눈보라  
태어나 처음으로 입으신 옷도  
색고운 옷이 아니라 줄여서 지은 빨찌산군복  
태어나 첫자욱도 푸른 잔디가 아니라  
눈보라우에 찍으신 장군

생각은 뜨겁구나  
아버님은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어머님은 빨찌산의 경위장군  
반만년이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딸!  
아, 위대한 장군의 어머니!

빨찌산의 가정에서  
빨찌산의 혈통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빨찌산의 우리 장군

얼마나 장쾌했던가  
얼마나 기세찼던가  
빨찌산 3대장군이 타고 달리는  
백두의 준마들을 따라  
하늘중천에 눈보라가 일고  
3대장군의 총성에 천만산악이 뒤흔들렸거니

눈보라속에 우등불을 피우고  
생눈을 녹여 마시며  
백두산 일가가 풍찬로숙한  
눈보라치는 백두광야는  
이 세상에 없는  
3대장군의 집이었다!

그 집에서 터져나온 눈보라는  
민족의 운명을 안고  
3대장군이 호흡하는 대기였고 공기였다  
3대장군의 심장에서 분출하는  
혁명의 숨결, 투쟁의 기상이었다

그집 그 뜨락에서  
백두산악을 징검돌처럼 딛고 넘나드시며  
천하슬기, 천하용맹을 한몸에 안으신 그이  
그이는 혁명을 시작해도  
크게 시작하신분  
담력도 백두의 담력  
기상도 빨찌산의 기상  
배짱도 장군의 배짱  
천품도 영웅남아의 천품

떠오르누나  
포성이 들려오는 최고사령부  
혁명의 어제와 오늘과 먼먼 미래를 두고  
그리도 생각이 깊으시던 우리 수령님  
조국의 운명이 실려있는 그 작전대우에  
한자루의 권총을 올려놓으시었다  
열한살 그 어리신 장군님께 주신것  
그것은 시계가 아니었다  
혁명의 천만무계를 엮은 권총이었다

그 권총을 받아안으시고  
승리의 화살표가 그어지는 작전대결에서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을 익히셨고  
수령님의 강철의 그 신념  
천리혜안의 그 예지를 새겨안았나니

전선으로 나가는 팅크에 오르시여

무적의 평음소리를 심장의 박동에 실었고  
공화국기 날리며 달리는 함대  
활주로에서 출격하는 비행기에 오르시여  
제해권과 제공권의 지락을  
한손에 거머쥔 그이

하기에 어버이수령님  
후날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가  
지금 **김정일**동지가 지닌 무적강군을 통솔하고  
천하대적을 쥐라펴락하는 최고사령관의 기질은  
전화의 그날에 벌써 다 지니셨다고...

우리의 생각은 뜨겁구나  
1948년 10월 14일  
제1중앙군관학교 2기졸업식  
한장의 사진앞에서도  
이 나라의 무력을 건설하고  
빈터우에서 이 조선을 일떠세운  
3대장군의 만고풍상이 떠올라  
가슴은 뜨겁구나

세상천지 어디에 내세워도  
당할자 없이 끝끝한  
우리 군관대오를 보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우리 수령님은 환히 웃으시고  
어머님은 항일대전에서  
먼저 간 동지들 생각에  
머리를 숙이고 우시고  
우리 장군님은 이 조선을 이끌어갈  
크나큰 뜻을 새기시였거니

아,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고  
어머님의 념원을 꽃피우며  
언제나 혁명의 길  
폭풍치는 눈보라속에 계신  
장군님의 55성상!

수령님과 함께  
빛과 빛을 합치며  
세기와 세기를 밝히고  
수령님과 함께 열과 열을 합치며  
실력으로 우리 혁명을 곧바로 이끄시여  
이 땅에 승리와 승리의 년대들을 세우신분

그이의 크나큰 심장속에는  
순간도 잦지 않고  
순간도 꺼질줄 모르며  
활활 타오르는 혁명의 불이 있나니

그이는 그 불을 드시고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없애려  
종파놈들이 일구는 검은 구름을 태워버리며  
백두의 행군길을 걸어  
백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라

그 문을 열어  
혁명의 명맥을 이어놓으시고  
그 문안에  
천만 인민들을 들여세워  
혁명의 만년재보를 안겨주시었어라

그이는 그 불로  
심장과 심장을 더웁혀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을 완성하신분

그이는 그 불로  
이 땅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아름다운 그 화원을 펼치시고  
강철의 당  
강철의 혁명무력을 버려주시었어라

그 불을 안으셨기에  
한생을 그렇게 불같이 사시였던가  
그 어느 하루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새벽 6시까지 집무시간으로 정하시고  
새벽에서 새벽으로 이어가시며 일하시는분  
늘 잠이 그리워  
잠 한번 실컷 자보는것이  
소원이라 하시는데

우리 수령님 생전에  
새벽잠이 없는것은  
빨찌산때부터 생김 습관이라 하시더니  
우리 장군님은 일찍부터 수령님을 받드시느라  
밤에 자지 않는 습관이 생기셨거니

흐르는 한초한초  
흐르는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로 사시며  
혁명앞에 한몸을 다 내대신 그이

그래서 우리 수령님  
사람의 몸이 쇠로 만든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니  
어떻게 견디어내겠는가고 하시며  
장군님의 건강을 두고  
마음 못놓으시지 않았던가

너무 피곤하여 눈에 피가 지면  
수령님께 걱정을 끼친다고  
쓰지조차 않던 색안경을 끼고

수령님앞에 나서시더니  
갈린 음성을 들으시면  
수령님께서 심려하신다고  
전화기조차 들기 삼가하시더니

인민이여 조국이여  
생각하기조차 가슴아프구나  
이 사연  
전하기조차 마음이 찌리는구나

몇해전 그 어느날  
그 나날은 왜서인지  
해도 달도 빛을 잃었다  
구름도 무겁게 떠돌고  
산천에도 그들이 비껴있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도 정력에 넘쳐 일하시던 장군님  
무거운 병을 안으시고  
병상에 몸져누우신것을...

놀라시여  
너무도 놀라시여  
하많은 국사를 미루어놓으신채  
다급히 달려오신 우리 수령님

수척해지신 장군님앞에서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그이의 손을 쥐시고  
오래도록 놓으실줄 모르시던  
수령님의 그 심중

조선혁명은 이리도 간고했던가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그리도 불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자신의 건강을 너무도 돌보지 않아  
위대한 령도자가 앓아누운 이 아픔  
달래일길 없어 달래일길 없어  
하루에도 그 몇번 찾아오신 수령님

수령님의 그 마음  
뜨겁게 헤아리시고  
뜨겁게 받아안으신 그이  
자신의 병보다  
수령님의 그 괴로움을 더 아파하시며  
우리 장군님 병을 털고 일어났을 때

두분의 위대한 혁명가  
두분의 위대한 령도자  
두분의 위대한 수령이  
력사의 포옹을 하셨다

우리 수령님 한생에  
이렇게 기뻐하신적 있었던가  
눈굽을 적시며 눈굽을 적시며  
걱정에 넘쳐 하시던 그 말씀

-조선이 일어났소!  
조선민족이 살아났소!-

아, 하늘땅 공간에 해빛이 차넘쳤다  
이 나라 산천이 다시 밝아졌다  
반만년 세월이 소리치며 일어서고  
천만년 미래가 달려와 안기었다

그이 한분께  
민족은 운명을 맡겼더라  
시대와 력사는 사회주의를 맡겼더라  
붉은기 날리는 혁명의 미래를 맡겼더라

정녕 그이 탄생하신 2월 16일  
이날은 이날은  
조국의 하늘가에  
민족의 머리우에  
이 행성우에  
두번째 해가 뜬 운명의 날!

이날이 없었다면  
백두의 2월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저 푸른 하늘이 없으리  
안겨살 조국도 없으리  
우리에게 오늘도 래일도 없으리

피바다 만리 불마다 만리를 넘고  
눈보라 천만리를 헤치며  
이 세상 만고의 고생을 다 겪어오신  
우리의 3대장군

그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이 계시기에  
영원한 **김일성**민족이 있고  
이 나라의 영광에 찬 력사가 있노라

인사를 드리노라  
눈보라속에 한평생을 세운  
2월의 주인이시여  
축하를 드리노라  
우리의 운명이시여

반만년 민족사에  
무궁한 이 조선에  
끝없이 굽이치는 한없는 감사  
만경대의 눈보라를 안고  
인사를 드리노라

축하를 드리노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여

## 봄날과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만경대의 눈보라  
그이의 숨결과 더불어  
쉬임없이 내닫는 눈보라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 눈보라  
지난 온 한해  
장군님 걸으신 연연 2만 5천여리  
눈내리는 그 한끝에서  
다시 시작된 만경대의 눈보라

오늘도 이 마음속에 벗어나있는 그 0시  
지난해를 보내고 올해가 시작되던 그 0시  
우리 장군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수령님앞에 서계시었다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눈보라를 헤쳐  
고난의 행군길을 승리로 결속할 결심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말씀드리시는 우리 장군님

장군님은 들으시었다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지금 가는 그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고  
힘있게 고무해주시는  
수령님의 그 음성 그 말씀

그 음성 그 말씀을  
심장속깊이에 다시금 간직하시며  
이제 가야 할 그 먼길로 떠밀어주시는  
수령님의 정다운 그 손길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시며  
금수산기념궁전계단을 내려  
새해의 첫 자옥을  
눈내리는 만경대로 이어가시었나니

인민에게는 꽃피고 웃음피는  
가장 따뜻한 봄날을 주시며  
자신은 하늘땅이 얼어붙는  
가장 엄혹한 눈보라를 헤치시는 그이  
백두산을 내린지 반세기도 넘었으나  
오늘도 가슴속에 백두산을 안고  
그날의 설한풍을 헤치시는 장군님

눈보라여, 너는 알리라  
수령님의 배웅을 받으며 걸으시는  
장군님의 심장

무엇을 위해 그리도 세차게 고동쳤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장군님의 불같은 한평생이  
눈보라속에 흘렀는지

혁명의 첫걸음  
인민을 위한 길에 찍으시고  
그 길에 비가 오나 바람부나  
걸고 또 걸어오신  
장군님의 그 천만리

더듬어보시라  
긴긴 55성장  
그 어느 해와 달  
그 어느 년대에도  
자신을 위한 걸음은  
단 한자육도 없나니

일요일조차  
장군님 맞으시는 일요일은  
인민을 위해 일하시는 로동일  
2월의 명절날조차  
장군님은 일하시고 인민은 즐기니  
정녕 2월의 명절은 장군님의 명절인데  
늘 인민만이 쇠는 명절로 되지 않았던가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그때에는 알기나 했던가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담아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정하는 그 정령에  
우리 수령님 기쁘시여 손수 수표하신 그 일을

히나  
나라가 생겨  
제도가 생겨  
그모든 법과 정책이 다 집행되었건만  
이 정령만은 발표조차 되지 못했거니

나는 백두산시절부터 생일을 모른다고  
수령님의 전사가 무슨 생일인가고  
정령을 국가문헌고속에 물어두신  
위대한 인간이여

그래서  
**김정일**동지 생일을 더 쇠주고싶다고  
**김정일**동지 탄생일을  
한번 크게 쇠주지 못한것이  
늘 가슴에 걸린다고  
생전에 자주 말씀하시더니  
혁명과 건설

이 나라의 크고작은 그 모든 일에  
다 마음을 놓으셨건만  
가시면서도 가시면서도  
그 아쉬움 그 아픔만은  
그대로 가슴에 품으신채  
우리결을 떠나신 아버지수령님!

그 사연조차  
수령님 떠나가신 껍 후에야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알고  
세상이 목메여 울지 않았던가

그때문에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장군님 탄생 신다섯돛을 맞은 우리 마음  
더더욱 그리움에 젖고  
수령님 그 마음까지 합쳐  
장군님을 더 잘 모시고싶은  
오직 그 한생각에 뜨거운 2월이여

정녕 그이는 태어나시여도  
수령님 아끼시는  
그 인민을 위해 태어나신분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온 심장을 불태워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사시는분  
그래서 우리 장군님은 추억도 많으신분

그이에게 꿈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과 함께 있는 꿈  
우리 인민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고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 꽃피워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는 꿈

사람들은 안다 해도 다는 모르리라  
우리에게 차례지는 그 하루하루  
창문에 비쳐드는 해빛의 그 한가닥한가닥  
단란한 가정이 모여있는  
보통날의 즐거운 그 저녁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날은 동지절달 그 어느날이었던가  
눈은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인민생활을 푸시려  
무릎치는 솟는길  
미끄러운 언덕길을 걷고 또 걸으신  
우리 장군님

어디선가 멀리에서  
얼음장이 갈라터지는 소리  
가까운 숲속에서  
추위에 떠는 나무들의 설레임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는듯  
못들으시는듯  
마을 먼 길녘에 차를 세우시고  
우리 장군님 무엇을 하시였던가  
온 하루 한지에서 언 발을  
한소랭이의 찬물에 잠그어 녹이시며  
차창너머로  
이제 가야 할 길을 바라보셨나니

그렇게 언발을 녹이시고는  
물도 채 마르기전  
또다시 눈길을 헤쳐가시는 그이를  
별들도 흐느끼며 따라섰으니  
우리 그 사연을 알고서 더운밥들고  
아늑한 잠자리에 들었던가

그렇게 차거워진 그이의 손을 잡고  
가슴뭉클 젖어 들며  
두손모아 녹여드리고싶던  
그 어느 마을의 녀인도  
그 사연을 다는 몰랐거니

장군님 잘 모시라고  
수령님 생전에 그렇게 절실히 당부하시고  
가시면서도 그 소원 안고 가셨는데  
그리도 건강을 돌보시지 않으니  
아버이 장군님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는 어떻게 수령님을 뵈온단말입니까

이런 때는 이런 때는  
달리던 나의 붓도 눈물속에 멎어서고  
글줄이 보이지 않는 나의 눈앞엔  
인민을 위해 견고걸으시는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만이 가득차거니

우리 수령님처럼  
눈물이 많으신분  
어쩌면 그이의 심중엔 그리도 사랑이 뜨겁고  
나누어주고싶으신 인정이  
그리도 많으신것인가

그이가 혁명을 령도해온 55성상  
그 어느 한시라도  
《제왕》으로  
《통치자》로  
인민의 머리에 군림해있었다면  
나는 이 시를 한줄도 쓰지 못하리

허나 나는 그이를 잘 아노라  
그이는 령도자이기전에  
인민의 복무자

언제나 인민과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시며  
인민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지 못하시는분

그런분이시여라  
그런분이시여라  
인민생활을 두고 늘 마음쓰시는분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자신의 좌우명으로 인민만세를 부르시는분

하기에 그이 펼쳐가시는  
정치의 하늘아래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더라  
인민이 세계의 주인이더라  
인민이 력사의 주인이더라

그 인민을 지키시려  
그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시려  
그이는 지난해에도 365일  
비내리고 눈보라치는  
전선길에 계시었나니

그 길우에서  
야전식사를 하시고  
때로 찬 죽을 드시며  
눈내리는 351고지와 대덕산에 오르시고  
야전군용차에서 쪽잠에 드시며  
넘으신 산발은 그 얼마  
건드신 강하는 그 얼마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최북단의 이름없는 산고지로부터  
동서해안을 넘어 섬초소까지  
종횡무진 원썬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며  
이 나라 고지마다를  
백두의 줄기줄기로 이어놓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최전연의 야전지휘소 참호우에  
작전도를 펼쳐놓으시고  
적진을 발아래 굽어보실 때  
강철의 령장 그이의 안광에서는  
불이 일었다  
불의에 무자비하신 백두령장의 노호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세계는 보았어라  
이 나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원썬들이 지구의 그 어디  
땅속에 있건 물속에 있건 하늘에 있건

다 찾아내고 다 끌어내어 다 짓밟개버릴  
백두산장군의 담대한 결심  
싸운다면 싸우는것이고  
이긴다면 반드시 이기는  
그이의 타격에 한계가 없음을

세계는 보았어라  
조국의 운명을 안고  
사생결단하고 단신으로 나서신  
강철의 그 의지를  
제국주의자들과 결판을 내교야말 그 대결장에서  
오직 공격, 공격으로만 나아가는  
천하무적장군의 그 배짱을

허나 세계는 몰랐어라  
이 나라 초소들  
이 나라 병사들  
다 찾아주시고 다 만나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원썬들의 군화소리 울리는  
판문점에까지 나오실줄은

우리의 군대를 이끌어  
혁명의 군풍, 강철의 군풍을 창조하시고  
그 군풍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시며  
그 군풍으로 최후승리를 마련해가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휘날리라 군기들이여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군대는 곧 당  
군대는 곧 인민  
군대는 곧 조국  
군대는 군대는  
붉은기 날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휘날리라 나뭇기라  
최고사령관기따라  
최성기를 맞이한 혁명무력의 영광을  
만천하에 펼치라

세상에 군사장군은 많았어도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하늘높이 받아들여온 인덕의 장군은 없었노  
라  
이런 천하장군이 령도하는 혁명은  
패할줄 모르노라  
이런 천하제일명장이 이끄는 인민은  
백전백승하노라

하여 이 아침엔  
그이 헤쳐오신

영광의 55성상우에  
눈보라로 꽃보라로 날리며  
다함없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나니

날리라 눈보라여  
눈보라속에 흘러온 그 55성상은  
위대한 수령을 받아들여온 55성상!  
인민을 받아들여온 55성상!  
인민군대를 무적강군으로 키워온 55성상!  
통일의 성업을 위한 55성상!  
사회주의의 승리를 펼쳐온  
최고사령관의 55성상!

인사를 받으시라  
축하를 받으시라  
인민은 영광을 드리노라  
조국은 감사를 드리노라  
이 시인도 소박한 축하시를 드리노라

허나 이것은  
그이 탄생일에 드리는  
관례의 인사가 아니여라  
탄생일을 맞으시는 그이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한가락의 노래는 더욱 아니여라

이것은 그이 한분만을 위해  
결사옹위정신이 체질화되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목숨화된  
우리 운명의 격렬한 웨침

온 나라 군대와 온 나라 인민이  
수령의 결사대  
장군의 결사대  
로동당의 결사대가 된  
영원한 신념의 선언  
붉은기의 이름으로  
최후승리의 이름으로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혁명의 경례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이시여  
우리의 이 인사는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받을수 있고  
당신만이 받아야 할 력사의 인사  
당신의 55성상에만 드리는  
우리 민족의 축원의 인사

우리 운명의 유일한 수호자  
우리 혁명의 유일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의 환희  
조선의 행복

력사의 행운을  
흐르는 천만년 세월우에 실으며  
오늘도 눈보라가 날린다

만경대에서 시작된  
1월의 눈보라를 휩싸안고  
백두의 성악에  
2월의 눈보라가 터졌다

눈보라 눈보라  
정일봉의 눈보라  
만경봉의 화창한 봄을  
이 세상 천지에 뿌리며  
장군님 휘몰아가시는 혁명의 눈보라

55년전 그 기슭  
백두밀영고향집을 꽃보라인양 감싸안던  
우리 민족 대통운의 눈보라  
세월을 넘고넘어 끝없이 날린다

우리 장군님 혁명의 진두에서

붉은기를 누리에 휘날려가시는 눈보라  
이 땅에 부흥을 불러오며  
조국청사에 장엄한 새 장을 펼치는  
행운의 눈보라  
환희의 눈보라  
승리의 눈보라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55성상을 걸어왔듯이  
5백50년, 5천5백년  
세기와 세기를 넘어  
장군님만 따라갈 주체의 행군길우에  
눈보라가 날린다

아, 눈보라 눈보라  
지구의 한복판에서 솟구쳐  
온 세상을 가득채우는  
만경대의 눈보라  
정일봉의 눈보라  
조선의 눈보라  
**김정일**장군의 눈보라여!

## 가사

# 평양의 아침노을

김일규

고운 꿈이 피어나는 창가마다에  
새 기쁨을 안고오는 평양의 아침  
인민위해 지새우신 우리의 장군님  
사색의 한끝에서 피운 노을아

창조의 숨결높은 이 강산우에  
새 희망을 안고오는 평양의 아침

인민위해 바치시는 우리의 장군님  
그 열정이 피워올린 아침노을아

흘러가는 세월우에 바람세차도  
맑은 하늘 펼쳐주는 평양의 아침  
첫 새벽을 맞으시는 우리의 장군님  
그 사랑이 안고오는 아침노을아

## 설날의 축복

조수희

### 1

1995년의 설날아침.

휘뭉쳐 밝아오는 수도의 새벽 어스름속에 살림 집창문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넓은 거리 좌우에 보조병처럼 서있던 가로등이 점차 빛을 잃자 가로수들이 또렷하게 자기의 자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름이라면 싱싱하게 푸른 잎사귀를 펼쳤겠는데 지금은 하얀 서리꽃들을 소담하게 피워올리고있었다. 규모있게 서있는 가로수들로 하여 도시의 풍치는 한결 승엄하였다.

회색 솜외투를 입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수 운전대를 잡으시고 시내의 거리를 누벼가시었다. 중구역의 창광거리와 승리거리, 동평양의 청년거리와 통일거리를 거쳐 천리마거리에 들어서시었다. 처음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떠나실 때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간혹 보이군했는데 지금은 어디라없이 눈에 띄이신다. 동성교다리우에 들어서실때에는 다섯명씩이나 단번에 나타났다. 울고있는 처녀를 위로하는 젊은 남자의 뒤로 좀 동안을 떠서 40대의 부부가 붉은넥타이를 맨 딸의 손목을 잡고 걸어간다. 허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웃음이 없다. 어린 딸도 머리를 수긋한채 말이 없고 아버지도 명상에 잠긴채 저멀리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나 손에는 한결같이 꽃송이를 들었다. 아마 만수대언덕을 찾아가는것 같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시 호곡을 터뜨릴것 같은 그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땔수 없으시었다. 어제밤 어린이들의 설맞이공연을 텔레비존화면으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던 모습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한시간 남짓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다. 피눈물속의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고 인민들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것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고 결심이지였다. 날마다 설날이면 좋겠다고 노래하던 애들이 눈물의 새해를 맞이하게 했으니 그 동심에 찼던 슬픔의 구멍을 어떻게 해야 메꾸어지겠는가?

그이께서는 피로게 한숨을 내쉬며 당중앙위원회청사쪽으로 승용차를 돌리시었다. 그때야 자신의 뒤를 따르는 또 한대의 승용차를 발견하시였다. 책임서기가 슬며시 따라나선 모양이다. 그이께서는 이럴 때가 제일 딱하시였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동무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을 주고싶으시여 우정 조용히 자리를 뜨면 그들은 그들대

로 찾아서 해매는것이다. 승용차에 성애가 하얗게 낀것을 보니 인차 뒤따른것 같다. 어디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또 여기저기를 헤맸을것이다. 미안했다. 청사앞에 차를 세우시자 달려와 인사를 하는 책임서기에게 혼자 조용히 시내를 돌아보고싶어 떠났다시며 다정한 미소를 보내시었다.

《날씨가 찬데 온수난방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소. 알아보고 대책하도록 하시오.》

그이께서는 평천구역 하늘가에 더운 김을 피워올리는 화력발전소 굴뚝쪽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현관안으로 들어가시었다.

집무실 책상우에는 떠나기전까지 보시던 서류들과 함께 인민무력부에서 보내온 문건이 더 첨부되어있다. 적들에 대한 자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하라고 했더니 또 올려보낸것이다.

그이께서는 외투를 벗으시다가 그대로 어깨에 걸치시며 팔걸이 의자에 앉으시었다.

정세는 점점 더 긴장해진다. 적들은 동구라과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자 더욱 기고만장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남조선피뢰들은 전쟁예산을 대폭 늘였고 일본군사대표단까지 끌어들인다. 미제는 새로 진행할 군사훈련의 작전지대를 로골적으로 군사분계선상에 정했으며 수많은 전쟁장비를 피뢰군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그이께서는 전화기를 드시고 인민무력부 작전직일관을 부르시었다.

《어제밤 적정은 어떨소?》

군사분계선에서 적들이 또 도발을 걸어왔다는 대답이다. 어느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러니 군인들은 어제밤도 조국의 안녕을 지켜 전투를 벌린것이다. 방금 시내를 돌아보실 때 사람들의 슬픔에 잠긴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병사들이라고 왜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7월의 그날부터 눈물만 있고 웃음이 없어진 우리 인민이다.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인민들의 설음은 시간과 함께 점차 메꾸어지겠지만 원수들과 마주선 병사들의 마음은 슬픔에만 잠겨있어서는 안된다. 빨리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적들의 군사적공세를 걸음마다 꺾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의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일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에 급히 대책안들을 적어나가시었다.

《장군님.》

책임서기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딱한 기색을 지으며 오늘만은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었다.

《나때문에 동무들이 휴식을 못하누만.》

그이께서는 진정 미안한 감을 금할수 없으시다.

《저희들은 일없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모두 쉬게 하시오.

나는 이제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께 설인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있겠소.》

《오늘말입니까?》

책임서기는 놀랍게 눈을 크게 떴다. 무엇인가 말을 하고싶는데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가볍게 숨만 내쉬었다.

《멀리는 가지 말고 평양 가까이 어느 중대에 나가봅시다.》

하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도하신 다박술중대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책임서기는 불시에 목이 짝 메여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이 얼마나 그리우시면 그이의 발자취가 스민 중대에 나가실 생각을 하셨을까? 어제저녁 새해의 첫 행사로 수령님 계실 때는 매해 신년사를 했는데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고하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었는데 무슨 년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고 하시며 당보와 군보, 청년보에 공동사설을 내보내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던 그이이시다.

가슴이 찢르르 하여 더 말씀드리지 못하고 책임시키는 축축해진 눈을 습벽이며 돌아섰다. 이제는 무엇부터 할가?

자기 방으로 와서 잠시 창밖을 내다보던 그는 피곳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얼른 새로 지은 외투를 가지고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 그것은 인민군장령들에게 새롭게 반외투를 공급하면서 똑같은 천으로 지은것이였다.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 이 외투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어드렸다가 승인하지 않은 외투여서 책임서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잠시 보시던 문건에서 눈을 떼시였다. 가느다란 실로 촘촘히 잔데다 속에 무엇을 넣었는지 폭신한게 입지 않아도 따스한 기운이 풍겼다. 그럴수록 그이께서는 더 입을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검소하게 지내시었는데 어떻게 자신께서 좋은걸 입을수 있는가?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애용하시던 철함을 열어보니 김책동지와 함께 찍은 사진만 있었다. 방에 놓은 텔레비존도 처음 우리 나라 가정들에서 리용하던 《목란》이였고 끝신도 누구나 신는 비닐

신이였다. 한생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모든것을 바쳐오시다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런 령도자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그걸 입는다고 마음이 더워지겠소? 난 수령님 앞에 입고 다니던 이 외투가 더 좋소.》

그이께서는 어깨우에 걸치시였던 회색 솜외투를 가볍게 쓰다듬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문건에 다시 눈길을 보내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향하시였다. 솟아오르는 아침해빛속에 거룩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찾으시여 정중히 인사를 드리시고는 한동안 말없이 서계시였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셨던것이다. 금시라도 마주 손잡아주시며 새해를 축하한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실것만 같으시였다. 왜서인지 지금도 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신이였다. 그래서 두손을 마주잡으시고 이해 설명절은 어디에 가도 웃음이 없다고 조용히 속으로 말씀드렸다.

《김정일동지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하시오. 그렇게 매일밤 새우고 사람이 건디겠소?》

뜻밖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가 귀전에 들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도 반가우시여 인차 답변드렸다.

《수령님, 저는 일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모든 일이 다 잘될거요. 김정일동지가 있기때문에 나는 마음을 놓고있소.》

너무도 또렷이 울리는 말씀이어서 그이께서는 홀을 둘러보시였다. 저쪽에 책임서기가 혼자 서 있을뿐 누구도 없다. 그러니 서로의 그리움이 하늘에 닿아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신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보니 한결 답답하던 가슴이 풀리시였다. 그래서 수령님께 다시 인사를 울리고는 밖으로 나오시자 그길로 다박술중대로 떠나시였다.

## 2

소나무 빼곡한 야산들이 빙 둘러막히여 아늑한 감을 주는 중대는 깨끗했다. 크지 않은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건물들이 마주향한채 나란히 자리를 잡았는데 비자루질을 한 흔적이 곧게 뻗은 길과 운동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선두차는 운동장에 서지 않고 그대로 산으로 올려뻗은 길에 접어들었다. 포진지로 곧바로 가는 모양이였다.

인차 출발속에 하늘을 떠받든듯 우뚝우뚝 선교사포의 강철포신이 보였다. 환호하며 만세를 부르는 군인들도 나타났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이께서는 승용차에서 내리시며 군인들에게 설명절을 축하해주시었다. 이어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며 하나하나 얼굴을 바라보시었다. 불긋불긋한게 젊음이 넘쳐난다. 대포를 다루는 조수답게 키도 크고 몸집이 우람진 군인들도 여럿이다.

그러나 마음에 비낀 그들은 감출수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이 반가운 스승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가. ... 수심이 비낀 눈가에는 애달픔과 호소 그리고 고뇌가 어려있었다. 허지만 누구도 얼굴에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인사를 하고 박수를 쳤으며 만세를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참는 그들을 보는것이 고통스러우시었다. 아예 자기를 붙들고 울음이라든가 터뜨리면 속이 후련할것 같으시었다. 그러나 인차 군인들이 옮겨 행동한다는것을 인정하시었다. 만일 그들이 울음을 터치면 자신도 참아낼것 같지 못하시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며 은근히 속으로 걱정까지 하시었다.

다행히 모두가 참아나가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고마우시었다. 하면서도 애써 참는 그들의 얼굴을 보기가 괴로우시었다. 어떻게 해야 저 멍든 가슴들을 가셔줄수 있을까? 다행히 련합부대장이 중대의 전투훈련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나.

《합시다.》

순간 분위기는 싹 달라졌다. 위엄어린 구령이 포진지상공에 울려 퍼진다.

《중대 주의! 서이우에 적비행기, 속도 이백오십...》

군인들은 모든것을 원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로 바꾸려는듯 구령에 따라 힘있게 동작을 해나갔다. 짹짹 움직이는 포신과 《목표 있음》의 대답, 힘있게 채워지는 포탄과 높이 추켜든 붉은 기들...

어찌나 재빠르게 동작을 하는지 육중한 포가에서 움직이는 병사들모두가 하나의 산 유기체처럼 느껴지시었다.

《잘합니다. 전투적기백이 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족하시여 곁에 서있는 장령들을 둘러보시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드시었다. 어찌나 힘과 용맹이 내려치는지 자신의 마음까지 후련해지시었다. 그와 함께 설날에 손이 딱딱 얼어붙는 쇠붙이를 만지게 하여 군인들에게 미안하시었다. 동작수행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새벽부터 지금까지 수십번도 넘게 훈련하였을것이 뻔했다. 그것은 포신과 방순에는 성에가 겹는데 포판과 조준구 등 훈련하며 손이 가는곳은 반들거리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으셨다.

훈련모습은 보지 않겠다고 미리 이르지 못한것이

후회되시었다. 설날이라고 중대가 체육경기를 하거나 오락회를 할 때 조용히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가? 아쉬우시었다. 때문에 그이께서는 야간 훈련문제를 비롯하여 늘 생각하시던 문제들을 말씀하시며 인차 진지를 떠나시었다. 자신의 관심은 병사들의 생활이시었다. 그런데 걸어서 교양실에 내려오실때까지 중대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셨다.

《중대장동무!》

교양실에 들어가시여 그이께서는 할수 없이 찾으시었다. 대답이 없다. 주변에는 인민무력부와 대련합부대의 책임일군들만이 서있었다.

중대장은 참가하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돌아서시며 다시 찾으셨다.

《옛. 중대장 상위 김정화!》

장령들 뒤에서 힘있는 대답소리가 들렸다.

《오 있구만. 이리 나오오.》

그이께서는 손짓하시었다. 중대화력지휘를 하느라 지휘소에 있다가 뒤늦게 뛰어내려왔는지 가름한 얼굴에는 땀발이 섰다. 중대장은 장령들이 많은데 자기를 찾으니 당황했는지 긴장하여 몸을 바를 몰라했다.

《교양실리용을 어떻게 하오?》

밤잠을 못자고 뛰어다니는 지휘관이라고 생각하니 더없이 미더워 그이께서는 다정하게 물으시었다. 늘쌍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긴장되었던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비졌다. 련합부대장은 혹시나 해서 걱정어린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허지만 중대장은 아침보도시간 리용으로부터 텔레비죤시청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역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중대의 지휘관이 다르다. 조명용전구의 리용으로부터 출판물공급과 악기리용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를 물어도 거침없이 대답했다. 시간과 함께 긴장감도 풀렸는지 자연스럽게 손짓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이께서는 꾸밈을 모르고 솔직한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드시여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때문에 교양실을 지나 병실에 들어가시여서는 방안이 더워 자신께서 온다니까 불을 댈때서 덥힌게 아닌가고 웃으시며 통조로 묻기까지 하셨다.

《불때는 시간을 정하고 정상적으로 화구관리를 하여 언제나 답습니다.》

중대장은 아침과 저녁의 불때는 시간으로부터 화구에 어떤 나무를 땀다는것까지 설명했다. 사실이랄는것이 느껴지시었다. 겨울에는 불이 사랑이라는데 병사들이 덥게 생활하니 무엇보다도 기쁘시었다.

《확실히 덥소. 그러나 동무가 더울 때도 추워하는 동무들이 있을수 있다는걸 명심하고 늘 병사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하오.》

하시며 그이께서는 방안을 둘러보시었다.

침대의 목재부분에는 노란 라크칠을 했는데 깨끗한 침구류를 규모있게 정돈해놓아 아늑한 느낌이 드시었다.

잠잘 때 침대요가 배기지 않는가?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하불을 뒤집어쓰운 침대요를 만져보시었다. 폭신평신타다. 두터이도 맞췄었다. 새해를 맞으며 침구류들을 교체했는지 하불에서 비릿한 비누냄새가 살짝 풍겼다.

침대앞에는 《상등병 김운학》이란 명표가 붙어있다. 소속이 1포라니 좀전에 자신의 앞에서 번개같이 화력복무를 하던 군인들중의 누굴것이다.

누굴가? 그이께서는 훈련하던 병사들의 미더운 모습이 떠오르시여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비누는 모자라지 않소?》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딘가 주저하는듯한 대답이다. 모자란다면 군부대 지휘관들이 딱해할것 같아 그러는것이 분명하였다.

《내앞에서는 솔직해야 돼. 그래야 대책을 세울수 있거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장령들을 관계하지 말라고 슬쩍 그들의 앞을 막아서주시었다.

《포청소를 하면서 손에 기름을 자주 묻히기때문에 좀 모자라긴 합니다.》

처음과 다른 말을 하자니 죄송스러운지 중대장은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그렇지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짐작은 하고계셨지만 이렇게 중대를 책임진 지휘관에게서 직접 모자란다는 말을 들으시니 생각이 깊어지시었다. 언젠가 개울가를 지나치며 군인들이 휴식하는것을 보신 일이 떠오르시었다. 그때 그들은 군복저고리를 벗고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있었는데 머리에 비누칠을 한 동무에게 저마다 비누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는 어쩔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가까이에 있는 동무에게 비누를 던져주었다. 수령님께서 찾으시여 가던길이어서 무엇때문에 비누없는 군인이 그렇게 많은지 알아보시지 못하고 지나친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었다. 그런데 중대장의 말을 듣고보니 그때 비누가 모자라서 그랬을수 있다는 느낌이 드시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방안을 둘러보시기만 하셨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자기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할것인가? 군인 한명당 한달에 비누 몇그람이라는 식으로 공급량을 정하니 포기름을 늘쌍만지는 포수와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보병전사가 하나의 규정량을 가지고 쓰는것이다. 통채로 하나의 기준을 만드니 결국 책상에 앉아 통제내는 사람들만 간편하게 된다. 그것으로 하여 어떤데서

는 남고 다른데서는 모자라 생활에서 불편이 생긴다는걸 모른단말인가?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었다.

공급규정량을 정한다는것은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규정량자체를 적당히 정해놓았으니 그런 규정량이 대체 누구에게 필요한가? 나는 규정량을 주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자리만 지키는 사람, 우에서 하라니 아래에 그대로 요구한다는 식의 《전달병》들에게만 자기도 무엇인가를 한다는 구실을 준다. 이런 현상이 루적되면 경제생활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에서는 불편을 가져오며 나가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 지장까지 주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누문제를 단순한 실무적문제로만 볼수 없으시었다.

《발을 펴고 잠을 자지 말아야겠습니다. 할일이 많습니까.》

근엄한 목소리로 장령들을 둘러보시는 그이의 눈길에는 질책이 어려있으셨다.

《전반적 공급규정량을 따져보고 병종별 직무별로 똑바로 정해야겠습니다.》

이 동무들 비누는 내가 2년분을 보내주겠으니 어느정도 쓰는가를 직접 료해하여보시오.》

그이께서는 무책임한 일군들때문에 군인생활에서 불편을 준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시었다. 병사들에게 죄송스러우시었다. 최고사령관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불편한것도 참고 말겨진 일만 수행하는 사랑스러운 전사들인데...

중대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보아주시고 운동장에 나오셨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으셨다.

무엇을 더해줄수 있을까?

그이께서는 중대장을 돌아보시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당황하여 긴장해있었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수첩에 무엇인가를 자꾸 적는다. 날씨도 한결 풀렸다. 처음 이곳에 오실 때는 하늘이 흐려있었는데 지금은 구름 한점없이 개였다. 술밭속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병실은 밝은 해빛이 쏟아져 더 산뜻하고 정갈하다.

《오늘은 설날인데 우리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결에 서있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 말씀하시자 중대장은 번쩍 머리를 들며 너무 기뻐 손뼉까지 쳤다. 어글어글한 눈에 환희의 불꽃이 빙글거린다.

《군무성원들까지 다 교대시키여 빠지는 성원이 없도록 하오.》

그이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중대장에게 말씀하셨다.

《알았습니다.》

그는 경충경충 뛰며 직일판에게 가더니 어서

중대를 모이게 하라고 했다.

환성이 터져올랐다. 군인들은 웃고 떠들며 달려나왔다. 식당근무성원은 취사복을 입은채로 달려오다가 머리를 치며 병실에 뛰어들어갔다. 그를 보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군인들은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도 웃고 떠든다.

운동장에 서시여 군인들이 모이기를 기다려주 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도 즐겁게 웃으시었다. 누구의 얼굴에도 슬픔의 흔적이 없다.

모두가 웃고 기뻐하니 그이의 마음도 한결 가벼우시었다.

《웃으며 찍지요.》

그이께서는 행복에 넘쳐있는 병사들을 자애넘친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한품에 안으실듯 대오의 중심에 가앉으시었다.

《수령님도 함께 오신것 같지?》

뒤에서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귀전에 들리시었다. 순간 그이의 가슴에는 불뭉치같이 뜨거운것이 불쑥 치밀어오르시었다. 기뻐도 슬퍼도 수령님을 생각하는 병사들이다. 혼자 오셨는데도 수령님과 함께 오셨다고 생각한다. 이 기특한 병사들에게 더 해줄것이 무엇일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들을 모두 통채로 안아주고싶으셨다. 그와 함께 병사들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이 중대를 찾아가고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그날 오후,

중대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하였다. 설명절을 마음껏 즐기라고 많은 식료품과 함께 세수비누도 보내주시었다.

선물을 가지고온 일군은 중대를 떠나신 그이께서 중대를 잊지 못하시여 인민무력부의 책임일군들을 다시 부르시여 귀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의 구석구석에 대하여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셨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선물을 받아안고 군인들은 목이메여 울음을 터뜨렸다. 예로부터 설날에는 옷사람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는것이 조상대대의 풍습인데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리어 병사들을 찾아오시여 축복해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시었으니 넘쳐나는 감격과 영광을 억제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위대한분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었다는 기쁨이 광광 심장의 벽을 두드렸다. 그이를 위해 한목숨바쳐 싸우겠다는 결의가 스스로 가슴속에 자리잡고 세차게 격랑을 일으켰다. 하여 만세를 불렀다. 우렁찬 그 웨침은 다박솔우거진 하늘가에 높이높이 울려퍼졌다. 그 감격을 축복하는가 푸른 하늘에 등실 뜬 태양이 병사들의 머리에 아낌없이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 명언해설

《효성을 떠나 명인이 없고 충성을 떠나 위인이 없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 훌륭한 인간이 될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명인, 위인이란 인류를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하여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가야말로 인류가 영원히 기억하는 명인이고 위인인것이다.

혁명가의 업적과 위훈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에서 이루어진다.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떠나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와 혁명에 대하여,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것은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위업이자 인민대중의 위업이기때문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닌 혁명가는 수령의 사상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인류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는다. 그러므로 수령의 가장 지극한 효자, 참다운 충신만이 위대한 혁명가, 명인, 위인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효성과 충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희세의 명인이며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여주신 효성과 충성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참다운 혁명가의 고상한 풍모를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 정일봉

리영삼

## 1

오 거느린 천리수림이여  
머리우에 내리는 노을이여  
작은 몸 봉이우에 뛰어올라  
이 노래를 부른다

너를 사랑한다고 우러른다고  
뜨겁게 뜨겁게 웨쳐부르니  
바위가 대답하고  
이갈이 눈을 털며 가지를 편다

허리를 눈속에 잠그고  
치뿔은 저 하늘  
삼천리가 굽어보이는 이곳  
노을은 붉은 띠로 지구를 휘감는듯

이 시대의 모든 희망이  
심장의 피를 받아안는가  
봄을 숨쉬는 2월의 정일봉이  
장미빛 노을로 하늘땅을 애무한다

눈속에 얼굴을 묻으니 들려온다  
광야의 더운 피 얼어붙인 눈보라소리  
진대를 스치던 총탄소리  
그날의 낮이  
온몸에 깃을 달아 올리는듯

날카로운 봉이로  
무성한 우듬지로 구름을 찢어선가  
질푸른 하늘이  
마음껏 뛰놀라 자리를 펴주었구나

순간에도 천리를 가는  
정일봉의 바람  
이 산정에서 한껏 들이키는 숨결은  
세기를 호흡한다

고향집 추녀아래 감도는  
따뜻한 정은  
찬서리 고드름도 다 녹이는  
이 땅의 영원한 사랑

여기서 한자욱 한자욱  
내짚는 걸음은 매일을 걸어본다

이 산정에 높이 서서  
바라보는 눈길은 미래를 보노라

백설의 광야우에  
향도의 웅자를 자랑하는 여기  
나는 태양을 향해 두팔을 쳐든다  
해빛에 몸 더워짐이여  
용암대지는 지금 불붙고있다

자주를 부르는 수억만의 목소리에  
붉은기를 추켜들고 대답하는  
정일봉의 웨침 귀전을 친다  
조선의 신념  
조선의 낮이  
여기 있다고

## 2

백두의 설한풍이  
총알같이 날려보낸  
눈송이를 움켜쥐니  
스러지는 빙하의 번뜩임이 느껴진다  
광란도 잠재우는 숨결이 느껴진다

오르며 내리며 다져진 길  
이 나라의 길들이 구만리로 이어진 길  
꽃을 따라 올리는 소백수의 흐름  
얼음을 녹이며 터놓는 봄의 속삭임

2월의 환희로  
기쁨인 나날  
흐르는 세월이  
그대로 승리이고 영광인 시대  
인민이 주인된 존엄  
정일봉이 굳세게 지켜주고있어라

철부지 시절처럼 뒹굴어  
눈사람처럼 뒹굴어도  
가슴속 환희는 어리광치리  
봉이우에 빛나는 존함이  
해빛같이 눈앞에 눈부시다

백두산이 낳은 령장의 이름  
세기가 낳은 위인의 이름  
낮이 되고 옹기되어

이 존엄 이 영광 떨치라고  
크나큰 당부를 신념에 심어주는  
여기 정일봉마루

성에 불린 이끼베고 잠을 청해본다  
눈앞에 투사의 모습 떠올려본다  
온몸이 그대로 얼음덩이 되도 좋아라  
심장이 금선을 튕겨 들려주는 가락가락  
우거진 수림의 설레임처럼 가슴에 부푸니

썰-얼어붙은 추위를 녹여  
더욱게 사는 이 마음이다  
인간세상의 만가지 기쁨 다 느끼며  
고향집을 향해 깊이 머리숙이는  
아, 고마움의 길이어

### 3

여기서 하늘의 빛은  
영원을 숨긴다  
여기서 하늘의 빛은  
기쁨의 오리오리로 엮어진다  
불밝은 고향집 이 창에서

해쫓는곳  
밝음이 시작된곳  
어둠이 물러간 추녀아래서  
이 나라 력사에 경륜을 새기며  
영원의 빛발을 뿌렸으니

저 동기와귀틀집 창에서  
전설처럼 비쳐나온 해살은  
려명이었다.  
미래였다

동서남북 탁 트이게  
헛디딤없는 혁명의 이름으로  
세기의 상상봉으로  
폭풍을 휘감아  
자주의 열기를 떠올린  
태양의 뒤편  
승엄히도 고향집을 지켜셨도다

천지호심에 잉태되었던  
이 나라의 간절한 숙원이  
움틀 태동한 날  
대통운이 뜬 2월이 있어  
수령님 넘겨주신  
붉은기의 퍼덕임은 오늘도  
백두의 바람을 일으킨다

속삭임과 깨달음은 벅차기만 하다  
마치도 영원한 진리로  
신기한 힘  
성스런 기운  
심장속 피를 더욱게  
정일봉은 웅골찬 기동처럼  
가슴에 승엄히 자리잡는다

오, 꺼안으라  
불에 타지도 물에 젖지도 않는 내 사랑  
신념의 이 봉우리 가슴에 안고  
넋이란 넋  
하나로 칭칭 묶어  
영광찬 이 시대를 살려나

### 4

누리를 마주한  
내 노래의 나뭇길  
정일봉을 지키는 불덩이로 살아  
활활 살아 뿔내는거다

보아라 피속에 번지는 불길  
단쇠같이 심장에 이글대는  
뜨거운 믿음  
불타는 사랑

붉은 노을에 미역감고  
더운 김 물물  
허영게 피워올리며  
소리쳐 웨치는 모양  
나도 여기서 거인이 된듯

펼치는 손 움켜쥔 손  
높이 휘저어 이 태양을 환영하는  
태양을 숨쉬는  
태양의 살붙이들

령도의 불패성우에  
변치 않는 맹세를 엮고  
함께하는 뜻과 생사  
각오한 혈전도 있어라

대를 이어이어  
뿔어야 하는 넘어야 하는 길에  
누가 꽃주단 퍼주길 기다리던가  
건설과 전망을 앉아서 기다리던가

일심의 당이 있고  
일심의 혁명이 있고  
일심의 조국이 있는데야

크던 작던 제것으로  
제가 열심히 사는데야

앞뒤에서 광명의 등불 꺼지고  
잡다한 궤변과 아우성이  
허벅지와 발뒤꿈치를 몰어도  
뭐가 두려워서  
누가 뒤걸음쳐...  
정일봉이 가슴마다 든든한데야

다시 생각하고  
고쳐 생각하며  
삶의 의욕은 일떠섰다  
태일의 승리를 향하여  
동요없이 전진 전진하기에

오, 정일봉이 호령한다  
순간마다 호홉마다  
아름이 있어도 이긴다고  
진통을 겪어야 한다면  
끝까지 겪는거라고  
허리띠 더 짧게 매야 한다면  
최후의 웃는 날까지  
또 그렇게 하는거라고

## 5

여기서는 들려온다  
온 누리가 청하는 물음에  
대답하는 소리  
정일봉을 우러러  
사려깊은 생각을 모아  
또박또박 울려오는 목소리에...

태양의 보호가  
성숙된 오늘이  
결에 없이  
배심이 뭐냐고

쑥발에 선 허수아비처럼  
녹거리장단에 춤추며  
목에 감긴 거미줄을 풀  
마지막 힘마저 잃으면 뭐가 되나

하다면 알아야 한다  
개펄에 뒹굴어도  
은하를 이룬 별같은 목숨이  
왜 있는지 왜 사는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

팔팔 쏜은 선혈에서

모질게 움터난 피의 꽃잎  
수억만이 생명으로 받아들인  
이 사회주의 터전이 절로 생긴것이던가

쓰디쓴 땅의 앙금이  
마치와 낫을 적실 때  
멍에밑에서 버려여진 정신에  
승리의 시작을 알린 태양이  
피바다 눈보라 만리  
저 영광의 년대를 넘어 솟았으니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비겁한자 하나가  
혁명의 자세가 아니고  
겉썩이는 고난이  
연기를 녹찾히는 해열제가 아니기에  
걸음마다 투쟁의 노래가 있는거라고

정일봉우에서 아래까지  
마음의 기둥으로 세워주는 힘찬 대답  
수령, 당, 대중의 이름  
여기에  
인류의 밝은 희망이 있다고  
귀틀집벽에 패인  
깊은 주름살이 전하여준다

## 6

정일봉을 바라보는 나에겐  
남모르는 즐거움이 있다  
무지개를 휘둘러 새를 잡는  
아이의 나뭇잎은 꿈이  
구름을 잡아타고 훨훨  
하늘을 나는 자랑이

오, 내 누구와 눈을 맞추랴  
숲을 이룬 뿌리와 년륜  
저 잎새의 푸르름  
태양을 향한  
천태만상의 조화로움을 두고

신통히도 그것은  
이른새벽 새들에게  
못다 부른 노래를 부락하는 별같이  
봄을 불러 숨쉬는 눈빛 같다

너 태양을 애무하는 가슴아 심장아  
너는 나날이 여물어가는 이삭처럼  
고마움에 머리숙인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심정 무엇에 비기랴



세상의 맨 끝머리가 아니라  
한복판에서 모든 사변을 굽어보며  
그것도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준 배려에  
보답을 생각하는  
지극한 효성으로

변혁의 쇠바퀴를 돌리며  
하나가 전체를 껴안고  
전체가 하나를 껴안고  
모두모두 껴안고

막장에서  
쇠물앞에서  
목숨걸고 지켜낸 단결이  
깨뜨릴수 없는 량심으로  
두터운 의리로 되었기에

은백색 서리꽃이  
속삭이며 나를 반겨 빛나는 공간으로  
추위가 풀린 고요속으로  
눈길은 산매처럼 솟아오른다  
높이높이 더 높이...

## 7

정일봉은 자랑한다  
이땅의 사람들 모두가  
전대미문의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하나같이 릉름하다고  
하나같이 옳바르고 강의하고  
누구나 미더웁게 산다고  
가까이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싶어한다고

아낌없는 이 찬사  
나를 취하게 한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랑이  
태를 묻은 불사의 땅에서 고백을 청한다

췌 췌 수림의 설레는 소리를 듣는  
정든 교장  
신부차림의 붓나무의 우아함  
돌돌 얼음장을 씻는  
 시내물의 번쩍임

눈을 녹여 마신듯  
이슬을 머금고  
으쓱이며 웃음짓는  
버들개지의 뿔냄  
구름을 모아 언덕을 쌓는  
바람의 날랜 숨씨

아 머리우에 어깨우에  
나비같이 날아내리는 눈송이는  
근심걱정 모르는  
이 나라의 깨끗한 꿈을 속삭인다  
신선같이 사는 내 땅  
조국의 무변광대한 아름다움앞에  
절로 머리숙여짐이어

정일봉 정일봉  
흰보석으로 단장하고  
계곡의 절벽 거울같이 빛나  
만민의 마음 충충 고여  
위대한 존함을 받들어  
뿜어넘치는 벽찬 생기여

사람도 자연도 눈부시다  
온 우주가 안겨 숨을 쉬는 여기  
정일봉 우뚝 솟아  
배짱이 든든하고  
기상이 역세고  
신념으로 강대한  
내 조국이어

나는 창공을 향해 눈길을 든다  
하늘을 찌른  
기적중의 기적을 상상해  
장엄히 솟아오른 향도의 태양을 우리러

젖어지는 눈시울 들어  
힘준한 절정  
휘날리는 영광의 높이를  
새로운 승리와 래일을 바라보며  
심장이 받은 크나큰 박동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 8

정일봉은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생각한다  
하나만이 순결하다고  
둘은  
피가 땅이  
하늘이 거부한다고

하면 뼈아픈 사연아  
틀어진 주먹이 운다  
나의 줄기찬 걱정을 타고  
눈에 가슴에 우는 우뢰여

나는 이 땅의 가수  
붉은 기발을 들었다

정일봉의 숨결을 안았다  
다가오는 위대한 시각을 알아  
해빛이 비쳐가는 그 끝을 본다  
통일의 그날을 본다

가슴에 차곡차곡  
하늘에 차곡차곡  
꼭게 꼭게 쌓여진 사랑  
세세년년 인민위해 조국위해  
뜨겁게 일으킨 사랑  
이 겨레 한품에 안아  
새 세기의 령마루우에  
어화등등 추켜올려  
풍요함과 강내함을 찬양한 사랑

이밖의것은 사라지라 다  
색갈 고와도 사라지라 다  
엄살 부려도 사라지라 다  
모조리 모조리

둥지 털고 사라지라 다

하나의 민족  
이 하나만이 순결하기에  
하나의 조국  
이 하나만이 순결하기에  
정일봉의 기상 삼천리를 안았다  
향도의 태양 온 누리를 비친다

오, 겨레여 강토여  
생사기로의 출발점을 알겠는가  
불의 갈기를 들어  
분렬의 장벽을 부시자

손에 손잡고 굳게 잡고  
자자손손 굳게 잡고  
**김일성** 민족답게  
하나의 조국에서 살자고  
정일봉은 뚫단 마음에 질풍을 준다

## 계단을 오르며

김휘조

달빛이 깔린듯  
별빛이 어린듯 빛나는 계단  
한단한단 오르니 뜨거운 생각  
보화처럼 류다른 석재여서  
빛나는것이라

천세만세 수령님 언제나  
우리과 함께 계시게 해주시려는  
장군님 빛나는 충정 계단이 되고  
그 마음 꿈결인듯  
내 손잡고 오르는 금수산기념궁전

계단이 이제 닿을곳은  
아버이수령님 계시는곳  
세상 가장 눈부신  
해빛 가득한곳

불밝은 당중앙창가에  
오늘도 자주위업이 이어가시는  
장군님시간속에 수령님 영생하시고  
수령님 뜻 해빛으로 따뜻한 봄날에  
인민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념궁전개건장을 찾으신 장군님사랑  
별빛되어 달빛되어 어리인 계단이며

이제 계단이 끝나면 그 사랑 다 알가  
아, 수령님 영생은  
행복한 인민의 영생  
이 세상 끝까지  
우리 누릴 행복을 다 알아야  
그 사랑 다 알리

## 무한대

박춘섭

여름이 한창 짙어가는 1995년 6월 25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그들과 함께 평양시내를 시찰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날의 시찰이 무엇을 목격한것  
인지 일군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였다.

한껏 푸르러가는 계절의 평양시는 말그대로 공  
원속의 도시였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깨끗한 도로, 량옆에 늘어  
선 잎새푸른 가로수들, 떨기떨기 어우러진 갖가  
지 꽃들, 그속에서도 유묘하게 눈에 띄우는것은  
줄장미꽃이다.

아마도 이 계절은 장미꽃 계절인듯 싶었다.

해빛이 숨박꼭질하는 그늘진 유보도로는 산뜻  
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오고간다. 울긋불긋한  
옷으로 단장한 녀성들이 피어난 꽃들과 어울려  
거리는 한층 더 화려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것을 바라보고계시였다.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그 정경이 동행한 일군들  
의 가슴에도 류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도 모두 자기나름으로 오늘의 시내시  
찰이 무엇때문인가를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보  
통날의 레사로운 생활의 흐름속에서 별로 특이하  
게 눈에 띄우는것이 없었다.

어느 한 중앙기관의 책임일군은 만년필을 끼운  
수첩을 두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오늘호 《로동신  
문》에 나간 기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있었  
다.

오늘은 6월 25일.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마흔다섯해가 흘러간 날이다. 흘  
려간 그 45년의 수백수천날, 그 어느 하루도 원  
쭈미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낮춘적이 없었지  
만 해마다 이날이 오면 당보의 목소리는 다시금  
날을 세운 비수처럼 날가로운것이다. 물론 신문  
의 편집방향으로부터 주요기사에 이르기까지 장  
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딘가 미흡  
한 구석이 있을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고있었다.

그런 생각에 움해있는 그 일군의 시야에 비껴  
드는 시내의 정경은 류다른것이였다.

이 거리가, 이 행복한 생활이 과연 어떻게 마  
련되었는가.

물결처럼 흘러가는 저 사람들속에서 40여년전  
이 거리가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던 완전한 폐허  
였다면 선뜻 믿을 사람이 아마도 몇이 없을것이

다.

그것을 증명할만한것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

평양은 저주로운 전쟁의 흔적을 총탄자욱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씻어버렸다. 일본의 히로시  
마에는 원자탄피해의 흔적을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지만 우리는 말끔히 없애버렸다. 그대신 땅  
속깊이 묻혀있는 파편처럼 불타는 적개심만은 우  
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깊숙이 묻어두고있다.

하기에 45년이 열곱, 백곱으로 흘러간데도 우  
리 인민은 결코 이날을 잊지 않을것이다.

행복할수록, 우리가 이룩해놓은 창조물이 크면  
클수록 피가 서린 원한을 백배천배로 가다듬어  
야 할것이다.

장군님께서 일군들을 데리시고 하시는 오늘의  
시내시찰도 여기에 목적을 두신것이 아닐가?

그 일군의 생각은 자기나름으로 깊어지였다.

손에손에 꽃송이를 든 어린이들의 대렬이 마주  
온다.

왜 모두 꽃을 들었을까?

그 일군은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  
보았다.

승용차는 천리마동상아래를 지니고있었다. 그  
러니 저 어린이들은 수령님동상이 모셔져있는 만  
수대언덕으로 가는 모양이다.

피곳 아침에 출근할 때 일이 떠올랐다.

집에 들어가면 늘 무릎에 휘감겨 돌아가는 손  
녀애가 출근하는 걸음을 멈춰세웠다.

《할아버지, 나 꽃.》

《꽃? 꽃은 왜?》

《래일 학급동무들과 만수대에 가요.》

《그래? 요즘에야 시내에 맨 꽃인데 뭘.》

《피, 꽃이 많대구 망탕 꺾으면 되나뵈, 할아버  
지네 온실거.》

《애두 참, 매번 네 그 꽃성화에 못견디겠구나.

그래그래. 저녁에 가져다주마.》

《꼭? 제일 고운걸루 약속했다.》

손녀애가 새끼손가락을 까부려 내밀었다.

《됐다. 그래 약속했다.》

지금껏 까맣게 잊고있던 손녀애의 약속이다.

지금 저애들을 보니 철부지어린이애의 부탁이라  
고 그저 흘러보낼 일이 아니다.

장군님께서도 지나가는 아이들의 대렬을 유심  
히 살펴보고계시였다. 저쯤한 년령의 아이들이면  
걸어가면서도 장난질칠 때이지만 손에 든 꽃송  
이가 상할가봐 그러는지 모두 점잖게 걸어가고있

었다.

장군님께서는 순간에 지나친 대렬이 아쉬우신 듯 뒤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었다.

승용차는 비파거리를 돌아 곧바로 광복거리 쪽으로 향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내시찰을 마치실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시내시찰을 끝나치시고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장군님께서는 방금 돌아보신 시내를 그려보시는 듯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8자를 넘혀놓으면...》

장군님께서 손에 들고계시던 만년필을 책상 위에 놓혀놓으시고 그 의미를 가늠하시듯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말씀을 이으시었다.

《무한대가 됩니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쓰던 일군들이 순간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무언가 거대한것이 가슴에 쿵 떨어졌다. 장군님께서 왜 시내시찰을 하시였는지, 그 시간에 줄곧 이어오신 사색이 무엇이였는지가 심장에 마쳐왔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말씀이 없으시었구나. 일군들은 장군님의 그 숭고한 사색의 한 끄트머리마저도 따라가지 못했던 자신들이 죄스러워 다시금 머리를 수그렸다.

일군들은 방금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수첩에 받아썼다.

《8-∞》

7월의 달력에 까만 테두리로 표시되어있는 8.

아직 그날까지는 열흘 남짓이 남아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열흘전부터 아니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그날로부터 그 어느 하루 한순간도 잊지 않고계시는것이다.

장군님께서 수령님 서거하신 8일을 피라는 심장속에 쓰고 또 쓰시며 수령님의 한생을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시였으면 그런 생각까지 다 하시였으랴!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중앙기관의 책임일군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장군님께서 돌아보신 시내시찰의 로정을 다시금 돌아켜보았다.

만수대언덕, 만경대, 광복거리중심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영상, 통일거리, 동대원네거리에 모셔진 수령님 영상.

아, 그래서 모란봉을 넘을 때 지나친 어린이들의 대렬을 장군님께선 그토록 오래도록 바라보시었구나.

장군님께서는 결국 시내시찰의 그 시간에 온 평양시와 함께 계시는 수령님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오신것이다.

그 시간에 이어진 장군님의 숭고한 사색의 세계를 그 누가 감히 헤아릴수 있겠는가!

다만 그 무한대한 사색의 한 봉우리가 방금 하신 말씀에 응축되어있는것이다.

그 일군은 수첩에 8자와 무한대의 표식을 쓰고 또 써보았다.

신비스럽게도 그것은 그 어떤 새로운 의미를 띤 철학처럼 느껴졌다.

그렇다! 그것은 철학이였다.

우리 수령님 영생의 철학이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투철한 수령관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찾아낼수 있는 영생의 《공식》이였다.

인류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하도 위대한 시기에, 수령님의 영생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우리 장군님께서 하도 위대하시기에 비통한 날 8일도 이렇게 무한대한 생을 표시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비단 그 일군의 느낌만이 아니였다.

무한한 신뢰와 경모의 정이 어린 눈길들이 장군님을 우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어버이수령님을 천만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고, 우리의 후대들을 꼭 그렇게 교양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피바다가극단의 지휘자가 창작한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다시금 상기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꿈결에도 안고사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꼭 든다고 하시며 몇번이고 부르고 또 부르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가사의 내용을 다시금 음미하시듯 저멀리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수령님의 서거 1돛에 즈음하여 피바다가극단 작곡가 전정근동무가 작곡한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로동신문》 1면 사설을 내는 자리에 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으로부터 가사와 곡을 받은 일군은 사무실에 돌아와 정중히 펼쳐보았다. 그자신의 수준으로서는 미처 다 헤아릴수 없는 장중하고도 숭엄한 그 무엇이 방안을 짝 채웠다.

그것은 한편의 노래라기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와 의지, 신념의 응결체이며 시대의 메아리였다.

장중한 노래의 선율과 함께 그 일군의 가슴을 광광 울리는것은 수령님의 영생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의 무한대함이였다.

《8-∞》

일군은 저도모르게 다시금 새겨보았다.

무한대, 그것은 영원을 의미한다. 무릇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순결한 사색의 세계는 정녕 끝도 없는 무한대한 것이다.

그 무한대함속에 아버지 수령님 영원히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그 무한대함속에 우리 조국의 무궁한 미래가 있고 우리 인민의 밝은 앞날이 담보되어있는 것이다.

그 무한대함속에서 세계를 경탄시키고 온 인류가 우러러볼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남짓이 지난 7월 8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이 되는 그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붉은 천을 꿇으시여 금수산기념궁전의 개관을 내외에 선포하시였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무한한 영생을 알리는 선언이였다.

## 우리 당의 눈빛

리진학

어서 오라 애무하는 어머니의 눈빛같이  
언제나 다심하고 살뜰하더라  
수천만의 아들딸들을 키우는  
우리 당의 눈빛  
어머니 우리 당의 그 눈빛은

이른아침 농장벌을 바라보며  
가꿔야 할 풍년날알을 생각할 때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농사일을 차근차근 의논할 때  
자애로운 그 눈길로 나를 지켜주더라  
리당비서가 농장의 주인이 되어  
농사를 잘 지으라고

한 당원의 당생활을 두고  
리당위원회의 밤을 밝히는 날에도  
인자한 그 눈길로 나를 타일러주더라  
그 당원을 진실로 잘 도와주어  
우리 당의 고임돌이 되게  
참된 당원으로 키우라고

떨어져 못살 해빛과 같이  
내 가슴에 정답게 스며들어  
머리들어 우러러 보면  
우리 당의 그 눈빛  
아, **김정일** 동지의 빛나는 안광이여!

그이의 눈빛  
인민을 보살피며 키우시는  
사랑과 믿음이 다 깃들어있고  
그 눈빛엔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오늘의 행복이 어려여있고  
그 눈빛엔 사회주의 내 조국에  
창창한 미래가 빛나고있나니

세상은 소란하고  
시련의 고개는 앞을 막아도  
그 눈빛을 우러러보면  
가슴에 새힘이 용솟음치고  
그 눈빛 우러러보면  
캄캄한 밤에도 길을 잃지 않더라

때로는 봄빛처럼 따사롭고  
때로는 어머니의 미소처럼 너그럽고  
때로는 섬광처럼 번쩍이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굽이치는  
**김정일** 동지의 그 안광은  
우리 당의 향도의 빛발!

그렇더라  
그 눈빛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꽃은 사철 피고  
그 눈빛 강산에 넘쳐  
만풍년의 금나락 끝없이 설레이고  
그 눈빛 원썬들의 아성에 번개쳐  
승전고 우뢰가 울리거니

자식들이 어머니의 얼굴 쳐다보며 살듯  
내 운명 지켜주는 우리 당의 그 눈빛은  
바람 불고 세월은 끝없이 가도  
내 한생 안고 살 마음의 해빛이여라  
사랑과 믿음과 신념의 해빛이여라

## 위대한 령도자, 복받은 시인

오늘도 원고지를 마주할 때마다 내가 아침저녁 보고 듣고 체험하는 작은 생활로부터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있는 다난한 사변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사색은 끝없이 나래쳐올라 나를 흥분시키고 창작의 붓을 달리게 한다.

제나름으로 내가 쌓아가고있는 한생의 시의 답에 한편한편 자기의 정신적창조물을 보태여갈 때마다 나는 나에게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시인의 고귀한 사명감을 걸음마다 깨우쳐주며 끝없는 창작적열정을 안겨주는 자애로운 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내 나이 이제 환갑까지 지나고보니 지나온 날에 대한 회고가 많아지고 그때마다 내가 오늘처럼 당의 시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순란치 않은 인생행로가 눈앞에 선히 밝혀와 나를 따듯이 손잡아 오늘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가슴 가득히 차오른다.

해방직후 남반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특별하게 문학에 뜻을 두어본적도 없었고 농촌집의 사랑채에 굴러다니는 소설책들을 흥미삼아 몇권주어 읽은것밖에 문학수업의 토대를 닦은것도 없었다.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골에서 시골로 7남매라는 무거운 가정의 짐을 힘겨웁게 끌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청빈한 교육자의 가정은 나에게 이렇다할 포부도 희망도 줄수 없었다.

나무의 씨앗이 자리를 가려 비옥한 땅을 골라 떨어질수 없듯이 척박한 땅에 떨어지고만 나의 생의 씨앗은 삶의 터전도 향방도 미처 잡지 못한 채 소년시절의 꿈속을 헤매이고있었다.

1950년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의용군에 입대한것은 내 운명에서의 사변적인 전환이 아닐수 없었다.

거창한 전쟁의 밀물은 해변의 작은 모래알과도 같은 내 삶을 전혀 다른 대안으로 옮겨놓았던것이다.

나를 품어준 은혜로운 공화국은 나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을 주고 원대한 청춘의 포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내가 시창작에 골몰하게 된것은 전쟁이 한창이던 병사시절부터였다.

그러나 군사복무의 시절에 쓴 시들은 더욱 그러했고 작가학원을 졸업한 후에 쓴 작품들도 그 수준이 매우 어려 시인의 발걸음은 뚜렷한 목표가 없이 방황하고있었다.

참답게 시대와 인민에게 복무하는 시인의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시인의 걸음을 목적지향성

### 《김일성상》 계관인, 로력영웅 오영재

있게 옮겨던게 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를 받을 때 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해오신 혁명적문학예술의 전통을 발전풍부화시키시며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나는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 걸쳐 서사시들인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1968년), 《푸른 소나무 영원히 솟아있으리》(1969년), 《조선의 어머니》(1970년)를 창작하는데 참가하였으며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헌시들을 써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었다. 이것은 종전까지 생활의 구석진곳에서 자기나름으로 써오던 나의 시출들을 혁명문학의 빛나는 궤도에 올려놓아주시고 눈부시게 비쳐주신 위대한 령도자의 밝은 조명이였다.

이때로부터 나는 혁명하는 우리 시대에 인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시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세와 립장을 알게 되었으며 그 높이에서 자기의 창작을 비약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탐구와 노력을 기울일수 있게 되었다.

시대의 요구와 당의 기대에 비해볼 때 나의 시들은 매우 미숙한것들이였지만 부족한 점은 일깨워주시고 조금이라도 인민의 사상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었다면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에 이끌려 오늘에까지 창작의 붓을 달려왔으며 그 나날에 시집 《행복한 땅에서》(1973년), 서사시 《철의 서사시》(1987년), 장편서사시 《대동강》(1985년), 서사시 《인민의 아들》(1992년), 장시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이여》(1978년), 장시 《영원하리라, 불멸의 위업이여》(1994년), 서정시들인 《만민의 태양》(1977년), 《세상에 오직 하나》(1988년), 《위대한 심장을 주다》(1991년), 《어머니의 당부》(1988년), 《조국이며, 감사를 드리노라》(1992년), 《조국이며 앞으로》(1994년), 가사들인 《사랑의 미소》(1989년),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1986년), 《백두의 말발굽소리》(1993년) 등을 비롯한 수백편의 서사시, 장시, 서정시와 가사들을 쓸수 있었다.

가는 길이 멀어서  
흘로는 못가  
내 한생 따르며 의지하는  
그런 품이 있습니다  
...



(시 《세상에 오직 하나》 중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갔지만 그 어디엔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가는  
길이 한생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그 어떤 성인의  
학설이나 자기가 신봉하는 주의주장을 마음의  
기둥으로 세워보기도 했고 함께 갈 벼를 구하기  
도 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 운명을 정정할수  
없는 인생의 길은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헤  
쳐가기 어려운 가시밭길을 만날수도 있고 단 한  
번의 어리석음으로 영영 헤어날수 없는 수렁속  
에 빠질수도 있다. 그러기에 늘 자기결에는 길을  
잘못들지 않게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생활  
의 교사가 필요한것이며 설사 길을 잘못된 경우  
가시밭과 수렁속에서 자기를 건져주는 구원자가  
있어야 하는것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시대와 인민앞  
에 참답게 복무할수 있는 붓을 든 혁명전사로 나  
를 키워주시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을뿐  
만아니라 한때 길을 잘못걸었을 때에는 운명의  
나락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로운 구원자이시였  
다.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질러 그 누구도 도와줄  
수없는 막다른 지경에 내가 이른적이 있었다. 이  
것은 나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마지막 선고와도  
같은것이였다. 때늦은 뉘우침으로 절망에 빠져  
모대기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를 책망하시기에 앞서 한 전  
사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일꾼들을 나무라시  
며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할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주시였다.

**《나는 좋은 작품을 쓴 그 작가를 믿습니다.**

...

**그는 우리와 한대오에 서있는 혁명동지입니다.**

**결함과 과오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허물처럼  
함께 가슴아파하며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혁  
명을 해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처리할번하였습니까.》**

말씀을 끊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흥  
분을 삭이시려는듯 오래도록 말없이 창밖을 내다  
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그 작가의 경력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아파 좀처럼 진정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형제들과 헤어져 수령님  
의 품을 찾아왔으며 지금까지 근 30년간 우리 당  
의 품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혁명  
대오에 서서, 어려운 후퇴의 길도 걸었고 허리띠  
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도 하였으며 창작적열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작품도 썼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혁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며 우리가 공을 들여 키운 작가입니다.》**

이것은 한 평범한 전사에 대한 정치적수령의  
위대한 믿음이며 보호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나를 이 세상에  
두번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생명의 은인  
이시다.

그러시고도 그이께서는 허물 많던 자식이 자기  
를 채심하고 착실히 일에 달라붙었을 때 그것을  
그리도 기특히 여기고 남다른 사랑을 기울여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나의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  
내이고 꽃피우도록 크나큰 관심을 돌려주시고 온  
갖 배려를 다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의 미숙한 작품을 손수 가필까지  
해주시며 명작으로 완성되도록 지도해주시였으  
며 자그마한 창작성과를 두고도 파분하신 치하로  
나를 고무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은덕에 비해볼  
때 너무도 보답한것이 없어 언제나 송구한 나에  
게 그이께서는 공화국의 최고상인 **《김일성상》** 계  
관인의 영예와 로력영웅의 칭호까지 안겨주시였  
을뿐만아니라 작가적인 시야를 넓히라고 먼 외국  
땅에 가족휴양까지 보내주시였다.

그 당시 내가 살고있는 집만해도 크게 불편이  
없었는데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특색  
있게 지은 광복거리의 정원식주택을 배려해주시  
여 넓고 화려한 서재에서 마음껏 창작의 나래를  
펼치도록 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나를 범민련  
북측본부의 중앙위원으로 내세워주시어 조국통일  
을 위한 정치활동의 무대까지 열어주시였다. 그  
리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련의 활동과정에 나  
는 뜻밖에도 남조선에 두고온 부모형제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범민족대회 기간에 친숙하게 된 해외교포인 한  
문필가가 나를 포함한 공화국의 몇몇 문인들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남조선신문인 **《한겨레신문》**  
에 게재하였는데 그것을 서울에서 살고있는 나의  
동생이 받아보고 조국해방전쟁의 날 의용군으로  
떠난 형의 생사여부를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리  
고 나는 또한 동생과 **《한겨레신문》** 기자와의 대  
담이 며칠후의 그 신문에 실려 남에 있는 혈육들  
을 찾게 되었다.

조국이 통일되지 못해 수백만의 민족성원들이  
4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혈육들의 생사여부조  
차 알지 못해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데 이것

은 매우 레외적이며 자신이 어쩔지 충구해지는 일이지는 하지만 나의 이 뜻밖의 행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은덕의 결과인것이다.

혈육들의 소식을 알게 된 흥분으로 가슴 진정 할길없었던 어느날 저녁 나는 캐나다의 한 문필가동포로부터 대전에 살고있는 80고령의 어머니와 내가 서로 통화할수 있게 캐나다에서 중계해주겠다는것을 알려왔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헤어져있던 가족들의 안부를 다 물어보고 자신이 누리고있는 생활을 차근차근 잘 이야기해주라는 한없이 고마운 말씀을 주시였다.

비록 머나먼 해외를 통하여서이지만 모처럼 북과 남의 아들과 어머니가 전화로나마 이야기를 나누어볼 기회마저 남조선당국이 막아나섬으로 하여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한가지 사실만 보아도 누가 진정으로 민족이 당하고있는 고통을 가슴아파하며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서 주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으며 누가 민족을 배반하고 반통일의 길로 나가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제한몸을 다 바쳐갈 마음속 각오를 더욱 굳게 다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처럼 뜨거운 관심속에서 그후에 나는 대전에 살고있는 어머니의 생일 여든뎡에 옷감과 보약을 비롯한 선물을 보내었다.

아들의 선물을 받아안은 어머니는 감격하여 회담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이 자식을 낳은것으로 부모가 아니지. 그 애 장래와 전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것이 부모인데 너를 세상에 버려둔 사람이 무슨 엄마라는 부름을 받을수 있나. 나는 너무도 부끄럽고 진토만도 못한 존재라 너에게는 더 말할것도 없구나. 너의 소식을 들으니 어느정도 한이 풀리는구나. 나 이제 죽는다해도 한이 없을것 같다...》

어머니의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그만 목이 메여 건잡을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없는 나에게 이날까지 어머니를 대신해주고있는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였다.

날아준 친어머니도 못주는 사랑을 우리 당이 주고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노래하고있지만 나는 그 참뜻을 나의 생활로, 한생을 통하여 체험하고있다.

나는 이 고귀한 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탁월한 령도자로서 그리고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품모를 그린 서사시를 창작할 결심을 가졌다. 오래동안 고심끝에

비록 미숙하나마 《인민의 아들》이라는 서사시를 완성할수 있었다. 이 작품을 편지와 함께 록음으로 보고드릴 때 나는 매우 죄송스러운 심정이였다.

그이의 위대한 품모에 비해볼 때 나의 작품은 그 어느 한 측면도 변변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장시간에 걸치시여 이 서사시를 다 들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에 충직한 시인》이라는 높은 평가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이 친필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를 받아안고 창작에 바쳐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한결음한결음 손잡아 창작의 길을 이끌어주시였으며 나의 정치적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는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정치적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라고 온갖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고 오늘은 미숙한 나의 작품을 다 들어주시며 이런 과분한 평가를 주신 위대한 어버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이 귀중한 말씀은 앞으로 영원히 당을 따르며 당과 수령을 위해 충직하게 한생을 살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기대이며 당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남해바다가의 척박한 땅우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오늘은 얼마나 비옥한 토양에 뿌리박고 태양을 향하여 키를 솟고있는것인가. 몸은 비록 혈혈단신으로 공화국으로 들어왔지만 부모도 혈육도 줄수 없는 비옥한 토양에서 풍만한 자양분을 마시며 행복한 나의 한생은 흘러가고있다. 그 토양, 그 해빛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다.

그 자애로운 품속에서 나뿐만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인들이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있다.

옛 문인들이 말하기를 당대위인을 위해서는 잘된 한편의 송시면 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30여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받아오며 우리 시인들이 느끼는것은 그이의 활동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흥분시켜주고있으며 시로 충만되어있었던것이다. 그이의 예지는 결코 범상하다고는 말할수 없는 시인-지성인들의 상상과 예측을 너무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충격적인것들이였으며 그이의 담력과 용단은 단순히 장군답고 남아다운 기질에서만이 아니라 예리한 정세판단과 통찰력에 기초한 고도의 과학에 언제나 기초하고있다.

하기에 그이의 결심이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에 날으면 순간에 세계정세가 변화되며 우리 혁명에는 전화위복의 길이 환히 열리지 않았단가. 그러기에 그이의 존함을 온 세상은 경탄에 넘쳐 부르고있으며 사회주의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위인들의 위인, 장군중의 장군으로 칭송하고있다.

국제정치사의 오래동안 굳어진 관례를 초월하

시며 오늘도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시고 유훈을 지켜가시는 그이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도덕풍모를 우러르며 우리 시인들은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던가.

세월이 흐르고 거대한 사변들을 겪어갈수록 우리 그이의 위대함을 다 몰랐다는 그 생각, 그래서 더 흥분하고 밤을 새워 달려가는 우리의 붓!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우리 시인들이 한생을 쓰고 대를 이어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할 시의 원천이다.

위인은 하늘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말은 그만큼 범상한 사람들은 범접할수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뜻일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늘이다.

그러나 우리곁에 언제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끼는 하늘이다.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인덕의 화신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스스로 우리곁에 오시여 우리 작가들을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청해주시었고 우리의 얼굴을 잘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쓴 한편의 작품까지 다 보아주시고 따뜻한 가르치심을주고계신다. 바로 이러하신 위대한 령도자께서 우리를 향도해주시고 우리 운명을 보호해주고계시며 우리는 그이와 운명이 결합되어있고 자기의 모든것, 자식들의 미래까지 그이께 의탁하고있으니 우리 시인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나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뻐하시면 그 순간에 붓을 들게 되고 그이께서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것을 우리 알게 된 그순간에 붓을 드는것이 우리 시인들의 습관처럼 되었다. 이것이 운명의 어버이에 대한 자식된 도리이고 또한 보람이고 행복이 아니겠는가.

인류의 유구한 흐름과 함께 시문학의 력사도 흘러왔고 수많은 시인들이 유명무명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갔지만 그 어느 시대의 어느 시인이 당의 시인이라는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워본적있었던가.

당의 시인- 그것은 력사의 방향타를 틀어쥔 위대한 타수의 키가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시인은 음풍영월이나 노래하고 비좁은 생활의 율타리안에서 시정이나 돈구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와 력사를 한가슴에 안고 위대한 령도자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인류의 진보와 전진에 기여하는 가장 긍지높은 존재로 된것이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의 시인》으로 우리 시인들을 불러준 그 대오의 한 성원으로로서 시의 무기로 그이를 옹호하며 이 무기로 그이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에 언제나 명중탄만을 날리며 그이께서 당에 충직한 시인이 되기를 바라신 그높은 뜻을 온갖 창작적열정으로 심장을 태우며 변함없이 지키고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이 수기의 지면을 통하여 인민들과 동료작가들앞에 다지는데바이다.

## 가사

# 장군님과 전사

김봉운

장군님은 전사들을 사랑하시네  
전사들은 장군님을 우러러 받드네  
분계선 초소에서 식사도 나누시며  
사랑과 충성의 새 력사 펼쳤네  
아 장군님과 전사는 한가정 한식술  
생사운명 같이하는 한가정 한식술

장군님은 전사에게 영광주시네  
전사들은 장군님만 믿고서 따르네  
령마루 초소에서 사진도 함께 찍어

믿음과 효성의 성새가 빛나네  
아 장군님과 전사는 한피줄 한숨결  
떨어져선 살수 없는 한피줄 한숨결

장군님의 마음속에 전사들 있네  
전사들의 위훈앞에 장군님 계시네  
백두의 붉은 기발 지키는 한길에서  
신념과 의리로 백승을 떨치네  
아 장군님과 전사는 한마음 한모습  
온 세상에 빛발치는 한마음 한모습

## 백두광명성 솟아오른 영광의 집을 찾아서

최성진

보위색정복에 혁피를 꼭 졸라매고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단정하게 쓴 단발머리 녀강사가 우리 앞에 나섰다. 녀강사의 목소리는 밀영지의 청신한 대기와 그리고 연록색의 수려한 숲과 잘 어울리었다. 숲속의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소리처럼 랑랑한 목소리였다.

해빛은 눈부시었다. 나무잎사귀들이 사랑거리며 무수히 반짝이었다. 소백수는 은구슬을 날리며 소란스럽게 흘러내리건만 나에게는 골안이 숙연하게만 느껴졌다.

거대한 화강암을 다듬어 세운 송시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활달한 필치 그대로 송시가 새겨져 있었다.

녀강사는 송시를 다 읽고나서 위대한 수령님을 여기에 모셨던 그날의 사연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 강사의 목소리는 차츰 떨리더니 아름다운 두눈에 자욱히 물기가 서리었다. 목소리는 갑자기 끊어졌다. 흐느끼는 것이었다. 밀영지의 해별에 가망게 살갓이 탄 강사의 얼굴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걱정이 어려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련희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광의 땅에서 혁명사적지강사로 있는지도 여려해째이다. 련희강사의 눈곱에 고여오르는 이슬에는 사연이 있다.

몇해전 여름이었다. 그날은 백두밀영에 비가 내리었다. 부드러운 비발속으로 뜻밖에도 수령님께서 오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달려나온 사적지일군들을 반갑게 만나주시며 수고한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사적지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여기 송시비도 보아주시고 밀영의 고향집도 찾아주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 정다운 소백수의 물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옛집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감회가 깊으셨으랴. 조국광복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백두밀영의 그 나날들과 함께 해방된 조선의 미래를 밝히실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랐다고 온 골안이 환희에 넘쳐있던 그날을 추억속에 그려보시었으리라. 바로 그날처럼 소백수의 물소리도 유정하고 골안의 무성한 나무들도 그날의 나무들이고 숲속의 작은 귀틀집도 그날의 모습을 잃지 않고있는 소백수골안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세월이 멀리 흘러와 팔십고령의

몸으로 유서깊은 이고장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고향집을 돌아보시고 떠나실때 사적지 해설강사들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서운하시어 여기 송시비앞에서 한사람한사람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떠나가시다가 사자봉밀영강사를 차에 태우고 다시 오시어 그 녀강사에게까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서야 귀로에 오르시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운 것이 마지막으로 될 줄이야 이제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사적지 참관을 마치고 떠나는 우리들에게 련희강사가 눈물에 젖어 하던 말이었다.

우리는 뜨거워지는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는 송시비앞을 떠나 고향집으로 향했다.

길은 소백수기슭을 따라 나있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구슬같은 맑은 물이 소리치며 흘러내린다는 소백수는 정일봉에서 20리밖에 있는 소백산에 시원을 두고있다. 골안은 가문비, 분비, 황철나무, 박달나무, 이깔나무, 붓나무들로 무성한 수림을 이루었다. 해별이 스며드는 절벽밀의 안침진 곳들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털고비가 자랐다.

고향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동기와를 올린 수수한 귀틀집이었다. 뒤에는 정일봉이 거연히 솟아 바람을 막아주고 주위에는 키 큰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 숲을 이루어 안정감을 주는 숲속의 집이었다. 바로 이 집에서 다가오는 세기를 비쳐줄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것이었다.

짓밟힌 조국강산에 바야흐로 해방의 려명이 비쳐오던 1942년 2월 16일! 그날 소백수골안에는 전례없이 세찬 눈보라가 일었다. 골안어구에서부터 터져오른 바람이 눈보라를 날리었다.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온통 하얀 눈보라속에 잠기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사납게 뒤채이며 웅웅거리어었다. 골안은 바람소리, 밀림이 설레이는 소리로 차고 넘쳤다.

이 유난스러운 자연현상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바로 이날에 소백수골안은 크나큰 경사를 맞이했다. 백두산장군이 탄생하신 것이었다. 그이는 김정일동지이시었다. 백두는 위대한 아들을

축복하여 하늘 가득 은빛보라를 날리었다. 투사들은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라 조선에 대통운이 되었다.

서로서로 얼싸안고 감격에 겨워했으며 밀영지의 나무들에 글을 남겨 조선의 행운을 세상에 알리었다.

《아 조선아 겨레들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조선아 만방에 웨치라 백두광명성 탄생을!》

《동포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에 김대장 뜻이 광명성 솟았다》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독립조선의 대통운》

《조선의 영광 백두광명성 만세》

송엄한 마음으로 구호목을 돌아보고나니 고향집의 웅자가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자기의 옛모습을 그대로 지니고있었다.

정일봉이 품에 안아 세월의 비바람, 눈비를 다 막아주며 고향집을 고이 지켜온것이였다.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방금 아드님을 잠재우시고 동자질을 끝내신듯 정갈한 부엌의 당반우에는 군용밥통이며 단지며 놋그릇, 양푼, 버치며 목초롱이 알뜰히 정돈되어있었다. 기름을 먹인 가마들은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흘렀다. 잠시 자리를 뜨셨던 어머님께서 금시라도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들어서실것만 같았다. 주변의 무성한 나무들만이 세월의 흐름을 증명해주고있었다. 지금은 아름답기가 된 마당가의 저 이깔도 그때에는 청춘기였을것이다.

고향집방안에는 어리신 아드님께서 사용하시었던 얇은 책상과 놀이감권총, 쌍안경, 쪽무이포단이 그대로 보관되어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백두산의 아들은 호화찬란한 저택이 아니라 바로 밀림속의 이 소박한 귀틀집에서 사나운 백두의 눈보라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자라신것이다.

지세를 봐도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집은 그 위치부터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은 여기서부터 직선거리 백리안팎이다. 백두의 줄기를 타고 솟아있는 소백산이 지척에 있는가 하면 고향집을 품고 우뚝 솟아있는 정일봉뒤에는 사자봉이 있다. 백두산지구에 분포되어있는 비밀근거지들중의 하나였던 사자봉은 거대한 사자가 적수를 노리며 웅크리고있는 모습이다. 그러고보면 못짐승들의 제왕인 사자는 백두의 아들이 탄생한 고향집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이 내려보낸 수호신이나 아닌가.

백두광명성의 탄생은 력사의 땅에 수많은 전설을 남기였다. 장수의 장검마냥 소백수풀안을 지켜 어구에 날카롭게 솟아있는 장검바위며 하늘을 날으는 룡마를 방불케 하는 룡마바위에도 그리고 고향집앞에 있는 해돋이바위에도 신비의 전설이 깃들어있다.

나는 고향집프락을 벗어나 소백수가에 있는 샘물터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끓어오른다. 백두의 천지에 시원을 둔 샘줄기도 위대한 아들을 위하여, 이 력사의 고장을 위하여 순간도 멈춤없이 지심깊이에서 티없는 맑은 물을 뿜뿜 퍼올리는것이리라.

저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처럼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될것이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전도양양할것이다.

나는 찬란한 태일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여기 고향집을 떠났다.

## 가사

# 생명보다 더 귀중해

리춘건

인생의 길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황금도 재부도 아닌  
참다운 삶을 꽃피워주는  
사상과 신념이 더 귀중해  
아, 우리의 신념과  
생명보다 더 귀중해

혁명의 길에는 무엇이 소중한가  
명에도 보수도 아닌  
붉은기아래 가장 떼떈한

사상과 신념이 더 귀중해  
아,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생명보다 더 귀중해

승리의 길에는 무엇이 빛나는가  
피어린 언덕을 넘어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킨  
사상과 신념이 더 귀중해  
아,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생명보다 더 귀중해



## 월비산은 길히 전하리

박근원

### 영원할 자욱

언제나 마음속에 게서도  
언제나 가까이 뵈고싶어도  
하도 멀리 있어  
하도 험한곳이어서

뵈겠다는 말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우리 장군님을  
마음속에만 모시고 살던 병사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장군님 오셨다!  
-만세! 만세!-  
병사들 웨치는 환성

아, 이는 기쁨에 앞서  
목을 꼭 메우는 뜨거움의 환성  
굽이굽이 백오십굽이 이 험한 령길에  
우리 장군님을 모시다니...

-장군님 여기만은  
여기만은 못오르십니다  
병사들 눈물 머금고 막아서며  
마음속 말씀 올렸건만  
굽이굽이 험산준령길에  
사랑의 자욱 찍으시는 장군님

우리 왜  
그리도 가까이 뵈고싶던  
장군님이신데  
오늘의 이런 날은 상상못했을까

우리 오늘의 이날  
꿈속에서라도 그렸더라면  
험한 벼랑을 다 허물어서라도  
평탄한 길 만들고  
굽이굽이 좁은 길 곧게 펴  
넓은 길 펼쳤으리

하지만 지금껏 그 누가  
우리 장군님 모신다고 상상이나 했으랴  
적들과 코를 맞대고있는 최전연  
험산중에서도 제일 험한  
심심산중 여기에-

이곳에만은 이곳에만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셔선 안된다  
이것이 여기 병사들 지닌  
깨끗한 의리와 량심이였거니

허나 우리의 장군님께선  
월비산발전소를 건설한 군인들  
소문없이 큰 일을 했다시며  
자욱자욱을 찍고 또 찍으시여라  
굽이굽이 좁고 험한 령길우에  
하늘높이 치솟은 언제우에...

령장의 거룩한 그 자욱  
힘준한 산발 여기 령길과 함께  
력사에 길이 빛나리  
병사들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으리!

### 산중의 호수여

무인지경 심심산중에  
이 세상의 청신함 다 안겨주려  
즐기즐기 뻗어내린 험산 여기에  
푸르른 하늘 안아다  
산중의 은빛호수 펼쳤느냐

최전방의 한적한 산중 초병들에게  
갈매기 날아에는 푸르른 바다를 주려  
드넓은 동해를 이리로 옮겨왔느냐

산중의 호수여



내 너앞에 서고보니  
 너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  
 내 언제까지건 이렇게  
 이 자리를 뜨고싶지 않구나  
 영영 이렇게 선채로 굳어진대도  
 후회됨이 없으리

소문도 없이 누구도 모르게  
 해발 천미터 령우에 생겨난  
 황홀경의 너를 두고 생각도 끝없구나

새겨보며 더듬노라니  
 아, 아니구나  
 산중의 호수여 너는  
 자연이 베푼 《덕택》 속에 태어난  
 그런 경치 아니구나

너를 지켜 하늘높이 치솟은  
 거창한 언저리에 새겨져있구나  
 《자력갱생 간고분투》  
 《조국은 병사들의 위훈을 잊지 않으리!》

자력갱생, 간고분투  
 병사들의 위훈  
 이것이구나  
 이 산중에 너를 안아온것이

산중의 호수여  
 너의 그 푸르름은  
 하늘에 닿은  
 장군님 결사옹위정신  
 이 땅에 영원히 간직하려는  
 병사들 그 의지  
 네 그리 아름다움은  
 장군님 받드는 병사들 량심  
 순결한 그 위훈 안고있기때문이지

산중의 호수여  
 내 가슴속에 고여있는 불타는 맹세  
 너의 깨끗한 은빛수면우에 새기고  
 너의 푸르름 너의 아름다움  
 이 피끓는 심장속에 받아안노라

## 심산속의 《보물》 집

후방은 멀리 뒤에 두고  
 코앞에는 적소굴인  
 여기 최전방 심심산속에  
 자그마한 귀틀집 한채 있어라

오늘은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너무도 수수한 집  
 이 집이  
 월비산발전소 건설장의 소박한 수리소여라

다듬지도 않은  
 가독나무아지 엮어  
 벽체를 만들고 지붕을 씌우고  
 석비레흙으로 매질한 집

키작은 사람도 허리를 굽혀야 들어서고  
 천정엔 가독나무잎새들이 매달려있는  
 아, 내 지금껏  
 늘 보아오던 집과는 너무도 다른 집

집안에 있는 재산이란  
 더 보잘것 없구나  
 낡은 기대 몇대  
 두드려 만든 몇대의 기계...

허나 내 이 집앞에서  
 걸음을 뻗수 없구나  
 이 작은 귀틀집 여기서

발전소 착공의 첫삽도 출생했고  
 마사진 전동기도 양수기, 변압기도  
 여기서 재생되었고  
 기증기의 《악새팔》도  
 여기서 나왔거니

한꼬치의 쇠불이가 귀해  
 박달나무를 깎아 메달을 보장하고  
 전기가 없을 땐  
 손으로 선반을 돌려  
 부속품을 깎은곳도 이 집  
 수백건의 창고고안 기술혁신이  
 창조된것도 이 집이었더라

눈에 보이는건 소박해도  
 모두가 심장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너무도 소중한 《보물》 뿐이로다  
 그 아무리 큰 집 재산이라도  
 그것은 한집에 채우면 그만  
 하지만 여기  
 심산속 귀틀집 《재산》은  
 온 나라 집집에 채우고도 남으리

오, 정녕 이 집은  
 억만재부 채운 고대광실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식의 《재산》이 가득찬 집  
 백두의 병기창과 처마를 잇대인  
 이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 집이여라

## 심장의 구령

구령이란 입으로  
사람들을 한곳으로 떠미는 웨침  
군사행동에서는 순간도 땄수 없는것

허나 여기  
월비산발전소 건설장엔 없었구나  
입으로 웨친 구령이

어렵고 위험한 전투장마다엔  
입으로 웨치는 구령이 아니라  
지휘관의 밝은 얼굴이 있었더라  
천길벼랑우에 꼬불꼬불 굽어쳐간  
아슬한 령길로 대형설비 끌어올릴 때  
쇠바줄 맨 화물차와 화물차  
그 운전칸마다엔 있었더라  
지휘관들의 웃음뎌 얼굴이

기중기의 전동기가 땀을 때  
아찔하게 쳐다보이는 공중수리장에도  
있었더라

세찬 비바람 한몸으로 막아  
수리공병사들의 심장 뜨겁게 달구어준  
정치위원의 웃음뎌 얼굴이

수십메터 높이의 좁은 언제우에  
혼합물운반화물차를 기중기로 들어올렸을 때  
그 자동차운전칸에도 있었더라  
부대의 지휘관이

돌이켜보고 또 보아도  
여기 월비산발전소 건설전투장엔  
구령을 치는 사람이 없었더라  
오직 입가에 웃음뎌  
지휘관, 정치일군들의 얼굴이 있었을뿐

전투서열 앞선에 선  
웃음뎌 지휘관, 정치일군들의 얼굴  
여기서 병사들은 받아안았더라  
-나를 따라 앞으로!  
심장의 뜨거운 이 구령을

## 월비산의 불빛

천연암반 물길을 뚫고  
철관로를 따라 내쫓는  
월비산의 폭포, 폭포...

오, 네 이름난 큰 폭포처럼  
그렇게 장엄함은 없어도  
그 기질, 그 용맹은  
그 무엇도 들부실 기상이로다

적소굴을 단매에 요정널 슬기를 안으시고  
거창한 언제우에 높이 서시여  
최전연 방선 굽어보시던  
강철의 령장 우리 장군님  
그 기상, 그 의지 비졌는가  
장군님의 명령 목숨으로 관철한  
병사들 그 삶의 억센 숨결 실었는가

꼬리를 물고 내쫓는 폭포, 폭포  
육중한 수차를 벼락같이 내리치며  
퇴성의 메아리되어  
방선의 고지에 울려퍼져라

아, 메아리 메아리  
그 메아리에서 불꽃이 날렸는가

심산속의 불꽃바다

보면 불수록  
가슴 부풀게 하는 승업함이어  
어찌먼 여기서 보는것 모두가  
이 심장 그리도 세차게 두드리느냐

전초선의 산천 붉게 물들이는 불꽃빛  
하늘의 별무리 그대로 내린듯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인들  
이보다 더 밝고 아름다우라

허나 사람들이여  
아름다운 정서로만 감수하지 마시라  
최전연 전방초소에 펼쳐진 이 정경을

황홀한 저 불꽃빛은  
우리 장군님 병사들의 심장에 심어주신  
사랑과 열정 불타오른 빛  
미래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친  
우리의 미더운 군인영웅들  
그 정신 그 넋이 불타며 밝히는  
영원한 월비산의 불빛이여라!

##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김려숙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학의 가장 숭고한 사명과 임무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형상하여 수령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혁명적 문학이라고 하여 그 모든 문학이 이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문학예술의 거장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의 주체문학에서만 빛나게 수행될수 있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일찌기 수령의 문학, 당의 문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성격과 사명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주체문학건설의 핵으로, 그 생명을 담보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창시하시고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하시였으며 그 창작실천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수령형상창조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수령형상창조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형상창조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품위있고 격이 높게 창조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여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의 형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형상을 부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발휘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를 높이 존경하며 따르고있습니다.》**

수령의 위대성, 위인의 품모는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나타나고 빛을 뿌린다.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수령의 인류력사에서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장군님 뿐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인민을 세상

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인민에게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지도자, 령도자의 전형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헌신적복무정신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처럼 내세우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리론과 령도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며 정치의 근본을 이룬다 정치도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이며 령도도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령도이며 품모도 인민에 대한 사랑의 품모라는데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특한 사상과 령도, 품모의 위대성이 있으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효성, 보답이 따르는 여기에 장군님과 우리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혈연적관계가 있다.

우리 문학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그리는것은 이처럼 수령형상창조의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된다.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의 형상을 부각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히 주신 3위일체의 원칙과 수령형상창조에 고유한 미학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요구를 비롯하여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독창적인 창작리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3위일체의 원칙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창작원칙이다.

3위일체의 원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를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3위일체의 관점과 립장에 설 때에는 수령을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보면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형상하게 된다. 그러나 3위일체의 관점과 립장에 서지 못할 때에는 수령을 당과 대중과 동떨어져있는 개인으로 형상하게 되며 따라서 수령의 역할을 옳바로 형상할수 없게 된다.

3위일체의 원칙과 함께 수령형상작품에 고유한 생리를 특색있게 살리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자기의 고유한 생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독창적인 창작리론을 철저히 구현

하여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품위있고 생동하게 부각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현실을 뜨거운 심장을 안고 체험하며 거기서 만민이 칭송하는 위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소리높이 구가할수 있는 심오한 철학적종자를 잡는것이다.

우리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심오한 철학적종자를 잡자면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을 뜨겁게 대하는 정책적, 예술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는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이다.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떠나서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을 리해할수 없고 그 본질을 밝혀낼수 없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는 일심단결의 완벽성과 공고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정치적생명체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 근저에는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혈연적인 관계가 놓여있다.

우리 작가들은 언제나 인민속에서 활동하며 인민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대중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가 어리어 이 땅 그 어디나 장군님의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천년세월 흐른다 해도 경애하는 장군님한분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받들어나갈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굽이치는 우리의 현실을 뜨거운 열정으로 감수하고 체험해야 한다.

더우기 사상도 정도도 품모도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서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아버지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그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피눈물로 삼키며 우리 인민이 백배천배의 힘과 용기로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세계 전진하고있는 이 위대한 현실에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참으로 눈물없이 볼수 없고 걱정없이 대할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충효의 이야기로 수놓아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인가. 어제는 최전연초소와 외진 섬초소를 찾으시여 무적의 장군, 천출명장의 담력과 지

략으로 온 세계를 진감시키고 위대한 아버지사랑으로 우리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가 하면 오늘은 또 창립 50돐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하시여 온 나라를 크나큰 걱정애 휩싸이게 하시였으니 정녕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에 바치시는 장군님의 그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를 되새길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은 쇠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며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이 더욱 굳세여진다.

작가들은 바로 이 현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운명을 같이하는 이 위대한 현실을 열렬히 긍정할 때 그리고 거기서 커다란 사상정서적충격을 받고 창작적열정에 불탈 때 철학성있는 종자를 잡게 되며 그것을 형상적으로 꽃피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 정치를 감동깊이 보여줄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집약화된 심오한 철학적종자는 커다란 력사적사건에는 물론 그저 스쳐지날수 있는 자그마한 사건이나 사실, 평범한 일상생활속에도 체현되어 있다. 그것은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로 충만된 우리의 생활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가 구현된 뜻깊은 생활들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가 꽃피어나는 우리 인민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그 대상속에 생동하게 체현되어있는 종자를 발견해야 하며 현실에서 받은 충동과 예술적 표상을 가지고 진지한 창작과정을 통하여 생활에서 발견한 종자를 작품의 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의 형상을 부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여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수령의 위대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는 내면세계를 펼쳐 보여주는데서 뜨겁게 나타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 탐구의 세계는 상상할수 없이 깊고 폭넓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때문에 마음쓰신다.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불편함을 자갠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어느 한밤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장군님, 수난에 찬 남녘의 동포들을 걱정하시며 한밤을 고스란히 지새우시는 우리 장군님,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 우리 인민모두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생활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언제 한번 마음쓰시지 않은 날이 있었겠는가.  
우리 문학은 충성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의 바다를 펼치시는 위대한 인간세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그려야 한다.

위인형상에서도 내면세계묘사에서 다양한 수단과 수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일수록 수령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묘사가 더욱 자유분방하게 펼쳐져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인간상이 여러 각도에서 묘사되어야 한다.

내면세계는 마음속생각에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내면세계를 보여주는데서는 심리묘사의 다양한 수법을 잘 리용하는것과 함께 대사나 외형,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에서도 인물의 내면세계가 잘 드러날수 있도록 그 묘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수령의 심리세계를 작가나 제3의 인물의 시점에서뿐만아니라 수령의 시점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수령을 주체문학의 제일주인공으로 높이 내세우고 수령의 위대성,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여러 각도에서 자유분방하게 묘사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분단 39년만에 드디어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게 된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장편소설 《푸른 하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그이의 사색과 심오한 체험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여러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때문에 걱정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할 자신의 사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며 사색에 잠기시는 숭고한 모습을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허담비서와 고운학부총리 그리고 북조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최성덕의 시점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특색있게 탐구묘사하고있다.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의 형상을 부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간관계에서 수령과 우리 인민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깊이있게 밝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것은 작품의 철학성을 생활적으로 담보하며 인물들의 형상을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의 위대성을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형상할데 대한 요구는 구체적으로 수령과 인민

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실현된다고도 말할수 있다.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수령과 인민사이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되는것이다.

수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특성을 띠고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 혈연적누대로 되고있으며 수령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를 하고 령도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정치적보호자와 전사, 아버지와 자식사이의 혈연적관계이다.

이로부터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에는 믿음과 사랑, 충성과 효성의 관계가 있게 되며 이것은 우리 문학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의 기초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룬 장군님의 위대성을 부각시키자면 그것을 공식적인 관계로 그리지 말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설정하고 그려야 한다.

그래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에서 범접할수 없는 경계와 울타리를 친듯한 감을 없애고 인민대중과 자그마한 간격도 없는 친근한 아버지수령으로, 친부모와 같은 위대한 인간으로 형상할수 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과 관계를 맺는 인물들의 성격을 잘 그려야 한다.

수령과 관계를 맺는 인민은 실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들이다. 이러한 인민의 전형들은 인민대중과 혈연적관계속에 있는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효과있게 복무하는것으로 하여 형상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문학에서는 충신의 전형들인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좌하는 인물들, 측근인물들로부터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형상에 장군님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사는 성격적핵을 심어놓고 그들의 개성을 잘 살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형상한 작품들을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적인 수령형상창작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충신, 효자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참관기

# 향도의 자욱 빛나는 문화예술부혁명사적관을 찾아서

2월의 명절이 아직 열흘남짓이 앞에 있는데 수도의 거리들에는 벌써부터 명절맞이단장을 시작했다. 사람들의 걸음새들에서도 얼굴들에서도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기쁨에 설레는 듯한 표상들이 안겨온다.

우리도 민족최대의 명절맞이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경애하는 장군님의 향도의 자욱이 어린 문화예술부혁명사적관을 찾아 참관의 길에 올랐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구내에 건설되어 있는 사적관은 1관, 2관으로 웅장하게 건설되어있었다. 우리는 먼저 1관에서 해방후부터 나라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여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듣고 2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관정문에 들어서니 앞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기 위한 촬영현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한낮의 무더위도 아랑곳 앉으시고 타래쳐오르는 검은 연기속에 서시여 《피바다》의 촬영장면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마냥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이런 시간이, 이런 날들이 모여 우리 영화예술과 주체예술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였으리라.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영화예술의 빛나는 개화발전을 위하여 기울여오신 로고가 깃들어있는 2호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리정희강사는 우리 영화예술의 빛나는 발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5년 6월초 예술영화촬영소를 본보기단위로 꾸리시기 위한 구상을 안으시고 촬영소에 나오시여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를 지도해주신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쪽벽에는 예술영화 《내가 찾은 길》의 창조성원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이 모셔져있는데 그 아래는 연출가 천상인에게 보내주신 우리 함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영원히 한길에서 싸워나가자고 쓰신 장군님의 친서가 전시되어있었다. 그

친서를 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김혁의 수첩에 남겼던 잊지 못할 글발이 떠오르며 우리 심금을 울리어준다.

계속해서 강사는 한상의 뜻깊은 사진을 가리키었다.

《이 사진이 예술영화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의 야외촬영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당시 영화예술인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지 못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부족하다보니 몇해전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데 대한 교시를 받고도 5년이 넘도록 만들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실태를 속속들이 료해하시고 이 영화창작사업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작품이 완성되자 배우들이 문학과 대본을 원만히 통달하게 하시고 1968년 8월 12일에는 함흥지구에서 진행되는 야외촬영을 몸소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평양시 전경도를 직승기를 타고 찍으려 할 때에는 비행기의 진동으로 해서 영화화면에 미치게 될 미세한 현상까지 헤아려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릴 화면에는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시며 친히 촬영일정까지 짜주시고 촬영전날에는 텔레비존방송탑에 오르시여 촬영위치와 구도까지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68년 10월 10일 아침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창작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텔레비존방송탑에 예술인들만 보낼수가 없어서 자신께서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서 빨리 탑에 올라가 촬영하자고 하시며 먼저 렌즈통을 드시고 150미터나 되는 높은곳으로 오르시였다.

촬영준비를 끝내고 촬영을 하자고보니 구도상 촬영기는 란간끝으로 썩 내밀어야만 하였다. 150미터의 높이를 헤아리는 전망대, 자칫하면 돌이킬수없는 일이 생길수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구도경을 들여다보시더니



촬영기를 란간끝으로 더 바싹 내밀라고 하시며 친히 촬영기다리를 잡아주시고 한손으로는 나이는 촬영가의 허리를 잡아주시었다. 그 위대한 사랑에 받들려 촬영가는 평양시 전경화면을 력사에 길이 전하는 명화폭으로 담게 되었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린 작품으로 완성되게 되었다.

사적관에는 그날 친애하는 그이께서 잡아주신 촬영기며 촬영기렌즈통이 전시되어있었다. 사적물을 여겨보는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의 사적물이 그저 범상하게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진 나날속에 우리 주체영화예술의 빛나는 변혁이 이루어졌기때문이다.

다음으로 강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지도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신 내용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이 영화를 지도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를 발표하시고 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영화완성을 위해 무려 120여차례 지도를 주시고 3부까지 보는데 8시간씩 걸리는 장편영화를 16차례나 보아주시면서 이 작품을 혁명전통주제의 본보기영화로, 인민상계관작품으로 되게 해주시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속에 생생한 그 모든 영화들에 친애하는 그이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음을 새삼스레 느끼며 3호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3호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기 위한 혁명적영화전통을 마련해가시던 날들에 바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9년말~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시여 공연하였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1969년 신파군 령성영화촬영장에서 **《피바다》**의 야외촬영을 지도하신데 이어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기까지 무려 124차례 지도를 주시었다. 장군님께서 야외촬영시 왜놈《토벌》대의 총쏘는 연기가 어색하다고 하시면서 몸소 소도구권총으로 총쏘는 동작을 가르쳐주시였으며 실내장치물로 만든 을남의 집과 야외에 설치했던 을남의 집이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며 세세히 그 차이점을 지적하시었다. 원래 을남의 집장면을 야외에서도 찍고 실내에서도 찍었는데 그 누구도 실내장치물의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예술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야외에 설치된 을남의 집 토방이 좁 높고 집옆에 드리운 나무가지도 처마밑으로 더 내리드리웠다시며 실내장치물을 고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 차이는 불과 몇센치 불과하지만 고전적명작을 영화로 옮기는 창작사업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었다.

일군들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문영화계에서 오래동안 일해왔다는 자기들도 미처 가려보지 못한 미세한 차이점까지 발견하시는 그이의 예술적천품앞에 진정으로 감복하여마지 않았다.

마을 《토벌》장면을 찍을 때에는 몸소 현지에서 우리 조선인민들이 죽더라도 왜놈들에게 끝까지 항거하다 죽는것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고 그이의 건강을 넘려하는 일군들에게는 그러지 말고 연막도 더 피우고 불도 더 질러 실감있게 형상해야 한다고 하시며 오랜 시간 예술인들과 함께 창조사업을 지도해주시었다. 하여 2일동안 계획하였던 장면촬영을 하루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세계사를 돌이켜보건대 어느 나라 력사에 이런 예술의 영재를 모신적이 있으며 이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예술창조사업을 한 예술인들이 있랴.

생각할수록 가슴 후터워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우리가 걱정에 잠겨있는데 강사는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길 때에도 세심한 령도와 은정깊은 사랑을 들려주시었다 한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촬영시 왜놈수비대놈들의 연회상을 보시고는 연회상에 오른 맥주상표가 진짜와 꼭 같다고 치하해주시고 령하 30~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속에서 하루 150미터씩 촬영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해가는 배우들이 수고한다고 비행기로 배우들에게 입힐 솜웃이며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그러시고도 후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여기에 전시된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한 장면을 보시면서 몇 해전 세상을 떠난 한 배우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해주시었다.

《꽃파는 처녀》창조사업을 지도해주시면서는 꽃분이 어머니의 죽음은 자연현상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빛단련에 못이겨 숨지는것으로 해야 하며 꽃분이형제가 약사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에서도 처량하게 남의 집 처마밑에서 비를 굶는것으로

하지말고 어머니의 약을 마련한 기쁨에 찬 모습으로 설정하여 감정축적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여 오늘과 같은 명음악이 안받침된 명화면이 태어날수 있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속에서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혁명영화들과 함께 《자신에게 물어보라》, 《생의 흔적》을 비롯한 명작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오늘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련속 창작되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내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는 주인공들의 심장의 웨침이 시대의 찬가로 메아리치고있는것이리라.

우리는 이어 문학, 가극, 음악, 교예, 미술 등 문학예술의 전분야를 지도하신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깊은 감회속에 전해들으며 그이에 대한 절절한 흠모심으로 언제 강의가 끝났는지 느끼지 못했다.

우리가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예술적천품을 지니고계시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령도예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뵈어오르는 경모의 정에 잠겨 있는데 강사는 1964년부

터 1993년 2월까지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장군님의 지도는 10,847차례나 되고 현지지도만도 1,724차례나 된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말아보시면서 하신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주요지도가 1만여차례라니 정녕 그이의 로고를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을 것인가.

리정희강사는 강의를 끝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적관을 찾는 외국의 벗들이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받들며 그분의 슬하에서 진정한 예술을 창조해가는 조선인민이 부럽다고, 당신들이야말로 참 행운아들이라고 하는 경탄에 찬 목소리를 들을때마다 정말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행복감에 휩싸여 그분의 전사된 도리를 다해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듯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은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 더 이채롭게 만방에 빛을 뿌리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신심드높이 사적관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종성

## 수놓는 녀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남녘녀인들이 정성의  
선물을 삼가 보내었다-

김훈(남조선)

일광이 비친 비단  
월광이 비친 비단  
쌍무지개 선을 둘러  
만수무강 수를 놓네

창밖에선 바람차고  
눈서리가 사나워도  
초불 밝은 이 방안은  
벌써 봄날이라

수틀옆에 둘러앉은  
남해의 녀인들이  
바늘끝 모인 눈길  
푸기도 하울시고

겨누어 꽃을 때는  
꽃에 붙는 나비런듯  
돌리어 뿔을 때는  
물을 차는 제비런듯

성글세라 겹칠세라  
조심조심 살필 때는  
호수같은 맑은 눈에  
별이 촌촌 비치는듯

오리오리 서린 정성  
만백성의 정성이요  
꿈결에도 잊지 못할  
그리움이 서렸구나

구홍빛 붉은 천에  
일월같은 글자들이  
줄줄이 돌아나니  
아직은 어두운 짓밟힌 땅에서도

지도자동지 우러르는  
분결같은 마음들이  
2월을 축하하며  
꽃밭으로 되었구나

## 대흥단향취

박정애

2월의 평양아침은 햇شم같이 포근한 흰눈송이들로 은빛세계를 이루며 해빛속에 눈부신 설경을 펼쳐보인다.

뜻깊은 명절을 경축일색으로 곱게 단장하듯 아침도 거리의 앙상하던 가로수며 가로등의 모자우에 그리고 새들이 이따금 앉아있곤하는 전선줄에 이르기까지 하이얀 꽃풍경은 그야말로 기묘묘한 절색을 이루었다.

심신을 상쾌하게 돋구어주는 이 화원속으로 출근길 재촉하는 흐름과 함께 나도 작은 물결을 일으키며 평양역을 지나가고있었다.

《엄마, 우리 고향 대흥단에는 눈바다, 눈산일거야요.》

《그렇지 않구, 떠나올 때도야 가랑없었으니...》  
채롱겨운 아이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며 서로 주고받는 목소리의 주인들을 나는 발걸음을 늦추며 바라보았다.

알지 못할 두 얼굴...

녀자에는 앵두볼에 웃음담뱃 어려있어 한낮에 한껏 웃는 새별같은 눈으로 귀염성스러운 모습을 하고있었고 중년의 녀인은 활달해보이는 성격에 있어서나 차림새를 한눈에 보아서는 대흥단에서 온 사람이라고 단정할수 없었지만 복관사투리만은 조금도 감출수 없게 하였다.

아침의 이 경치에 매혹된 나를 눈속의 대흥단이 부르는것이 아닐가.

대흥단!

몇번이나 불러보는 내 눈가에는 얼마전에 다녀온 대흥단 읍거리와 흥분속에 잠 못들던 그밤이 떠오른다.

10월도 다 지나간 마감날이었다.

백두삼천리벌을 걸어본 부푼 마음을 녹찰힐길 없어 서성거리는데 려관앞 소흥단수가 어찌도 나를 부르는지 저도 모르게 발길이 끌리어 나섰던 것이다.

어디로 갈가?

종잡을수 없어하는 나에게 처녀같이 예쁘장한 눈길을 정겹게 보내는 가로등빛이 무엇인가 속삭이고있었다.

굴뚝없이 서있는 집들의 밝은 창문마다에는 초면에도 반겨맞을 곡진한 인정미가 따스하게 흐르고 집에 들어서면 알뜰거리는 전기온돌우에 어서 앉으라고 권할것만싶은 후더움이 앞서는 복관사투리와 부엌의 전기밥가마 끓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싶다.

나라의 도움없이 자체로 전기를 일쿠어쓰고도

남는 이곳을 둘러볼수록 나의 생각은 소리없이 깊어가는 밤처럼 흘러갔다.

다섯개의 중소규모발전소를 가지고있는 자력생의 군!

혼자소리로 외워보던 나에게는 한낮에 신흥분장분장아바이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기에 석탄과 세멘트가 있으면 제일 잘사는 곳이지요. 그러나 석탄문제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풀었는데 세멘트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발전소말이 났으니말이지 저 5호발전소, 4호발전소며 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낸것이지요.》

발이랑처럼 주름깊은 얼굴에 그날을 새겨보기라도 하듯 눈을 가느스름히 떠보이더니 다시금 말을 이었다.

《진짜배기 일군은 김성진책임비서쎄다. 처음에 경험도 없었고 기술자도 없었지만 그 일을 작전하고 설계하고 내민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두만강물줄기를 따라 오르내리며 얼마나 걷고 또 걸어서 찾아낸 발전소자리인지 말로는 다할수 없습니다.》

진대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앉은 골짜기로 아침이슬에 바지가팽이를 후줄근히 적시며 찬비에도 아랑곳 없이 걷고걸었을 책임비서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가에 안겨오는것 같았다.

씩 침착해보이면서도 무뎠 일군이라기보다 친정집아버지를 만난듯한 친절감이 분장장의 눈빛에서나 손세에서까지 정깊게 보여왔다.

《내가 한번 건설장에 나갔을 때였수다. 그때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였는데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애송이 아이들을 데리고 천막을 치고 함께 일하지않겠습니까. 책임비서가 어려운 고비에서 물러서면 발전소건설을 다그칠수 없다는거지요.》

끝없이 이야기는 길었다.

신흥분장의 사래긴 이랑보다, 아니 줄기줄기 끝없이 이어지는 온 벌을 한줄로 렬을 세운대도 이야기의 끝은 모자랄것 같았다.

압축기가 없어 함마로 굴을 뚫고나가던 이야기, 광차용 레루를 몇미터씩 구해다 자체로 기술혁신하여 성과를 올리던 이야기...

나라의 전기를 쓰면 편안할텐데 사서 고생한다고 투정질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타일러주고 끝까지 공사를 내밀어 여기에 전기를 끌어온다는것은 꿈같은 소리라고 하던 사람들앞에 꿈은 멀리 에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당정책집행에서 물러설 줄 모르는 책임비서의  
웅고집을 당할 사람은 아마도 이 대흥단안팎에  
없을것이라고 덧붙여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나는 그날 고집쟁이란 말을 새로운 의미로 들  
었으며 그것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  
해서는 더 다른 길 없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이  
뿌리내린 사람의 자세, 그 한길밖에는 다른 길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이 일군의 정신이 아니겠  
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자세와 립장이 군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하나가 아니라 다섯개씩이나 번듯하게 일떠세우  
고 풍만한 전기화의 동음소리 높이 울리게 하였  
던것이다.

이처럼 많은 발전소를 가진 자랑부푼 읍거리를  
거니노라니 전쟁이 끝난 이듬해 봄날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소흥단수에 손을 잡  
고시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들려오는듯했다.

수령님께서 이 농장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발  
전된 농장으로 꾸리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오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것이라고,  
우리 나라를 발전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겠는가 하고 하시며 자신  
께서도 어서 어른이 되어 큰일을 많이 하고싶다  
고 뜨겁게 하신 그 말씀.

그이께서는 오직 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어가는  
전사의 충효심을 벌써 10대의 어린 나이에 투철  
하게 지니고계시였다.

장군님의 그 말씀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걸  
음걸음 20여년을 충성의 일편단심, 효성의 천만  
리를 헤쳐온 책임비서 김성진.

이런 일군이어서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수령  
님의 구상을 제일먼저 꽃피워가며 생각도 말도  
걸음도 한자세로 사는 책임비서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며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고 다시  
자기 대오에 세워주는 크나큰 믿음과 신임을 안  
겨주신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찾아갔던 신흥분장에서도 첫 이야기부터  
책임비서가 많은 일을 했다고 말쑥지를 떼고 가  
는곳마다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민이 사랑하는 사람은 장군님이 사랑하는 사  
람이며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인민이 사랑  
하는 사람이다.

신흥분장과 서두분장, 홍암분장을 비롯한 정갈  
한 규격포전들, 밭목이 폭폭 빠지는 기름진 옥토  
를 한줌 쥐여보아도 진걸음 지고 나르던 그 자욱  
을 속삭여주고 천리방풍림을 걸어도 남몰래 바쳐  
온 그 수고많은 땀에 더 검푸러진듯 속삭여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날부터 백두산을  
넘나드시며 눈여겨 보아두시고 공산주의지상락원  
으로 꾸리시려 오래전부터 안고오신 대흥단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의 한끝을 가장 가까이  
당겨오시여 농사문제, 전기문제, 생활문제 등  
어느것 가림이 없이 다심하게 보살피주신 대흥단  
종합농장.

찬비내리는 벌을 걸으시며 손수 땅을 파보시며  
서 종파분자들의 잔피를 짓부시고 아버지수령님  
께서 땅에 숨결을 주실 때 우리 장군님께서 사  
랑의 품에 뜨겁게 안으시고 해마다 수많은 기계도  
보내주시고 은정을 베풀어주신 행복한 대지.

하늘도 그리웠던 땅이 사회주의 번영을 제일먼  
저 노래하는 변천지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펼쳐져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공산주의 새 세상에 문열고 들  
어선듯한 황홀감에 휩싸여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공산주의는 결코 먼곳에 있는것이 아니였다.

수령님의 구상을 더 활짝 꽃피우시려는 장군님  
따라서 오직 자기 손, 자기 힘으로 주저없이 동  
요없이 나갈 때 더 가까이 오는것이다.

유난히 밝은 달을 둘러선 방풍림가지에 꽃초롱  
처럼 걸어놓고 끝없이 속삭이고싶던 못잇을 밤,  
자랑주머니를 한껏 터쳐놓고싶어하던 류다른 정  
이 잇당은 고장이였다.

대흥단!

평양에서 대흥단은 얼마나 먼곳이라.

하나 전기도 쓰고남고 식량도 자급자족하고 기  
계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는 자력경쟁의 모범군  
으로 장군님의 심장속 가장 가까이에 있고 붉은  
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온 나라의 앞장에 서  
있다.

장군님의 사상과 장군님의 의도대로 사는 고장  
은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곳이 따로 없다.

2월의 아침이어선지 장군님께로 달려던 그고장  
사람들의 마음이 평양으로 달려오는것 같았다.

그것은 전선천리를 끝없이 이어가시며 《고난의  
행군》길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단신으로 온갖 원  
썬들과 포성없는 격전을 치르시느라 순간도 휴식  
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을 백두삼천리벌에 모시고 하루라도 기쁨속에 계  
시도록 해드리고싶다던 대흥단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저 기적소리에 담아 싣고오는듯하기때문  
이다.

아마도 것처럼 행복한 보급자리로 더 빨리 달  
려가고싶은 갈망을 저 대흥단녀인과 아이는 눈속  
의 고향모습으로 불러낸것이라.

설경속의 대흥단...

출근길을 재촉하는 나의 눈가에 서리꽃핀 대흥  
단의 절경이 펼쳐진다.

아버이수령님의 한생념원이 현실로 꽃피어난  
백두삼천리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안고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의 백두삼천리로...

## 《우끼시호마루》 선원의 수기

리명균

(전호에서 계속)

《어서 가서 그자를 체포하게! 실수없이...》

《알았습니다.》

나는 힘있게 돌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일인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힘을 주어 손잡이를 비틀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출입문은 밖으로 굳게 걸려있었다. 나는 문을 흔들어도 보고 잡아채보기도 했으나 마치 못을 굳게 박은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의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즈미선장의 얼굴이 거뿔게 변색하였다. 선장은 한숨을 지었다. 로선장은 즉각 사태를 판단한것이었다.

《우리가 늦었다. 선수는 저자들이 먼저 쏘다.》

로선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다가오더니 부르짖 주먹으로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문을 열라! 비렬한 새끼들, 문을 열라!》

밖에서는 아무 응대도 없었다. 이즈미선장은 언뜻 생각이 미친듯 탁자우의 통화구앞으로 성큼 성큼 걸어가 스위치를 넣으며 격노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누가 문을 걸었는가? 문을 열라!》

통화구에서 기관장 구보나의 석심한 목소리가 들어진 가락으로 울려왔다.

《선장님, 너무 고함을 지르지 마십시오. 쓰까다부선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마젤란전법을 적용했다고 하던데요.》

《마젤란전법이라니?!》

《세계일주를 하면서 마젤란이 변절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선장님도 잘 아실텐데요. 변절자를 유인해서 무인도에 먼저 내리게 하고 자기는 배를 몰아 달아났지요. 무인도에 혼자 남은 변절자는 발바닥이나 핏다가 굼어죽었을겁니다. 선장님도 지금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절한 자식! 너도 쓰까다의 수족인가?》

《성내지 마십시오. 선장님, 무인도에서 성을 내야 놀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감금된 우리 두사람의 처지는 절망적이였다. 놈들은 선손을 썼고 선장과 나는 쓰까다일당의 범행을 저지시킬 힘이 이미 없었으며 4,721명의 조선사람을 구출할 방도가 없는것은 물론 자기자신의 생명도 구원할 도리가 없었다. 선장까지 감금한 쓰까다의 기탄없고 단호한 행동으로 보아 그가 계획하였던 범행을 기어이 결행하려고 작정하였음이 명백하였다. 그는 이미 마지막

선을 넘어서는것이였다. 쓰까다와 같이 욕망만으로 사는 인간들은 동정도 자비심도 없으며 또한 주저도 동요도 없다. 욕망은 의도를 낳고 의도는 곧 행동으로 이행된다. 아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후 통화구에서 바로 쓰까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는 매우 침착한 어조로(그것은 승리자의 어조였다)이렇게 권고하였다.

《선장님, 우리사이에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배의 운명은 내 손에 쥐여져있습니다.

마지막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별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행동에 가담하십시오.》

《비렬한 자식, 나는 살인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다시 숙고하십시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 말하지 말라. 나는 죽어도 너와 같은 악당들과 공동행동을 하지 않는다.》

《너무 성급히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말하지 말라. 나는 죽겠다. 각오했다.》

《선장님이 죽는다고 4,700여명 조선인의 운명이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네놈은 그런 천인공노할 도살행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것 같은가?》

《왜 무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도 파선원인을 알수 없지요. 우리는 공해상에서 폭발을 일으킬것이고 조선인은 전원이 죽을것이며 우리 30명 선원은 전원이 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배는 기관고장으로 침몰되었다고...》

《네놈들은 사회적인 의심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인은 전원이 죽고 선원들은 전원이 살아남은 괴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천만에, 그런 우려는 조금도 필요없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뱃트를 타고나가다가 2~8마일쯤 되는곳에서부터는 뱃트를 버리고 헤엄을 쳐서 물에 오를것입니다. 뱃트들과 구명대들은 다 조선인승객들에게 제공했는데 운행이 서툴고 헤엄이 서툴러 모두 전복되고 빠져죽었다고 하겠습니다.》

선장님과 하야시는 구원하다가 운명을 같이했다고 하지요. 보시는바와 같이 우리는 용의주도하게 타산했습니다. 선장님의 명예까지 고려했지요.

그리고 이런 면밀성이 없어도 온 나라가 혼란의 와중에 휩쓸려든 패전국 일본에서 <우끼시호마루>의 운명쯤 별로 관심하는 사람도 없을것입니다. <우끼시호마루>의 비밀은 영원히 바다밑바닥에 퇴적층과 함께 가라앉아있을것입니다. 선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행동을 같이해주시요.》

《아니다.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한생을 너와 같은 군국주의 악당들의 폐임에 들어 죄를 많이 졌다. 이제 또 새로운 범행에 끼여들 생각은 전혀 없다...》

이즈미선장은 대답하고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야야시, 군은 어떻게 하겠는가? 저자들에게 넘어가겠으면 넘어가라구. 군은 아직 젊었으니 죽음이 너무 이르다고 할수 있어.》

내가 선장의 권고에 대답하기도전에 통화구에서 쓰까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야야시는 넘어온대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자는 아무 쓸모도 없는자입니다. 내가 선장님에게 거듭 권고를 드리는것은 도시표를 생각해서입니다.》

선장은 왈각 성을 내었다.

《도시표라는 이름을 입밖에 내지 말아! 더러운 자식! 네놈의 입에 오르기에는 우리 도시표는 너무도 순결하다.》

## 5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이 선장과 함께 감금되어 버린 나는 위험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안소영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한것이 더없이 통분하고 안타까웠다. 그 마쓰시다감판장이 불려세웠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중감판으로 달려내려갔어야 하는것이다.

그놈이 덮치려들면 주저없이 때려눕히고 안소영에게 달려갔어야 하는것이다. 그 어떤 격투도 불사했어야 하는것이다. 다른 무엇을 더 고려할 여지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악당들의 희생물이 되게 되었으니... 악귀들의 제물로 4,7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도록 만들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미칠것만 같았다.

안소영에게 알려주었다면 4,7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분기시킬수 있고 그러면 음모자들을 제어하던가 최소한 희생생을 축소시킬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황보상과 같은 유능한 조직자는 기뢰가 폭발되기전에 4,700여명의 분노를 폭발시키기 위한 그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을것이다. 뽀트를 탈취하는것도 한방법일수 있다. 그것은 악당들의 퇴로를 차단하는것과 흡사한 효과를 낼것이며 퇴로가 끊어지면 비열한자들이 저들의 목숨이 아쉬워 모험을 중지할수도 있는것이다. 아,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는가?! 왜 안소영을 찾아 중감판으로 가면서 소풍을 하듯 천천히 걸었는가? 내가 좀더 빨리 걸었다면, 돌진하듯 달렸다면 일이 다르게 될수도 있지 않았는가? 수습할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것을... 모든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그릇된 판단에 원인이 있었다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면서 나는 두손으로 머리를 부둥켜안고 몸부림을 쳤다. 후회막급이었다. 땅을 치고싶었다. 분하고 또 분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한가닥의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다. 마지막순간에 쓰까다가 생각을 바꾸지는 않겠는가? 그도 인간의 허울을 썼으니... 혹시 공모자들 가운데 쓰까다의 팔을 붙잡는 사람이 있거나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기대는 헛된것이였다.

폭발은 밤 3시에 있었다.

지심속에서 울려오는것과도 같은 둔중한 폭음과 함께 지진과도 같은 세찬 충격이 선체를 진동시켰으며 배는 문득 전진을 멈추었다. 잠시후 갑판과 선실들에서 아우성이 터져올랐고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몇분후 갑자기 직격탄을 맞은 고층건물이 무너지듯 선체가 해체되는것과도 같은 붕괴가 일어났다.

이즈미선장이 벌떡 일어서다가 무엇에 치인듯이 쓰러지면서 피로운 신음소리를 내었다. 달려가 부축하던 나는 이즈미선장의 안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음을 깨달았으나 그와 동시에 나 자신의 몸통이가 휘뿌러지면서 후두부에 강한 타격을 느끼었으며 의식이 혼미해지는것을 감각하였다. 끝내 일을 저질렀구나. 이 악귀들이... 하는 분노를 최후로 의식하였다.

악당들은 폭파시간도 가장 효과적인 시각을 노린것이였다. 밤 3시면 모든 승객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떨어지는 시간이다. 그 어떤 저항도 있을수 없다. 4,721명 전원이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장될것이다.

내가 얼마동안이나 혼미상태에 있었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식이 들었는데 나중에 판단한것이지만 그것은 차거운 바다물의 폭포를 얼굴과 온몸에 들쫓기때문이었다. 선체가 붕괴되면서 선장실도 해체되었는데 바다물이 세찬 흐름으로 소용돌이쳐 들어오면서 나에게 찬물의 충격을 준것이였다. 그것은 마치 악형을 받고 혼미상태에 빠졌던 피심문자가 한바께쓰의 찬물이 끼얹혀지자 의식을 회복하는것과 흡사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잠자고있던 사람, 아무런 예고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식이 들었다 해도 영문을 알수 없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행동을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의식이 드는 순간 어떤 사태가 벌어졌고 내가 어떤 정황에 놓여있었다는것을 즉시에 상기하였다. 가슴이 터지는것과도 같은 격노의 분류를 느끼었으며 동시에 쓰까다일당의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반항심을 의식하였다. 반항심은 투지를 주고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선장실의 붕괴는 나의 몸에 세찬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출구도 마련해주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였다.



선장실안에 바다물이 가득찼을 때 나는 숨막히는 고통속에 몸부림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많은 물이 일시에 들어올수 있었다는것은 커다란 탐사리가 생겼음을 의미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 어디에 상당한 크기의 간격이 생기었을것이다. 간격즉 출구가 생기었다. 그렇다면 거기서 빠져나갈수도 있지 않겠는가? 수영에는 자신이 있다.

쓰까다움을 구원해준적도 있다. 그때 나는 쓰까다눔에게 구명대를 양보하고 20마일을 헤엄쳐서 물에 올랐지. 쓰까다, 네놈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구나...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출구는 있는듯하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을 가지고 최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는 신심을 잃지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출구를 찾기 시작했으며 고통스러운 모데김끝에 마침내 바다물위에 솟구쳐올수 있었다.

캄캄한 밤이었다. 달도 없었다. 별빛도 보이지 않았다. 해면우에는 짙은 안개가 덮여있는듯하였다. 조선인 승객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가? 뽀트나 구명대를 리용한다면 몇사람이라도 구원될수 있을것이지만 그것들은 미리 다 처리해버렸을것이니 불의에 재난을 당한 조선인들 가운데 요행 물위에 솟구쳐오른 사람이 있다 해도 구원될 가망은 없을것이다.

문득 그리 멀지 않은곳, 어둠속에서 집채같은 검은 룬락이 소용돌이치는 파도속으로 잠겨들어가는것이 보였다. 그곳으로 시선을 돌린 나는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는 《우끼시호마루》의 조타실지붕과 굴뚝을 알아보았다.

물우에는 더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순간전까지 5,000톤급의 수송선 《우끼시호마루》가 떠있었다는것을 증명할 아무런 흔적도 바다우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나는 안개에 휩싸인 공간 어딘가에서 바쁘게 노젓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울려오는것을 가려들을수 있었다. 그것은 쓰까다일당이 해적무리들처럼 황망히 도망쳐가는 소리였다.

그외에 다른 음향이나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파도소리만이 온 공간에 가득차있을뿐이었다.

조선인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횡사를 당한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고향집에 들어서는 꿈을 꾸고있었을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아이고, 네가 돌아왔구나. 왜평은 사지판이러는데 용케 죽지 않고 살아돌아왔구나!》

기쁨과 눈물의 이러한 상봉이 4,721명 전원에게 가능했던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은 모두 수장을 당하고말았다.

아, 안소영도 희생되었을것이다. 용서해주오.

나는 음모를 알고있으면서도 막지 못했소...

## 6

나는 구사일생으로 물에 가닿는데 성공하였고 집에 돌아올수 있었으나 전혀 기쁘지 않았으며 한주일동안 인사불성이 되어 앓았다.

몸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을 때 내 머리에 제일 처음으로 떠오른것은 《우끼시호마루》사건의 진상을 만천하에 공개해야한다는 생각이였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평화를 위해 악당들에게 타격을 가할수 있는 마지막방법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앓는 동안에 발간된 신문을 한장 가져다주었다. 쓰까다부선장님의 허위담화가 실려있는 신문이였다.

《입을 꼭 다물고있거라. 입을 벌리면 너는 죽는다. 네가 혼자서 그 사건을 어떻게 증명하며 또 누가 믿겠니? 증명할 방법도 없거니와 네가 나서면 쓰까다네 패거리들이 하루밤사이에 너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릴것이다. 너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것이 좋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

인생경난을 다 겪은 아버지의 사고방식은 나와 같지 않았으며 패전으로 하여 뒤죽박죽이 된 당시의 혼란된 상황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종전이 되었다고는 하나 패전에 악이 난 군국주의 잔당들이 아직도 큰 세력으로 준동하고있었고 점령군과의 결탁의 길을 모색하면서 재생을 준비하고있었다. 만약 내가 군국주의잔당들의 발악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우끼시호마루》사건의 진상을 공개한다면 그들은 이리떼처럼 달려들것이였다. 내가 살아있다는것만을 알아도 쓰까다는 용서하지 않을것이였다.

그러나 어떻게 침묵하겠는가?

침묵한다는것은 비겁한 일이며 그것은 또 하나의 최악이고 쓰까다일당에게 간접적인 지지를 주는것으로 된다. 안소영, 황보상, 그리고 희생된 4700여명의 조선인들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

침묵할수 없다. 《우끼시호마루》사건을 공개하는것은 량심인 아니, 인간의 의무이다.

그러나 내가 불현듯 뛰쳐나가 어느 신문사를 찾아갈수 있다고 우려한 아버지는 나를 간호하면서 잠시도 내결을 떠나지 않고 감시하였다. (어머니는 지난봄 대풍습때 폭사하시였다)

어느날 저녁 아버지는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좀더 참아라. 이제 말할수 있을 때가 올것 같다. 듣자니 지금 제일동포들로 무슨 단체를 무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 동포들의 조직이 나오면 그 조직에 의거해서 그 사건을 공개할수 있을것 같다.》

《우리 동포라니요?!》

나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생각깊은 시선으로 창너머 먼곳을 바라보고계시었다.

《우리 조선동포말이다.》

《우리 조선동포라우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었다. 아버지는 그리 즐기 않으시는 담배를 붙여두시었다. 그리고 몇모금 빠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제는 너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온것 같다. 놀라지 말아.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뭐라우요?!》

《지난 8월 15일, 우리 나라가 광복되었을 때 즉시 말해줘야 할것이였다단 지금까지 일본사람 행세를 해오던 처지라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 어쩐지 입이 열리지 않더구나. 제 목숨하나 살리자고 오랜 세월 왜놈의 허울을 쓰고있었으니 갑자기 조선사람으로 나서기가 죄스럽고 또 창피하였다. 그렇지만 너야 모르는 일이었고 본의가 아니었으니 부끄러울게 없지.》

《우리가 조선사람이란 말입니까?!》

나는 얼빠진것과도 같은 상태, 마치 이 지구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행성에 불현듯이 내린 사람이 느낄수 있는 그런 기이함과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되물었다.

《조선사람이다. 차근차근 이야기할터이니 귀담아들어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면 기미년만세가 있는 다음해부터 이야기해야 할게다. 기미년만세가 무엇인지 너는 아마 모를테지. 조선독립을 찾자고 2,000만 민족이 모두 떨쳐일어나 삼천리강산을 만세의 함성으로 뒤덮은 일이 있었지. 수만명의 애국자들이 왜놈들의 총칼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여쓰러졌다… 그 이듬해에 제주도에 살던 립가성을 가진 19살총각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땅으로 건너왔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시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립가성을 가진 총각은 일본땅에 올라섰으나 돈 한푼 없고 일자리도 쉽게 차례지지 않아 이곳저곳 방랑하게 되었다.

어느날 청년은 요코하마교외에 있는 《게다》(일본나막신)를 만드는 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야시 류노스께라는 문패가 붙어있었다. 하야시를 립가라고 생각한 청년은 반가움을 느끼였고 주인을 찾았다. 하야시라는 일본성과 조선의 립가사이에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지만 주인은 청년의 커다란 손과 순박한 눈을 보자 그를 고용하는데 동의했다. 어수룩해보이는 식민지청년이 성실한 일꾼이 되어주리라고 타산했기때문이었다. 그날부터 청년은 땀을 흘리며 톱질과 대패질에 몰두하였고 통나무운반을 도맡았다. 그 집에서는 실상 고용인을 둘만한 형편이 못되었다. 기계라고는 물레대패 하나가 있을뿐 온 가족 즉 주인부와 딸과 어린 아들이 모두 로동에 참가하는 수

공업자의 가정이었다. 드센 일손을 가진 청년이 근면하게 일하자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주인집 식구들이 청년에게 호의를 보였다. 그런데 관동대진재가 일어났다. 관동대진재는 도쿄, 요코하마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전무후무한 대참화였다. 수십만호의 가족이 불에 타고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죽었다. 그런데 악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혼란속에서 엉뚱하게도 《조선인 사냥》을 시작하였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준비한다는 터무니없는 루언을 퍼뜨리었다. 그것은 지진피해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항심을 탄데로 돌리기 위한 간악한 모략이었다.

경찰과 군대와 헌병들, 불량배들이 연기에 싸인 거리들을 휩쓸며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붙잡아 살해하였는데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아이들의 목을 자르는 악행을 주저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판자벽과 기둥에 비끼려매놓고 톱으로 팔다리를 잘라내고 식칼로 눈을 도려내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불과 18일사이에 도쿄에서만도 근 7,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살인귀들은 조선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고아대면서 조선사람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은 무조건 붙잡아세우고 《15원 50전》이라는 말을 외워보라고 강요하였다. 비읍발음에서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조선사람을 가려낼수 있다는것이였다.

청년이 고용되어있던 집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부모와 아들이 불에 타죽고 딸과 청년이 살아남았는데 거리를 수색하던 헌병놈들이 청년을 붙잡았다. 놈들은 청년에게 《15원 50전》을 발음해보라고 하였다. 청년은 입을 벌릴수가 없었다. 발음을 하면 조선사람이라는것이 탄로되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때 주인집 딸이 무릎을 꿇고 헌병의 다리에 매어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다.

《이분은 병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저의 남편이예요. 제가 대신 발음하겠어요. 15원 50전…》

청년은 구원되었다. 처녀는 평소에 청년에 대해 각별한 호의와 동정을 가지고있었는데 위기가 닥쳐오자 목숨을 걸고 막아나섰던것이다. 이것이 인연으로 되어 결국 둘은 결혼하였고 다행히 성한채로 남아있는 물레대패에 의지하여 살림을 다시 추켜세웠다. 청년은 이때부터 이 집 주인이 되었고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겼으며 하야시로 불리웠다. (립가성은 일본식으로 부르면 하야시가 된다.)

다음해 겨울에 부부사이에는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돌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젊은 안해가 비탄에 잠겨있던 어느날 새벽 이 집현관앞에서 흰옷 입은 한 조선녀인이 돌이 지

났을가 한 젓먹이를 품에 안은채 몸이 굳어져있는것이 발견되었다. 너인은 얼어죽었는데 불쌍한 어머니가 체온이 식는 마지막순간까지 자기 몸으로 감싸준 젓먹이는 천행으로 숨이 붙어있었다.

너인의 품속에서는 또한 봉투가 한장 나왔는데 요꼬하마 항만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고향에 보낸 편지였다. 보아하니 그 봉투의 주소를 믿고 조선에서 남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온 너인이 틀림없었다. 남편을 찾아오던 길인지 아니면 항만공사장에 찾아갔으나 남편이 없어 돌아가던 길인지... 가진것이 없고 일본인들의 동정을 기대하지 않은 너인은 주인을 찾지 않고 벽에 기대앉아 로숙을 하다가 동사한것이었다.

림씨부부는 그 아이를 죽은 친아들 대신에 기르기로 하였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그런즉 나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이지... 너의 양어머니도 꼭사 할 때까지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었다나.》

나를 낳아주고 림종의 순간에도 자기의 체온으로 내 생명을 지켜준 불쌍하고 고마운 어머니가 있었음을 모르고 나는 23살이 된 지금까지 살아온것이었다. 아아.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기억에 없는 어머니... 아아, 나에게 그런 불행한 어머니가 있었구나... 가난하고 불쌍한 조선의 너인을 나는 어머니로 가지고있었구나. 나는 조선사람이구나. 바다에 수장된 4,721명과 똑같은 피를 가진 조선사람이구나. 쓰까다가 것처럼 미워하던 황보상과 똑같은 민족,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안소영과 똑같은 피줄기의 동포이구나...

나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있는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오열이 터져나오는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내가 울고있다는것을 의식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나는 가까스로 흐느낌소리를 억누르고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의 고향이 어디인지,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릅니까?》

《모르지... 아니, 알수 있다. 편지봉투가 있다. 거기에 이름도 있고 주소도 써여있단다.》

양아버지는 의롱속에 깊이 간수하였던 봉투를 꺼내었다. 22년전의 검누렇게 변색한 봉투였다.

봉투 표면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평안남도 맹산군 내석교리 박순너

그것은 얼어죽은 나의 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다시금 눈곱에 내고이는 뜨거운 이슬을 의식하면서 봉투를 뒤집었다. 뒤면에는 나의 친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을것이었다.

봉투를 뒤집은 나는 어룡거리는 눈물속에서 글자들을 한자한자 힘들게 뜯어 읽었다.

요...꼬...하...마...항...만...공...사...장...황...

보...상...

마지막 세글자를 읽은 나는 돌연히 감전된 사람처럼 후닥닥 놀랐다.

황...보...상...?!

나는 그 글자들을 다시 읽고 되읽었으며 스무번도 더 반복하여 읽었다.

틀림없는 황보상이었다. 안소영이 친아버지처럼 돌보아드리던 사람, 담가우의 환자... 쓰까다가 그렇듯 증오심과 공포감을 안고 잠재적인 적수, 불구대천의 원수로 치부하던 사람... 쓰까다가 나에게 테로를 하라고 강요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친아버지였던 말인가?!

허둥거리는 나의 거동을 의혹어린 눈으로 주시하고있던 양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친아버지를 뵈었습니다...》

《뭐?!》

《친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나를 안고 만나려고 왔다가 못만나고 가신 그 친아버지를 저는 뵈었습니다.》

《어데서?!》

《<우끼시호마루>에서...》

《<우끼시호마루>?》

《<우끼시호마루>에서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우끼시호마루>와 함께 수장되셨습니다. 그 배에 아들이 있다는것도 모르고... 이 불효자식은 아버지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기에서 끊어졌다.

×

나는 이 글이 고소장 또는 증인의 진술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것을 고려하여 원고에 씌인 일본문 그대로 출판하기로 하였다. 내가 가필한것은 《<우끼시호마루>선원의 수기》라는 제목뿐이었다.

원고를 출판에 회부한 다음 나는 교외에 있는 송현모동포의 집을 찾았다.

송현모동포는 나를 뒤뜰로 안내하였다. 10평도 되나마나한 뜰이었다.

《바로 여깁니다. 우리 애는 고등중학교 3학년생인데 자기네 동급생이 애나무모를 선사해서 그걸 심자고 구덩이를 팠지요. 바로 이 애나무밑입니다.》

연두빛 측백나무였다.

《그 동급생은 식물학에 특별한 취미를 가진 학생인데 1학년때 조국을 방문하고 갖가지 꽃나무와 떨기나무의 씨앗들을 받아다가 자기가 직접 종자처리까지 하여 나무모를 자래워서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조국의 향기를 느끼게 하자는 생각에서이지요.》

《참 기특한 학생이군요. 뜻도 가특하고 재간도

비상하군요.》

《그런데 그 재능있는 학생이 바로 이틀전에 죽었습니다.》

《예?》

《일본 불량청년들이 지하철역에서 생트집을 걸다가 단도로 등을 찔렀습니다. 불량배들은 도주하고 학생은 치명상을 입어 30분후에 절명하였습니다. 우리에는 지금 그 학생의 추도식에 갔습니다.》

군국주의 후예들의 준동은 여러가지 형태로 지금도 계속되고있었다.

송헌모동포는 근심스레 뇌었다.

《일본불량청년들의 준동이 근절되는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수가 엄청난 수자에 이르고있습니다. 정부당국자들의 폭언과 정비례해서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군국주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것은 필요한 일이다. 사죄는 커녕 악행을 반복하고 조장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고있는자들을 세계의 면전에서 발가벗겨야 한다. 나는 <우끼시호마루>선원의 수기》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간행된다고 생각하였다.

×

《<우끼시호마루>선원의 수기》가 발간된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날 편집부로 한 일본부인이 찾아왔다.

부인은 높이 들어올린 머리에 희슬희슬한 빛이 섞여있었고 눈귀에 잔주름이 그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미모를 잃지 않고있었으며 몸가짐이 매우 정중하였다. 옷차림도 세련되어 있었다.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나서 부인은 물었다.

《<우끼시호마루선원의 수기>를 낸 편집부지요?》

《그렇습니다.》

《독자의 한사람으로 좀 물을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저... 그 수기가 왜 이제야 출판되었는지요?

35년이 지난 다음에...》

《35년동안 땅속에 묻혀있었습니다. 그 원고는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원고가 출현한 경위와 장소에 대하여 자상히 설명하였다.

《그러면 책에는 조금도 허구가 없습니까?》

《원고가 쓰여진 그대로 출판했습니다. 지금 조선문판이 준비되고있지만 이미 간행된 책은 필자의 념원을 존중해서 하루라도 빨리 발간하려고 일본문 그대로 출판하였습니다. 문장도 다듬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요?》

《우리도 모릅니다. 주소도 생사도 모릅니다. 원고가 지금까지 묻혀있었던것으로 보아 필자가 그것을 찾을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생존해있지 않는것으로 저희들은 풀이하고있습니다.》

《...》

부인은 서글픈 표정으로 침묵하였다.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물었다.

《실례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인님은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의견이 있는것은 아십니까?》

부인은 한순간 난처한 기색을 띄었고 쓸쓸한 표정이었으나 잠시후 호- 하고 깊은 한숨을 짓더니 대답하였다.

《숨겨서는 무엇하겠습니까?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저의 부친의 사망경위를 알게 되었어요. 책에 몇군데 나오는 도시꼬... 제가 바로 그 도시꼬입니다.》

《아, 이즈미선장님의 따님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침몰되는 배와 함께 순직하였다고 생각해왔는데... 알고보니 피살이었던가...》

부인의 하얗게 빛을 잃은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고있었고 눈귀로부터 맑은 눈물이 방울방울 굴러내리고있었다. 보배 부인은 행여 책에 허구가 들어있어 아버지가 음모의 희생자가 아니기를, 아버지의 죽음에는 불명한것이 있기를 원하면서 그 근거를 얻기 위해 편집부를 찾아온듯하였다.

부인은 자기의 기대가 헛된것임이 확인되자 견잡지 못하고 초면인 내앞에서 눈물을 흘리었으며 오열이 터져나오려는것을 가까스로 제어하였다.

부인은 무척 피로와하였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리고싶으나 차마 그렇게는 할수 없어 피눈물을 삼키며 참고 참는듯한 모습이였다.

한참후 내가 따라놓은 차물을 한모금 마시고나서야 부인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기야... 무고한 조선인 4,721명의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슬픔에 비길 때 저의 아버지의 죽음과 저의 피로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선장으로서 그 참화를 막지 못한 저의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는것을 저는 잘 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 수기에도 명백히 쓰여있는것처럼 이즈미선장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악당들과 싸우셨지요. 우리 인민을 동정한 량심적인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다는것을 저희들은 잊지 않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다시금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덮이는 눈물을 씻었다.



잠시후 나는 또 물었다.

《혹시 부인님은… <우끼시호마루>선원들중 살아있는 사람들을 더러 모르십니까? 아직 생존해있는 선원들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는 다 60~70객이 되었겠지만.》

부인의 단아한 얼굴에 다시금 경련이 지나갔다.

대답을 기다렸으나 부인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나는 말을 이었다.

《저희들은… 물론 이것은 억측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고의 필자가 살아있는 <우끼시호마루>선원들 특히 부선장 쓰까다 가쓰지같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수 있었을것이라고… 비밀루설을 막기 위해 그런 악행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

《생존해있는 선원들을 찾아낸다면 필자의 그후 운명을 알아내는데 실머리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선원들에 대해 알고계시거나 소식을 들으신 일은 없습니까? 고 이즈미 데쓰조선장님의 령전에 분향을 하려고 찾아오는 선원들도 있을수 있겠는데요? 모름지기 쓰까다 가쓰지같은 사람은 누구보다 앞장서 찾아올수 있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부인은 집요하게 침묵하고있었다. 이상스레 입술을 꼭 옥물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몇순간후 나는 창백하던 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협심증환자처럼 재빛으로 변하는것을 보았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어데 편치 않습니까?!》

부인은 졸도하였다.

부인은 구급차에 실려갔다.

부인은 몇분후 소생되었으나 의사는 실신원인이 심한 정신적충격으로 인한것이며 절대안정이 필요하므로 저녁까지는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면회를 엄금하였다.

저녁에 병원으로 찾아가니 부인은 이미 병실에 없었다. 자택으로 돌아갔다는것이였다.

《퇴원했단말지요?》

간호원이 설명하였다.

《부인님은 한동안 안정을 하시고나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분후 아드님이 차를 타고와서 모셔갔지요. 아드님이 총무청의 아주 높은 고관 이시던데요.》

《총무청 고관? 이름은 뭐라고 했소?》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 우리 파장선생님이 아실거예요. 파장선생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과 면식이 있는것 같았어요.》

나는 파장실로 갔고 잠시후 부인을 데려간 총무청 고관의 이름이 쓰까다 유끼오라는것을 알았다.

쓰까다!

불쾌감을 주는 성이였다.

물론 쓰까다라는 성자체를 나무랄수는 없고 또 《우끼시호마루》의 부선장만이 쓰까다일수 없으며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은 일본땅에 많고많을것이지만 나는 참을수 없는 혐오감이 치솟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쓰까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끼시호마루>도 폭파하고 도시꼬도 손에 넣겠소!》라고 했다는 쓰끼다 가쓰지의 목소리가 증폭되어 뇌리에 울린탓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자는 충분히 그럴수 있는 무뢰한이다. 그런 파렴치한들이 무슨짓인들 못하겠는가?

나는 빨리 만나고싶은 초조감에 모대기면서도 도시꼬부인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그리고 레의를 고려하여 닷새가 지나간 다음에야 부인을 방문하여 매듭짓지 못했던 담화를 끝내려고 쓰까다 유끼오의 저택을 찾아갔다.

총무청 고관 쓰까다 유끼오의 저택은 도시의 변화가가 멀리 눈아래에 굽어보이는 높직한 언덕우 풍치좋은곳에 위치하고있었는데 매우 호화로웠으나 이상스레 한적하고 침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 하녀가 나왔다.

그런데 도시꼬부인에게 용무가 있어서 왔다는 나의 말에 하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인님은 별세하셨는데.》

《뭐요?! 별세하다니?! 언제 그렇게 되었소?》

《4일전에… 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4일전이면 부인이 실신하였다가 소생된 바로 그다음날이 아닌가?

《부인님의 남편이… 쓰까다 가쓰지씨지요?》

나는 내 짐작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쓰까다 가쓰지라는 악당이지요?》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는것을 제어하기 위해 나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였다.

하녀는 말끄러미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를 만나게 해주오. 그 악당이 아직 살아있단말이지?》라는 말이 나오려는것을 나는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억누르며 침착을 회복한 다음 불의에 물었다.

《부인님은 자살이지요?》

《…》

하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침묵은 곧 긍정을 의미한다.

나는 도시꼬부인의 죽음이 리해되었다. 자기가 한생을 살인귀와 부부로 지내왔다는것이 확인되자 더 참지 못하고 독약을 마셨을것이다. … 《우끼시호마루》사건의 희생자가 또 한사람 늘었구나 하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쓰까다가 어떤 방법으로 도시꼬를 유혹했는지

는 알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즈미선장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극복했다는 식의 허위적인 무용담으로 아버지의 최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어린 처녀의 환심과 동정을 사기 시작했으리라는 것은 십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쓰까다 가쓰지를 만나 그가 지금 어떤 물결로 있으며 안해의 죽음을 어떻게 리해하고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쳐 생각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다. 쓰까다 가쓰지는 기자의 사업대상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의 사업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편집부로 돌아오면서 나는 앞으로 기회를 보아 쓰까다 도시표 아니, 이즈미 도시표의 명전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리라 작정하였다.

# ×

그러나 아직 수수께끼는 남아있었다.

필자의 그후 운명이였다. 그는 그뒤 어떻게 되었으며 원고를 왜 보온병속에 넣어 땅속에 묻었는가?

이 수수께끼는 반년후 매우 우연한 기회에 풀리였다.

어느날 나는 66살에 난 사게이 게이조라는 로인이 상해죄로 시경찰에 구속되었다는것을 보도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환갑이 훨씬 지난 로인이 누구를 때리다가 체포되었다는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게다가 사게이라는 범인의 성이 어딘가 귀에 익었다. 사게이... 어디서 이런 이름을 들었던가? 한동안 기억을 더듬은 다음에야 나는 《우끼시호마루선원의 수기》 어느 모퉁이에 사게이라는 성이 있었다는것에 생각이 미치였다. 추적해보자, 흥미있는 일이다.

《우끼시호마루》와 조금이라도 련관이 느껴지면 무조건 추적하고 탐문하는것이 어느덧 나의 습관으로 된것이였다.

며칠후 알아내데 의하면 피해자는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는데 놀랍게도 총무청 고관 쓰까다 유끼오였다. 피해자인 쓰까다 유끼오가 오히려 이 불유쾌한 사건을 없었던것으로 치부해주며 가해자인 사게이를 석방시켜달라고 경찰에 리면 공작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내였다. 역시 흥미있는 일이었다.

사게이가 벌금을 물고 석방된 다음 그를 만나 약간한 노력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

사게이는 훌쩍하게 여윈 늙은이로 수염이 텁수룩했고 옷차림도 어지러운 편이였다. 그의 인생이 화려하지 못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료정의 별실에서 그와 마주앉았는데 술을 보자 그는 활기를 띄였고 별로 유도질문이 없어도 기탄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우끼시호마루선원의 수기>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으니 더 숨길게 없다고 생각하우다. 우리가 큰죄를 졌지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선원들은 아무것도 몰랐수다. 마지막순간에 어느 뽀트에 타라는 지령을 받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지요. 한참 뽀트를 저어나오다가 <선장님이 안보입니다. 선장님을 찾아봐야겠수다.>라고 했더니 쓰까다부선장이 <입을 다물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병어리가 되여야 한다. 소경이 되면 더욱 좋다.>라고 합디다. 후에 구보다기관장이 귀뜸해주는데 부선장과 선장님사이에 대판싸움이 있었다더군요. 우리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걸 알아챘지만 침묵했지요. 침묵은 황금이라는 말을 얻어들은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쓰까다 유끼오를 왜 때려눕혔는가 하면... 사실은 내가 좀 피를 써서 돈벌이를 했수다.

<우끼시호마루>사건이 있는 다음해 가을에 쓰까다부선장이 결혼을 했는데 피로연이라는데 참석하라고 해서 가보니 아, 글썄 신부가 이즈미 도시표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이라구야. 깜짝 놀랐지요. 나는 쓰까다부선장이 이즈미선장님을 죽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따님을 척 색시로 맞았던말이우다. 이다지도 뻔뻔스럽다구야! 보기에도 격분스럽더군요. 이즈미선장님이 생각납디다. 이즈미선장님은 참 고정한 분이였지요. 나는 그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우다. 그분이 이 사실을 알면 바다밑에서 눈을 부릅뜨고 일어설것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도시표양은 또 어떻게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와 결혼한다는것을 알면 기절충풍하겠지요.

나는 차려진 음식상을 발로 와락 걷어차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꼭 참았수다. 바로 이때 내가 악마의 꾀임을 받았어요. 나는 이런 궁리를 했수다. 옳지, 쓰까다의 목덜미를 거머쥘수 있을것 같다. 이 결혼식을 파탄시킨대야 내게 생길건 쥐뿔두 없어.

그후 나는 <비밀>을 도시표에게 알려주겠다는 위협으로 쓰까다에게서 돈을 따내군했지요. 종전 직후 생활이 여북 곤란했습니까, 리해해주시우.

쓰까다부선장은 그후 방위청에서도 근무했고 총무청에서도 근무했는데 워낙 명문이라고 하던 집안이라 얼싸하게 지냈지요. 내게 몇푼씩 쥐여주는건 하루밥 유혹비만도 못했을겁니다.

쓰까다부선장이 퇴직한 다음에는 그의 아들 유끼오가 나에게 <보조금>을 주군했지요. 그자도 아버지의 비밀, 자기 부모들간의 관계를 내게서 듣고는 깜짝 놀랐고 그것이 가정풍파의 원인으로 되고 자기 가문의 체면, 자기의 출세에 화가 미칠것을 겁냈지요. 그런데 내가 그만 욕심이 파했수다.

도시표부인이 사망한 뒤에도 보조금을 타러 쓰



까다 유끼오를 찾아갔거든요. 유끼오놈이 노발대발합디다.

<럭감, 인젠 그만하고 물러서지 않겠소? 난 인젠 두려울게 없소. 다 들장난 판이니... 거머리도 배가 부르면 떨어지는 법인데 두상은 너무하구만.>

<뭐, 거머리?!>

<거머리가 아니고 뭐인가?>

그놈이 책상을 쾅하고 내려칩디다. 아직 새파란 젊은놈이... 아무리 돈이면 염라국재판도 물리는 세상이라지만 제 애비벌되는 늙은이에게 이런 모욕이 있는가? 책상우에서 채털이가 춤을 추는 걸 본 나는 그걸 덩썩 틀어쥐자 그놈의 코등을 찔지요.

그놈이 손바닥으로 코싸배기를 헐싸쥘는걸 나는 련이어 강타를 들이댔수다. 배군들은 누구나다 싸움깨나 하지요. 젊었을 땐 내 손이 땀다는 소리를 들었수다. 유끼오놈은 쿵 하고 방바닥에 큰대자로 나가뻘더군요. ...>

《하야시 이찌로선원에 대해서는 아시는게 없습니까?》

《나는 하야시를 그후엔 만나지 못했수다.》

《그에 대해 들으신 이야기는 없습니까?》

《들은 이야기는 있소만...》

《어서 좀 말씀해주시시오.》

《...》

사끼이로인은 난처한듯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며 오래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가 분기가 치미는듯 이렇게 뇌였다.

《까짓거, 그 못된놈들 감싸줄 필요 없지요. 이왕 쏘아놓은 말이니 다 하겠수다. 들은대로... 구보다기관장한테서 들은건데... 구보다가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2년전에 죽었수다.

언젠가 구보다를 만나니 이런 말을 합디다.

<썩까다가 지독해. 그자에게 끌려서 나는 하루리작업까지 했네.> 하야시가 살아있다는걸 썩까다가 알아내가지고는 <우리 비밀을 아는건 저놈뿐이야, 저놈이 죽어야 우리가 손발을 펼수 있어.> 하더라더군요. 눈치를 보니 썩까다와 구보다가 둘이서 하야시뿐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없애버린 것 같습디다. 어수선할 때였지요. 종전직후이니... 그 집에 불이나 놓고 달아나면 누가 알수도 없고 또 관심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사끼이는 말을 끊었다. 그러더니 잔을 들어 입안에 술을 부어넣고나서 다시 뇌였다.

《하야시의 아버지가 약방에 가서 약을 사가는 걸 썩까다가 발견하고 뒤를 밟아 하야시가 살아있다는걸 알아내가봅디다. 40마일을 맨몸으로 헤어나오느라 하야시는 구사일생을 했을거우다. 몸을 상해 치료를 받고있었던 모양입디다.

썩까다가 구보다에게 <하야시는 간단치 않은 자식이야. 나혼자서는 힘들어, 같이 가자구.> 해

서 둘이 하야시네 집을 습격했는데 가보니 하야시가 누워있던 이불만 있고 하야시 당자는 없더라우. 아들이 어디 갔는가, 내놓으라고 강박했지만 하야시의 아버지는 구타를 당해 코와 입으로 피를 쏟으면서도 합구하고 응대를 않더라우. 하야시의 아버지가 죽기내기로 항거하니 썩까다는 <늙은이가 버티기를 하니 우리도 버티기를 할수 밖에> 하면서 로인을 의자에 비끌어매놓은 다음 <기다리지요. 그놈이 아무때건 돌아오겠지.>하더라우. 과연 밤이 깊어지자 하야시가 현관안으로 들어섰다고 합디다. <그래서 결속작업을 했네.> 하고 구보다가 뇌입디다.》

필자는 역시 썩까다일당에 의해서 살해된것이였다.

필자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들은 편집부의 동무들은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침묵하였다.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막상 그것이 현실임을 알게 되자 이루 표현할수 없는 분노와 악당들에 대한 혐오감이 가슴에 차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범죄의 증식과정이 눈앞에 보이는듯하였다.

범죄는 곧 군국주의자들의 생존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단적인 살해이상의 범죄가 또 어디 있겠는가.

얼마후 한 신임기자가 나에게 속삭이듯 말하였다.

《이제는 원고를 왜 보온병속에 넣었고 그 보온병이 왜 땅속에 묻혀있었는가 하는 문제만 남았군요.》

나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필자만이 알고있겠는데 그가 희생되었으니... 물론 추측할수는 있소. 이런 추리가 가능하지.

약방에서 썩까다를 만난 다음 허둥지둥 집에 달려온 아버지는 병석에서 글을 쓰고있는 아들에게 부선장이 올수 있으니 어서 몸을 피하라고 권고했을거요. 아들은 그까짓 부선장쯤 두려울게 없다고 우기다가 늙은이의 간청에 못이겨 원고를 주섬주섬 꾸등쳐안고 일어섰는데 아버지는 약방에서 사온 약과 더운 물이 들어있는 보온병을 쥐여주면서 뒤걸음으로 빠지면 방공호가 있으니 거기에 가 약도 먹고 숨어있으라고, 부선장놈이 돌아간 다음에 연락할터이니 그때에 오라고 했을수 있지. 아버지의 강권에 못이겨 몸은 피했지만 집필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는 방공호가 아니라 나무밑이나 무너진 담벽뒤에 가 앉았을거요. 종전직후라 폭격에 지붕이 날아난 집도 많고 파벽무더기도 많아 몸을 숨길만한곳은 얼마든지 있었을거요. 담벽같은데 몸을 기대고 앉은 그는 약도 먹고 원고도 썼을것이요. 글을 쓰는데 열중한 그는 시간을 잊고있다가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야 하루해가 다 저물었다는것을 깨달았을것이고 왜 아버지가 여태 연락이 없을가 하는 의문

이 들었을것ियो. 의문이 들자 불길한 느낌이 뒤따랐을것이고 부선장님이 아버지에게 행패질을 할수 있다는것,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을수도 있다는 의혹이 들었을것ियो. 쯔까다같은놈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집으로 가봐야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쯔까다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우끼시호마루>의 비밀을 인멸하기 위한 목적이외에 다른 용무가 없을것이라는 판단과 쯔까다는 혼자서는 자기를 감당할 자신을 못가질것이니 줄개들과 작당해서 올수 있다는것, 그러면 일이 어렵게 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뒤따랐을거요. 결과를 예측할수 없다는 위구심을 느낀 그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원고를 보관할 방도를 찾다가 보온병의 물을 쏟아버리고 그속에 원고를 두루말이로 밀어넣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을곳에 놓았을거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을것ियो.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일이 다르게 벌어졌을수도 있소. 그러나 원고를 보온병속에 넣어 숨겨둔것은 사실이고 35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 략엽에 덮이고 눈비를 맞고 장마철에는 흙탕물이나 사태에 뒤덮이기도 하면서 땅속에 묻혀버리는 과정을 겪었으리라는것은 거의 틀림이 없을것 같소. 물론 다 억측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요. 왜 원고를 보온병속에 넣었는가, 보온병이 어떻게 되어 땅속에 묻혔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원고에 무엇이 적혀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하지. 군국주의잔당들의 마수에 걸려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필자의 원고는 우리 인민이 어떤 악당들의 잔악한 압제밑에 고통받고 신음하였는가를 후대들에게 피의 교훈으로 전해주고있소. 어찌 <우끼시호마루>뿐이였겠소. 수기에도 있지만 기다자끼요새 공사장에서든 근 3,000명의 인부들이 생목숨을 잃었소. <우끼시호마루>나 기다자끼만도 아니요. 일본땅의 곳곳에, 일본땅의 모든 탄광들과 광산들, 매개 공사장들, 매개 군수공장들마다에 <우끼시호마루>나 기다자끼보다 더 무서운 참사가 묻혀있지 않다고 누가 보증하겠는가.

우리 인민은 참 지독한 놈들과 맞다들렸댔소. 일본군국주의같은 인간야수들의 집단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었을거요. 지어 <일본군위안부>같은것까지 고안해낸 놈들이니... 참 악독하고 또 치사스럽기 이를데 없는 놈들이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얼굴의 치수를 재보게도 했고 아리아족의 표준골상을 표시하는 몇가지 형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굴을 맞추어보게도 했지. 얼굴이 형타에 맞지않으면 강제수용소에 끌고갔소. 세계적인 대학자도, 명성높은 예술가도 두개골이 아리아족의 골상에 맞지 않으면 용서없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소. 강제수용소는 곧 가스실이였고 가스실은 죽음이었소. 그러니 검열관앞에서 그 아리아족표준형타에 얼굴을 들여밀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선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공포감에 휩싸여 전율하지 않을수 없었소.

그런데 이보다 더 잔악하고 더 기묘한 선별방법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먼저 생각했단말이요. 히틀러보다 10여년이나 앞서서...

수기에도 섞여있는것처럼 이놈들은 <15원 50전>이라는 한마디를 발음해보게 하고는 그것으로 사람의 생사를 판결했으니 히틀러보다 얼마나 더 간단히 인간의 생명을 처리했는가? 아마도 그래서 <조선사람도 사람이야>라는 말까지 췌친 왜놈도 있었던것 같소.

그래도 독일은 전후에 히틀러야수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독일민족의 죄파로, 수치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에 사죄하고 보상하였소.

그러나 일본은 후안무치하게도 보상은 커녕 사죄할 일도 없다고 우겨대고있소. 오히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떠벌이는 판이요. 하기야 쯔까다가쓰지같은 인종지말들에게 무슨 수치심이 있고 자책감같은것이 생겨날수 있겠소...》

인간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자들에게서 자책감과 같은 고급한 도덕적감정을 기대한다는것이 무리한 일이기는 하다.